



지역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전달체계 성과평가와 내실화 방안을 위한 연구

-광주, 대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김문길

김유휘·정은희·임완섭·전지현

【연구책임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지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제 | 출 | 문

광주청년센터장, 대구광역시청년센터장,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관과 용역계약한 「지역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전달체계 성과평가와 내실화 방안을 위한 연구-광주, 대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홍 식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5
제2장 청년활동지원사업 현황	7
제1절 상담 지원	9
제2절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11
제3절 청년 커뮤니티 지원	12
제4절 기타 지원 사업	13
제3장 청년활동지원사업 양적 평가	3
제1절 상담 지원	3
제2절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4
제3절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4
제4절 향후 평가 방향	4
제4장 청년활동지원사업 질적 평가	6
제1절 상담 프로그램	6
제2절 진로 탐색 프로그램	9
제3절 커뮤니티 지원 사업	8
제5장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 평가	11
제1절 운영 방식	11
제2절 조직, 인력 및 인프라	8
제3절 역할 및 방향성	6



제6장 결론	169
제1절 청년센터 사업 및 전달체계 검토 결과	171
제2절 청년센터 사업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181
참고문헌	201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1> 광주/대구/서울 청년센터의 상담 사업 개요(2019년 기준)	1
<표 2-2> 광주 청년 마음건강 상담소 프로그램별 지원 내용	3
<표 2-3> 광주 마음건강 상담 사업 실적	4
<표 2-4> 대구 청년상담소 사업 실적(2019. 6.~2019. 11.)	5
<표 2-5> 대구 1:1 맞춤형 상담 분야별 지원 실적(2019. 6.~2019. 11.)	5
<표 2-6> 서울 마음건강지원사업 프로그램별 지원 내용(2019년)	7
<표 2-7> 서울 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 실적	8
<표 2-8> 광주/대구/서울 청년센터의 상담사 역량 및 협력구조 강화 사업	8
<표 2-9> 광주/대구/서울 청년센터의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사업 개요(2019년 기준)	1
<표 2-10> 광주 NEET 청년 발굴 및 지원 사업의 내용(2019년)	3
<표 2-11> 서울 자기탐색 프로그램 지원 내용 및 실적(2019년)	4
<표 2-12> 서울잡스 내일취재단 지원 내용 및 실적(2019년)	5
<표 2-13> 서울 사회혁신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지원 내용(2019년)	6
<표 2-14> 대구 청년학교 탄길1 지원 과정(2019년 기준)	7
<표 2-15> 대구 청년학교 탄길1 개설 학과 및 참여자 수	7
<표 2-16> 대구 YES! 매칭 지원 과정(2019년 기준)	8
<표 2-17> 광주/대구/서울 청년센터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 개요(2019년 기준)	0
<표 2-18> 광주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지원 내용 및 실적(2019년 기준)	1
<표 2-19> 대구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과정(2019년 기준)	2
<표 2-20> 서울 관계망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2019년 기준)	3
<표 3-1> 서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정량 평가 결과	8
<표 3-2> 경영실적 평가의 영역별 주요 평가 내용	2
<표 3-3> 평가 지표의 유형	3
<표 3-4> 강신욱 외(2015)에서 제시한 사업단계별 평가 지표	6
<표 3-5> 배정희, 김기현(2020)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시행계획 관련 평가 지표	7
<표 4-1>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정보	5
<표 4-2>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 동기	5
<표 4-3> 상담 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	0
<표 4-4> 만족도 점수와 만족도 점수 높은 이유	8
<표 4-5> 신뢰도 점수와 그 이유	1
<표 4-6> 상담을 한마디로	3



<표 4-7> 수당의 역할	5·8
<표 4-8>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또는 추가적 욕구	9·8
<표 4-9>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자 정보	7·9
<표 4-10>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 동기	8·9
<표 4-11>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	3·0·1
<표 4-12> 진로 탐색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와 이유	0·1·1
<표 4-13>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신뢰도 점수 변화와 이유	3·1·1
<표 4-14>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6·1·1
<표 4-15> 수당의 역할	811
<표 4-16>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또는 추가 욕구	2·2·1
<표 4-17>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정보	7·2·1
<표 4-18>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 동기	8·2·1
<표 4-19>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	9·2·1
<표 4-20> 커뮤니티 지원 사업 만족도 점수와 이유	5·3·1
<표 4-21>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신뢰도 점수 변화와 이유	6·3·1
<표 4-22>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8·3·1
<표 4-23>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또는 추가 욕구	1·4·1
<표 5-1> 지역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이하 지역청년센터) 분석틀	8·4·1
<표 5-2> 지역청년센터 종사자 간담회 정보	8·4·1
<표 5-3>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 연혁	9·4·1
<표 5-4>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 설립 근거 및 업무 범위	0·5·1
<표 5-5>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 위탁 방식	2·5·1
<표 5-6> 청년정책 및 지역청년센터 관련 지자체 행정조직	2·5·1
<표 5-7>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의 유관기관 협약 현황	7·5·1
<표 5-8>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 조직 및 인력 구성(2020년 8월 기준)	0·6·1
<표 5-9>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역량자가체크의 역량	1·6·1
<표 5-10> 2020년 예산 현황	461
<표 5-11>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 유·무형 자원 현황	6·6·1
<표 6-1> 상담 프로그램 평가	271
<표 6-2>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 평가	4·7·1
<표 6-3>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평가	6·7·1



<표 6-4> 사업별 수당 연계 상황	771
<표 6-5> 사업단계별 평가 지표(안)	891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 광주, 대구, 서울시는 청년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세부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음.
-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는 예산의 효율적·효과적 집행을 점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업의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이에 따라 청년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성과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고, 성과 평가에 접근하는 방식도 상이하여 비슷한 성격의 사업의 성과가 달리 측정될 수 있음.
- 청년정책에 대한 성과를 ‘취업률’과 같은 정량적이고 일차원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이 간편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취업률’과 같은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존재함.
- 따라서 사업의 목적에 부응하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참여 청년의 인식, 심리·정서 상태, 삶의 만족도 등 주관적 차원과 사회통합의 차원 등으로 성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 「청년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성과 평가 방법이 준비될 필요가 있음.
 - － 한편으로는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청년수당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의 신설·변경 신청 시 사전에 성과 평가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중에 있음.

- 「청년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본격화 할 청년정책의 집행 및 서비스 전달기관으로써 지역청년센터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광주, 대구, 서울시 청년센터의 경우 광역 단위 청년정책 집행기구로써 향후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 단위 청년센터와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도 검토가 필요함.

2. 연구 목적

- 지방자치단체별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성과 평가 실시
 -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정책 내실화를 위한 정책 환류체계 마련
 -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의 균형 있는 접근을 통해 지역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 지역청년센터 성과 평가 실시를 통한 현재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
 -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체계 구축에 있어 서비스 전달기구로서의 지역청년센터 역할 정립
 - 향후 확대와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정책 집행 및 전달체계로서의 모범 사례 제시
-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 전망
 - 청년정책의 보편적 수요와 지역 특화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체계 구축
 - 지역청년센터 인프라 개선을 통한 청년활동지원사업 내실화
 -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포괄적 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사례로 활용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 청년활동지원사업 성과 평가 방법 검토

- 지역청년센터별 성과 평가 대상 사업 선정 및 현황과 문제점 검토
- 청년정책 성과 평가 국내외 사례 연구

□ 세 개 지역 주요 청년활동지원사업 현황 검토

- 지역별 공통 사업인 심리상담,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특성 검토

□ 청년활동지원사업 성과 지표 설정 및 평가

- 정량적 접근에 의한 성과 평가
 - 청년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정량 지표 설정 및 평가
 - 투입(input), 산출(outcome), 결과(outcome), 과정(process)의 차원별 정량 평가 지표 설정 및 평가
- 정성적 접근에 의한 성과 평가
 - 사업 목적에 부응하는 결과(outcome)의 지표 설정 및 평가
 - 청년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정성 지표 설정 및 평가

□ 지역청년센터 성과 평가

- 지역청년센터 인프라 분석
 - 지역청년센터 인력 구성의 적정성 검토
 - 지역청년센터 위탁관계 검토
- 청년정책의 집행 및 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청년센터의 성과 평가
 - 사업 집행 과정(process) 평가

6 지역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전달체계 성과평가와 내실화 방안을 위한 연구-광주, 대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 서비스 전달기구로서의 수행실적 평가

□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전달체계 개선방안 도출

○ 성과 평가에 근거한 청년활동지원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 사업별 자원(예산, 인력 등)의 적정 배분을 통한 사업 내실화 방안

○ 성과 평가에 근거한 지역청년센터 발전방안 제시

- 지역청년센터 성과 평가를 통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방식 개선 및 지역청년정책 의제 설정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등 역할범위
확대 방안 제시

- 지역청년센터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 정비 방안 제시

2. 연구 방법

□ 사업성과 평가 관련 국내외 문헌 연구

○ 정량 평가, 정성 평가 방법 검토

□ 센터별 주요 사업 결과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문헌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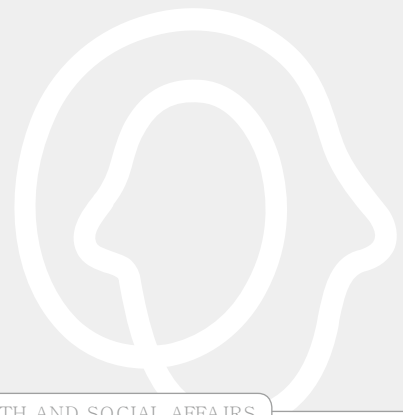
○ 주요 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 참여자 조사 결과 검토

□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 센터 담당자 대상 심층면접

○ 센터 주요 사업 참여자 대상 심층면접



제 2 장

청년활동지원사업 현황

제1절 상담 지원

제2절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제3절 청년 커뮤니티 지원

제4절 기타 지원사업

제 2 장 청년활동지원사업 현황

- 각 지역의 청년센터 운영은 지역별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며, 조례에 각 센터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음.
- 조례에 명시된 청년센터의 업무 범위를 살펴보면, 대구와 광주시는 모두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청년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그 외 청년정책에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포함함.
- 서울시의 조례에는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진로 모색 등 구직활동 지원, 심리적 안정 지원, 자립 지원, 청년지원 전문 인력 육성,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 그 외 청년지원에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종합해보면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진로 모색, 자립 지원, 청년 활동 지원 및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역량 강화 등을 청년센터의 역할로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청년센터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는 크게 심리 문제 등에 대한 상담,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청년 중심의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지원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
-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일한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며, 지역의 청년수당과의 연계 여부 및 연계되는 방식 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임.
- 또한 때로는 지역의 여건 및 사업 운영의 맥락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기도 혹은 신규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2019년 기준으로 지역별로 상담,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청년 커뮤니티 지원 등 세 영역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제1절 상담 지원

□ 상담 지원 사업의 목적과 개요

- 광주, 대구, 서울 청년센터 모두 각 지역의 거주 청년들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맥을 같이 하고 있음.
 - 그러나 세부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를 보임.
- 광주청년센터의 대면 상담은 사업 초기에는 애니어그램 등과 같은 가벼운 심리 상담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에는 다양한 고민과 걱정으로 정서적 불안감을 안고 있는 광주 청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찾도록 전문 심리 상담 및 맞춤형 상담자원 연계를 제공함.
 - 2020년은 기존에 제공하던 마음건강 상담소를 통한 심리 상담뿐 아니라 개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함. 즉, 공공 및 민간의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을 총 망라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센터 내 상주하는 전문 상담 인력이 맞춤형 상담 및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도 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감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구조를 기반으로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다만, 광주가 상담이 필요한 광주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데 반해, 서울의 경우는 청년수당 참여자가 지원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대면 상담 기준).
- 대구광역시청년센터의 경우에는 마음건강 관련 심리 상담에 초점을 둔 광주 및 서울과 달리 심리 상담을 포함하기는 하나 이보다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지원 대상이 저소득 청년이며,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연계사업으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상담연결형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서도 차이가 있음.

〈표 2-1〉 광주/대구/서울 청년센터의 상담 사업 개요(2019년 기준)

구분	광주청년센터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사업 명	- 청년 마음건강 상담소 (‘토닥토닥 청년상담소’)	- 청년종합정보제공사업_청년 상담소	- 청년마음상담소 - 온라인청년고민상담소 (‘hi,there’)
사업 기간	2019. 1. ~ 2019. 12.	2019. 2. ~ 2019. 12.	2019. 3. ~ 2020. 2.
지원 대상	- 고민 상담을 필요로 하는 광 주 청년	- 만 19~34세 대구 거주 미취업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자 * 온라인 상담은 대구 청년	-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참여자 - 서울시 청년 등
지원 내용	- 진로, 자아, 연애, 인간관계 등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 10개 분야 상담 진행 - 1:1 상담 진행 후 30만원 수 당 지급	- 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감 제고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지원 방법	- 온라인 상담 - 오프라인 상담 - 오픈형 심리 지원 프로그램: 상담콘서트, 템플스테이	- 1:1 맞춤형 상담 - 온라인상담소 - 상담토크콘서트	- 일대일마음상담 - 그룹마음상담 - 온라인 고민 상담
지원 예산	- 63,000천원 (사업비 예산 중 20.7%)	- 본예산 60,000천원 (사업비 본예산 중 12.4%) - 별도예산: 95,000천원	- 404,500천원 (사업비 예산 중 21.0%)

자료: 광주청년센터. (2019). 2019년 주요사업 현황 추진 실적 보고. 내부자료; 광주청년센터. (2019). 2019 광주청년센터 운영사업 정산서. 내부자료;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20). 2019 청년종합정보제공사업 『청년상담소』 4분기 누적 사업결과보고서. 내부자료;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20). 2019 대구광역시청년센터 결산자료. 내부자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0). 2019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추진 결과보고. 내부자료.

□ 지원 대상

○ 광주 상담 사업은 정서적 불안 등 다양한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광주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대구 상담 지원의 경우에는 온라인 상담은 대구 청년 누구나 가능하지만, 1:1 맞춤형 상담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_상담연결형을 신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함.

- 1:1 상담의 신청 자격은 만 19~34세 이하 중위소득 150%이하 저소득 청년으로 취업 준비 및 사회활동 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이며, 상담 진행 후 활동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임.

○ 서울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고민상담은 서울시 청년 누구나 받을 수 있으나, 청

년마음상담소는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함.

- 대구와 다른 점은 대구의 대면상담이 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상담 참여 후 수당을 지급하는데 반해, 서울은 수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나 프로그램 참여가 수당 지급의 전제는 아니라는 점임.
-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전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3~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생애 1회 지원함.

□ 지원 내용 및 지원현황

○ 광주청년센터의 마음건강 상담 지원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뿐만 아니라 상담콘서트나 템플스테이 등과 같은 다양한 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온라인 상담은 다양한 고민으로 본인의 심리적 정서에 대해 궁금하거나 정서적 불안을 느끼는 광주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해 진로정서 자가진단 시스템(온라인)을 도입하여 활용 중
 - 내담자의 고민 글을 바탕으로 대면상담이 필요가 판단될 시 오프라인 상담으로 유도하여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함.
 - 상담 내용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상담기관 방문 추천 또는 단체나 기관에서 진행되는 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해줌.
- 광주의 오프라인 상담은 온라인 상담과 마찬가지로 진로, 인간관계, 가족 내 갈등, 연애와 성, 스트레스, 우울증 등 고민 상담이 필요한 광주 청년 누구나 받을 수 있음.
 - 청년 본인의 성격과 성향에 대해 알고 충분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상담 신청을 통해 심리검사(다면적 인성검사 MMPI-2, 성격검사 NEO, 문장완성검사)를 받을 수 있음. 그리고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성격과 성향에 대해 해석하고 상담을 진행함.

- 심층 상담 및 전문분야의 상담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지역 내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하여 상담 또는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함.
- 최종 상담 마감 후 만족도 조사를 진행
- 상담콘서트는 청년들의 진로와 정서에 대한 고민을 각 분야의 상담패널 및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공개적으로 나누고 공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템플스테이는 명상, 공양, 다도, 집단상담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이 지친 청년들에게 일상의 고민에서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함.

〈표 2-2〉 광주 청년 마음건강 상담소 프로그램별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온라인 상담	광주청년플랫폼 도킹 게시판에 이용한 심리 상담 지원	- 광주청년플랫폼 '도킹' 홈페이지 로그인¹⁾ - 토닥토닥 청년상담소 배너 클릭 - 상담 운영 소개 및 안내 페이지 확인 - 온라인상담 신청 - 고민 글 작성 - 내담자 답변 확인 * 3일 이내 상담사 답변 완료
오프라인 상담	온라인 사전 예약 후 1:1 대면 상담 지원	- 광주청년플랫폼 '도킹' 홈페이지 로그인¹⁾ - 토닥토닥 청년상담소 배너 클릭 - 상담 운영 소개 및 안내 페이지 확인 - 내 마음 상담 신청(오프라인) - 예약 날짜와 시간 체크 후 예약 완료 - 상담사가 직접 예약 확인 후 내담자 연락 - 상담일지 작성
상담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이야기해 보는 공개 상담콘서트	- 참여 신청 시 자신의 고민 이야기를 작성하고, 상담사 사전미팅을 통해 고민 이야기를 선정하여 상담콘서트에서 직접 피드백 제공 - 상담콘서트에 참석한 참여자의 고민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상담 패널과 이야기 나눔.
템플스테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청년들의 지친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힐링캠프 진행	- 1차: 명상, 다도, 법문, 집단상담 등 - 2차: 108배, 집단상담, 숲 해설과 함께하는 무등산 국립공원 걷기, 예술 치료, 죽음 교육 - 3차: 예불 및 공양, 무등산풍경소리 음악회, 스님과의 차담

주: 1) 2020년 현재는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 온라인 게시판이나 '전화-대면 상담 신청' 캘린더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음.

자료: 광주청년센터, (2019). 청년 마음건강 상담소 토닥토닥 청년상담소 운영 결과보고서. 내부자료.

- 이 외에도 전반적인 심리적 건강상태와 진로 영역에서의 강점 및 어려움의 정도를 청년 스스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진로&

정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진로&정서 자가진단 문항과 온라인 시스템을 협약을 통해 광주에 도입함,
 - 자가진단의 결과에 따라 위기사항의 경우(자살위기 등) 개입 할 수 있음.
- 광주의 청년 마음건강 상담소는 월~토 주 6일 상담 지원으로 계획 대비 180% 이상의 상담을 제공함.
- 2019년 기준 온·오프라인 심리 상담은 총 1,087건이 진행됨.

〈표 2-3〉 광주 마음건강 상담 사업 실적

구분		2019년 추진 실적
심리 상담	온라인	66건
	오프라인	1,021건
	합계	1,087건
청년상담콘서트 ‘아는 사람 이야기’		1회(총 60명 참여)
템플스테이		3회(총 33명 참여) – 1차 템플스테이 집단상담: 11명 – 2차 템플스테이 집단상담: 10명 – 음악이 있는 템플스테이: 12명

자료: 광주청년센터. (2019). 2019년 주요사업 현황 추진 실적 보고. 내부자료; 광주청년센터. (2020).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내부자료

○ 대구광역시청년센터의 청년상담소는 주로 청년이 자신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청년 종합 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구의 상담 지원 사업의 특징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연계사업으로 1:1 상담 진행 후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임.
- 1:1 맞춤형 상담은 화, 목, 금 13:00~18:00, 수 10:00~21:00 운영되었으며, 2019년 6월~11월까지 6개월간 상담 신청 총 953건 중 900건의 상담이 완료되었음.

〈표 2-4〉 대구 청년상담소 사업 실적(2019. 6.~2019. 11.)

월별	2019년 추진 실적
6월	상담 신청자 154명, 144명 상담진행 완료
7월	상담 신청자 120명, 113명 상담진행 완료
8월	상담 신청자 129명, 127명 상담진행 완료
9월	상담 신청자 147명, 138명 상담진행 완료
10월	상담 신청자 181명, 172명 상담진행 완료
11월	상담 신청자 222명, 206명 상담진행 완료

자료: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20). 2019 청년종합정보제공사업 『청년상담소』 4분기 누적 사업결과보고서. 내부자료.

- 대구 상담 사업은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진로, 취업 및 창업, 노동, 부채 및 금융, 주거, 기초, 청년정책, 심리, 과의존 등 10개 분야의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상담 분야별 지원 현황을 보면, 진로와 취업, 노동 분야 상담이 38.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심리 관련 상담이 27.0%, 기초 및 자산 등 경제적 문제가 24.0%로 나타남.

〈표 2-5〉 대구 1:1 맞춤형 상담 분야별 지원 실적(2019. 6.~2019. 11.)

구분	상담 분야	건수	비율
1	진로	119	13.2
2	창업	33	3.7
3	취업	161	17.9
4	노동(근로)	34	3.8
5	부채(금융)	42	4.7
6	주거	32	3.6
7	기초	142	15.8
8	청년정책	94	10.4
9	심리	230	25.6
10	과의존	13	1.4
전체		900	100.0

자료: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20). 2019 청년종합정보제공사업 『청년상담소』 4분기 누적 사업결과보고서. 내부자료.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감 제고를 위해 온라인 상담을 비롯해 일대일 상담 및 그룹 상담 등 대면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 마음상담은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중 프로그램 선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대일마음상담은 참여자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향후 발견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동기를 얻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
- 전문 심리 상담사와 7회기 1:1 심리 상담 진행(연장 시 최대 12회기)
- 상담 종결 후 자살위기 등 약물치료나 사례관리 필요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 연계함.
- 집단상담은 소규모 또래 청년들로 그룹을 구성하여 다회기 그룹상담과 단회기 그룹상담을 진행함.
- 다회기 그룹마음상담(8회기, 8명 내외)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청년 개인의 사회적 지지와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심리·정서 관련 주제로 하는 구조화된 집단상담 형태의 프로그램임.
- 단회기 그룹마음상담(주제별 2회, 15명 내외)은 다양한 주제의 그룹마음상담을 통해 집단 내 긍정적 경험을 통해 잠재적인 강점과 역량을 파악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감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임.
- 온라인상담은 일상생활에서의 고민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온라인플랫폼 ‘안녕, 잘 지내?’ 운영을 통해 문턱 낮은 청년특화 고민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표 2-6〉 서울 마음건강지원사업 프로그램별 지원 내용(2019년)

프로그램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세부 지원 절차
일대일 마음상담		- 전문 심리 상담사와 7회기 1:1 심리 상담 (연장 시 최대 12회기)	2019. 5.~11.	- 프로그램 신청 - 참여자 예비 선정 - 전화 스크리닝 - 상담사 매칭 - 상담 진행 - 상담 종결 - (필요시) 외부기관 연계
그룹 마음 상담	다회기	- 8명 내외 또래 청년과 8회기 구 조화 집단상담(1회기 당 3시간)	2019. 6.~11.	- 프로그램 신청 - 참여자 예비 선정 - 전화 스크리닝 - 상담 진행 - 상담 종결 - (필요시) 외부기관 연계
	단회기	- 15명 내외 또래 청년과 단회기 집단상담(참여자 욕구기반 시범 운영)	2019. 7.~12.	- 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 (2회 차, 각 5시간, 총 10시간) - 고민 나눔 프로그램 (2회 차, 각 3시간, 총 6시간) - 노동 분야 그룹마음상담 (2회 차, 각 3시간, 총 6시간) - 예술 분야 그룹마음상담 (2회 차, 각 3시간, 총 6시간)
온라인상담 (하이테어)		- 온라인 고민상담 게시판 내 단 회기 고민상담, 정보 제공	2019.3.~ 2020.2.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사연 작성 - 또래상담사 ‘마음친구’ 매칭 - 답변 작성 - 상담 종결 - (필요시) 연계

자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0). 2019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추진 결과보고. 내부자료.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청년특화 진로·정서 자가진단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미취업 청년 전반의 일상적 진로·정서 영역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지원 대상은 청년수당 참여자뿐만 아니라 서울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든 자가진단을 실행할 수 있음.
- 온라인청년고민상담소 하이테어 내에서 자가진단 문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함.
- 2019년 기준 5,294명이 서울 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계획했던 5,106명 대비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임.

18 지역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전달체계 성과평가와 내실화 방안을 위한 연구-광주, 대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표 2-7〉 서울 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 실적

구분	2019년		달성률
	목표	실적	
마음건강지원사업 - 일대일마음상담 - 그룹마음상담 - 온라인고민상담	총 5,106명	총 5,294명 - 일대일마음상담 3,256명 - 그룹마음상담 다회기 500명, 단회기 74명 - 온라인고민상담 1,463명	103.7%

자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0). 2019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추진 결과보고. 내부자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9).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차보고서: 청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니다.

□ 지원체계

- 서울, 대구, 광주의 3개 청년센터는 모두 상담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표 2-8〉 광주/대구/서울 청년센터의 상담사 역량 및 협력구조 강화 사업

구분	광주청년센터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	- 상담사례 공유회: 슈퍼바이저와 상담사가 사례를 공유하고 솔루션을 함께 논의 - 상담 운영회의: 상담사 및 담당자 참여 운영 방향과 시스템 점검하여 개선점과 발전방안 모색	- 상담사 교육: 상담사 및 청년센터 실무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 예비상담사 교육: 2018년 토닥이양성소 수료자 대상 교육 통해 상담사 발굴 및 육성 - 상담사 평가 회의: 청년상담소 운영성과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	- 협력파트너 오리엔테이션: 청년의 상황 및 상태 이해,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 교육 - 그룹마음상담 리더/코리더 역량 강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매뉴얼 교육 진행, 슈퍼비전 진행 - 온라인청년고민상담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청년고민상담사 양성과정): 또래상담사 '마음친구'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그룹 슈퍼비전 등
상담 관련 기관과의 협력	- 상담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상호간 정보 교류 및 협업	- 상담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약 및 협력논의 테이블 운영으로 교류 및 연계	- 마음건강 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업무협약 통해 정보 교류 및 연계

자료: 광주청년센터. (2019). 청년 마음건강 상담소 토닥토닥 청년상담소 운영 결과보고서. 내부자료;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20). 2019 청년종합정보제공사업 『청년상담소』 4분기 누적 사업결과보고서. 내부자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0). 2019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추진 결과보고. 내부자료.

제2절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먼저 대구의 경우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고 있음.

– 진로 탐색 지원 사업에는 ‘청년학교 탄길1’과 ‘청년학교 탄길2’가 포함되며, 일 경험 지원 사업으로는 ‘청년사업장-청년 잇기 프로젝트 YES! 매칭’이 있음.

- 청년학교 탄길1과 탄길2는 진로 모색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기 탐색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직업과 다른 삶의 방향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YES! 매칭 사업은 청년학교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일 경험 지원, 청년사업장 발굴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청년사업장의 성장을 통한 청년들의 동반 성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임.

– 수당 지급 여부로 구분하자면 청년학교 중 탄길1과 YES! 매칭은 청년사회 진입활동지원금 연계사업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이 지급됨.

- 수당이 지급되는 청년학교 탄길1과 YES! 매칭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중에서도 저소득 가구에 속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 되며, 수당이 연계되지 않는 청년학교 탄길2는 만 19~39세 대구 거주 청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서울의 구직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2019년 기준으로는 크게 진로 탐색 지원 사업과 일 경험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일 경험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회혁신청년활동가 양성사업’과 ‘현장체험학교’의 경우에는 2020년 현재는 종결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진로 탐색 지원 사업으로는 ‘자기탐색 프로그램’과 ‘서울잡스 내일취재단’이 계속 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의 개인 경험, 가치와 선호, 적성, 구직 준비 정도 등 참여자 특성에 맞춰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 지역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전달체계 성과평가와 내실화 방안을 위한 연구-광주, 대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 진로 탐색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참여자 및 구직 청년임.

○ 광주청년센터의 관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NEET 청년 발굴 및 지원'사업은 니트 청년들에게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진로 설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시행되었으나 2020년에는 중단됨.

- 광주의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은 서울과 대구의 구직 및 취업 지원 사업과는 그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2019년 이전에 공모사업으로 수행했던 광주청년드림수당(2018년)과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2017년~)에서 다양한 유형의 미취업 청년들을 만나면서 니트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광주청년센터 자체 사업으로 구상한 사업임.
-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주로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구직 및 취업 의지를 가지고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와는 참여자의 특성 및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음.

〈표 2-9〉 광주/대구/서울 청년센터의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사업 개요(2019년 기준)

구분	광주청년센터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사업명	- NEET 청년 발굴 및 지원 (*2020년 현재 운영되지 않음)	- 청년학교 ‘판길1’ - 청년학교 ‘판길2’ - 청년사업장-청년잇기 프로젝트 ‘YES! 매칭’	- 자기탐색 프로그램 - 서울잡스 [내:일]취재단 - 사회혁신청년활동가 양성사업 (*2020년 현재 운영되지 않음) - 현장체험학교 (*2020년 현재 운영되지 않음)
사업기간	- 2019. 3. ~ 2019. 12.	- 청년학교 판길1,2 : 2019. 2. ~ 2019. 10. - YES! 매칭 : 2019. 3. ~ 2019. 11.	- 자기탐색: 2019. 5.~2020. 2. - 서울잡스 내일취재단 : 2019. 1.~2019. 12.
지원대상	-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교육 참여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광주 청년	- 청년학교 판길1, YES! 매칭: 만 19~34세 대구 거주 미취업 청년 중 15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자 - 청년학교 판길2: 만 19~39세 대구 거주 청년	-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참여자 - 서울시 청년 등
지원내용	- 지역 닛트 청년 발굴 및 심리·안정·사회진입·취업 지원	- 청년학교 판길1,2: 진로 탐색 지원 - YES! 매칭: 일 경험 지원	- 자기탐색 프로그램: 구직청년의 자기방향성 있는 진로 탐색 기회 마련 - 서울잡스 내일취재단: 취재단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계기 마련 - 사회혁신청년활동가: 사회문제 해결 현장의 일 경험으로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와 경력 형성 지원 - 현장체험학교: 현장기반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진로 분야의 선호 파악과 선택의 기회 보장
지원방법	- 청년 기초상담 -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취/창업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연계 - 자아탐색 프로그램 운영	- 청년학교 판길: 다양한 직업 체험 및 진로 탐색을 위한 커리큘럼 운영 * 판길1 수료 시 150만원 지급 - YES! 매칭: 청년사업장과 일 경험 청년을 매칭하여 5개월 간 일 경험 지원 * 4개월 이상 수료 시 150만원 지급	- 자기탐색 프로그램: 자기이해, 자기표현, 정보 제공 - 서울잡스 내일취재단: 내일 청년취재단 운영, 온라인 플랫폼 ‘서울 JOBS’ 운영 - 사회혁신청년활동가: 공익형 사업장 발굴, 상호 매칭, 참여자 일 경험 지원 - 현장체험학교: 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
지원예산	- 5,000천원 (사업비 예산 중 1.6%) ※ 센터 내 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감액함 (사업계획 수립시 15,000천원)	- 청년학교 판길(본예산): 83,000천원(본예산 사업비 중 17.2%) - YES! 매칭(별도예산): 사업비 및 인건비 포함 812,000천원	- 373,139,855원 : 혁신활동가 98,940,000 : 현장체험학교 49,999,855 : 자기이해, 서울잡스 254,200,000

자료: 광주청년센터. (2019). 2019년 주요사업 현황 추진 실적 보고. 내부자료; 광주청년센터. (2019). 2019 광주청년센터 운영사업 정산서. 내부자료;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19). 2019 대구청년학교 판길 I [3분기 누적 사업 결과보고서]. 내부자료;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19). 2019 청년사업장-청년 잇기 프로젝트 YES! 매칭 [4분기 결과보고서]. 내부자료;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20). 2019 대구광역시청년센터 결산자료. 내부자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0). 2019년도 진로탐색지원사업 결과보고. 내부자료.

□ 지원 대상

- 광주청년센터의 NEET 청년 발굴 및 지원은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교육 참여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만 19세~39세 광주 청년을 대상으로 함.
- 대구광역시청년센터의 경우에는 참여 수당이 지급되는 청년학교 탄길1(수당 연계형)과 청년사업장-청년잇기 YES! 매칭 사업은 만 19~34세 대구 거주 미취업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청년학교 탄길2(일반형)는 만 19~39 세 대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서울청년센터의 진로 탐색 지원 사업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참여자 및 기타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서울잡스 내일취재단의 경우에는 만 19세~29세 청년으로 한정됨. 일 경험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청년수당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았음.

□ 지원 내용 및 지원현황

- 광주의 NEET 청년 발굴 및 지원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NEET 청년 및 NEET 청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심리 안정 및 사회 진입 등 개인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
 - 2019년 NEET 청년 발굴 및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66명의 NEET 청년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NEET 청년 기초상담 및 프로그램 연계 7명, 자아탐색 프로그램을 67명을 대상으로 9회 운영함.

〈표 2-10〉 광주 NEET 청년 발굴 및 지원 사업의 내용(2019년)

사업 내용	지원 내용
니트 청년 발굴	- 사회취약계층 거주 지역 위주 모집·홍보 -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모집 및 발굴 - 사업담당자와 기초상담 및 관계 형성
심리 분석 및 안정 지원	- 전문 심리 상담가의 지속적인 상담 지원 - 정서안정, 정신건강 등 심리상태 진단 및 모니터링
사회 진입 지원	-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의욕 고취, 자신감 및 친밀감 형성 - 대화, 인간관계, 동기부여 등의 교육을 통한 자기주도력 향상 - 일상생활기술 교육으로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취업 역량 강화	- 자아탐색,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교육 제공 - 직업적성 파악 등을 위한 단기 일 경험 제공 - 참여자의 미래 설계를 위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연계

자료: 광주청년센터. (2019). 2019년 주요사업 현황 추진 실적 보고, 내부자료.

- 이 외에 광주청년센터 자체 사업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사회진입 일 경험 및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2019년 공모사업으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_공익활동형(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과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청년재단)’을 진행함.

-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공익활동형): 만19~34세 광주 거주 미취업 청년 대상, 공익활동 영역의 일 경험과 소득 보장을 통한 일자리 탐색 및 사회 연결 지원
-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만 19~34세 광주 거주 미취업 청년(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심리 상담, 취·창업 및 교육훈련 지원, 식사 지원, 법률 고민 지원, 종합검진비용 지원, 애로사항 해소 지원, 사회진입 지원, 면접 비용 지원, 사후관리 등

○ 서울의 구직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진로 탐색 지원 사업(자기탐색 프로그램, 서울잡스 내일취재단)과 일 경험 지원 사업(사회혁신청년활동가 양성 사업, 현장체험학교)으로 구분됨.

- 자기탐색 프로그램은 구직 청년이 자기방향성 있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기탐색 프로그램은 자기이해(자기 강점과 자원 발견), 자기표현(자기소

개서, 면접, 포트폴리오), 정보 제공(직업 및 직무 정보 파악)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참여자의 준비 필요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입문/심화, 기초/완성, 취업/직무 등으로 단계를 세분화함.

- 또한 구직 청년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진로맵핑(고민카드) 등과 같은 장치를 마련함.
- 자기탐색 지원 사업은 2019년 3개 분야 9개 프로그램으로 99회 운영되었으며, 구직 청년 1,048명(누적 3,078명)이 참여함.

〈표 2-11〉 서울 자기탐색 프로그램 지원 내용 및 실적(2019년)

구분	단계	프로그램명	내용	회차/시간	인원 (누적)
자기이해	입문	인사이드아웃	자존감 향상 기반으로 가치, 강점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을 연결하여 진로 탐색 시작을 도움	4시간*4회*3기 (48시간)	71명 (264명)
		진로탐구생활	고민학습지를 통해 자신의 경험 정리를 기반으로 강점을 발견	4시간*4회*1기 (16시간)	18명 (62명)
		취준은 싫지만 진로 탐색은 하고 싶어(산개별)	긍정성을 회복하고 자기이해의 기본 요소를 이해하여 기초적인 진로 탐색 방법을 습득	4시간*4회*1기 (16시간)	20명 (72명)
	심화	좋아하는 일을 내일로 만드는 방법	개인 선호와 역량을 구체화하여 자신의 '업'으로 심화	4시간*4.3회*3기 (79시간)	61명 (262명)
자기표현	기초	나의 첫 번째 취준	자기정리 과정을 통해 구직서류 항목을 이해하여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습득	3.6시간*6회*3기 (66시간)	77명 (363명)
	완성	나로부터 시작하는 취준 3종 세트	경험 정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자기소개서, 면접, 포트폴리오 완성	3시간*2.5회*3기 (81시간)	108명 (695명)
정보제공	취업	취준설명서	취업 본질과 준비과정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강연과 나에게 맞는 센터 프로그램 소개·추천	3시간*1회*7기 2시간*3회*1기 (24.5시간)	385명 (558명)
	직무 I	그 일은 어떤 일일까	워크숍을 통해 조직 및 직무를 이해하고, 직무 필요 역량을 탐색하는 과정	4시간*4회*3기 1.5시간*2회*1기 (52시간)	65명 (197명)
	직무 II	지금 만나러 갑니다	관심분야 현직자 만남을 통해 현업 정보,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룹 멘토링	2시간*2회*2기 2시간*1회*2기 (총 12시간)	243명 (605명)
계				394.5시간	1048명 (3078명)

자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0). 2019년도 진로탐색지원사업 결과보고. 내부자료.

- 서울잡스 내일취재단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나 직무를 인터뷰한 후, 해당 정보를 서울잡스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는 활동 등을 하며, 자기방향성 있는 진로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서울잡스 내일취재단은 실습 및 활동 병행 프로그램으로 상·하반기에 운영되었으며, 2019년 취재단 활동을 한 구직 청년은 총 96명(누적 1052명)임.
- 내일취재단이 현장 인터뷰를 통해 취제한 채용기사, 기업 상세 기사, 현직자 인터뷰는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서울JOBS’플랫폼(seouljobs.net)을 통해 발행되며, 2019년 기준 총 165건의 기사를 게재함.

〈표 2-12〉 서울잡스 내일취재단 지원 내용 및 실적(2019년)

구분	내용	세부 내용	회차/시간	인원 (누적)
내일 취재단 운영	촉진자 교육 및 운영	- 취재단 활동 동력 부여를 위한 매개자 섭외 및 사전교육 실시 - 촉진자 1명당 7~10명 내외 참여자를 도맡아, 주 2회 진행되는 교육과 활동을 지원	4시간*5회차*1기 (20시간)	6명 (28명)
	내일취재단 교육 활동지원	- 자기이해 및 질문워크숍-인터뷰 기술 글쓰기-섭외 및 공적소통-취재 및 기사작성-활동 수료식을 통해 완성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보장	교육 4시간*12회*2기 활동 4시간*18회*2기 (총240시간)	96명 (1,052명)
계			260시간	102명 (1,080명)

자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0). 2019년도 진로탐색지원사업 결과보고. 내부자료.

- 서울은 2019년 일 경험 지원 사업으로 사회혁신청년활동가 양성사업과 현장체험학교를 운영하였으며, 2020년에는 두 사업 모두 종결함.
- 사회혁신청년활동가 양성사업에서는 실질적 일 경험을 원하는 청년이 공익성 있는 현장에서 최소 4개월~최대 23개월 간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진로설계를 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청년층의 수요가 높고 미래 전망이 있는 직무를 발굴하여 분야별 전문성 있는 프로젝트 그룹을 운영함.
- 커뮤니티/공간매니저 육성 프로젝트, 동네매니저 육성 프로젝트, 문화공동체 협치매니저 양성 프로젝트 등 3개 프로젝트 그룹을 운영하였으며, 총 61명의 청년이 참여함.
- 현장체험학교는 일 체험이 필요한 청년이 현장 멘토의 지도와 조력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협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

〈표 2-13〉 서울 사회혁신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지원 내용(2019년)

프로젝트	지원 내용
커뮤니티/공간매니저 육성 프로젝트	-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는 현장에서 공간 관리, 커뮤니티 관리, 콘텐츠 제작을 하는 공간 전문가 양성 - 협력기관: 주식회사 엔스페이스
동네매니저 육성 프로젝트	- 서울 청년의 상태와 욕구를 기반으로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권역별로 제공하는 청년지원 전문가 양성 - 운영기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문화공동체 협치매니저 양성 프로젝트	- 공공이 수립하는 정책사업 계획과 운영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문화 매개 전문가 양성 - 협력기관: 성북문화재단

자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9).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차보고서: 청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니다.

○ 대구의 경우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진로 탐색과 일 경험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

-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는 청년학교 탄길1과 청년학교 탄길2가 포함되며, 탄길1 사업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연계사업으로 사업을 수료하면 150만 원을 지급함(2019년에는 3개월 동안 나눠 지급, 2020년에는 일시 지급).
- 사회진입활동지원금 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청년학교는 탄길2로 운영되고, 대구형 청년수당 대상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탄길1로 신설 운영된 것임.
- 교육 과정은 탄길1과 탄길2 각각 8개 학과로 구성되며, 탄길1의 2019년 지원 과정 및 개설 학과 구성은 다음 2개 표와 같음. 탄길1의 참여자로 총 82명의 청년이 선정되었고, 최종적으로는 78명의 청년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이 중 수료자 및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신청자는 총 73명이었음. 학과별로는 약 10명 내외의 청년이 참여함.

〈표 2-14〉 대구 청년학교 탄길1 지원 과정(2019년 기준)

절차	내용
학과 운영 수행 기관 공모	- 탄길1,2 통합 운영 - 탄길1,2의 학과 개설자 공모 및 선정
학과 개설자 기획회의	- 학과 개설자 오리엔테이션 - 기획회의를 통한 학교 운영 협의
온·오프라인 홍보 및 청년 모집	- 홍보물(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 - 청년 모집 영상 제작 - 현수막 제작 및 게시
학교 운영	- 대상자 선정 및 입학식 - 학과 개별 운영(8개 학과) - 졸업식
결과물 제작 및 배포	- 활동 과정 및 향후 활동 공유를 위한 영상 제작 - 청년센터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배포

자료: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19). 2019 대구청년학교 탄길 I [3분기 누적 사업결과보고서]. 내부자료.

〈표 2-15〉 대구 청년학교 탄길1 개설 학과 및 참여자 수

	학과명	정원	신청자 수	선정자 수	교육생	수료자	비고
1	농장당일치기학과	10	11	8	7	7	-
2	독립출판학과	15	21	16	14	14	-
3	말하는대로학과	15	11	7	7	6	취업 1명
4	뮤직비디오프로덕션학과	10	11	9	10	9	수료기준 미달 1명
5	소셜캠퍼스학과	15	10	8	8	8	-
6	싱어송라이터학과	15	17	11	11	9	수료기준 미달 1명
7	여행콘텐츠학과	15	16	13	11	11	유사사업 선정 1명
8	포텐터지다학과	15	12	10	10	9	수료기준 미달 1명
	총계	110	109	82	78	73	

자료: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19). 2019 대구청년학교 탄길 I [3분기 누적 사업결과보고서]. 내부자료.

- 대구의 일 경험 지원 사업인 사업장-청년 잇기 프로젝트 YES! 매칭은 청년 사업장과 청년을 매칭하여 5개월 동안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탄길1과 마찬가지로 수당연계형 사업으로 4개월 이상 수료하면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150만원을 지급함.

- 청년사업장이란, 만 19세~39세 청년이 대표이거나 직원의 2/3 이상이 청년인 사업장을 의미함. 또한 청년에게 일을 가르칠 전담인력 1인 확보, 청년이 5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4대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청년사업장으로서 등록이 가능함.
- 대구광역시청년센터에서는 청년 인건비의 90%를 지원하며, 그밖에도 직

무교육, 청년포트폴리오 등의 지원을 시행함.

- 2019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사업장 및 청년 모집을 통해 92개의 사업장이 등록하고 154명의 청년이 참여를 신청함. 이 중 54개 사업장에 80명의 청년이 매칭되었고, 청년 및 사업장의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최종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곳은 50개 사업장이었으며, 여기서 73명이 수료함.
- 또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료자 73명 중 21명은 정규직(14명) 혹은 계약직(7명)으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됨.

〈표 2-16〉 대구 YES! 매칭 지원 과정(2019년 기준)

절차	내용	현황
청년사업장 모집 및 발굴	- 모집 홍보 및 설명회 개최 - 전화 및 방문 섭외 등	- 109개 청년사업장 접수 완료
청년사업장 등록	- 접수서류를 통해 등록 요건 확인 - 대구 청년 커뮤니티 포털 플랫폼에 사업장 정보 등록	- 92개 청년사업장 등록
청년 모집 및 선정, 사업장 선정	- 홍보물 제작 및 게시 - 잇기박람회 개최: 사업장과 청년의 탐색의 장 마련 - 수당 사이트 통해 접수 - 청년 서류 심사 후 선정 - 청년 확정에 따른 사업장 최종 선정	- 154명 접수 청년 중 126명 선정 - 58개 사업장 선정
청년-사업장 매칭	- 청년 면접 심사: 사업장 별 1~4명 면접자 배정 - 청년사업장-청년 잇는날 개최(오리엔테이션)	- 54개 사업장, 80명 청년 매칭 - 54개 사업장, 78명 청년 참여
일 경험 사업 시작	- 재매칭 진행: 청년 및 사업장의 중도 포기 등 사유	- 50개 사업장, 73명 일 경험 청년
일 경험 청년 정기모임	- 2회 정기모임 개최 - 청년의 성장을 위한 목표설정 및 공유 - 일 경험 현장과 각자의 역할 공유	- 1차: 75명 참석 - 2차: 72명 참석
청년사업장 안전 교육	- 청년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 청년사업장 의견 수렴	- 청년사업장 45곳 참석
청년사업장 현장방문	- 안전교육 미참석 사업장 및 제조업 사업장 등 사업장 현장 상황 파악	- 청년사업장 13곳 방문
청년 직무교육 개최	- 직장 내 소통 및 스트레스 관리 등 일 경험 청년에게 필요한 소양교육	- 66명 참석
최종결과 공유회 개최	- 청년들의 성과에 대한 공유와 피드백 - 결과 영상 상영 - 사회진입활동지원금 카드 및 통장 개설 - 경력증명서 발급	- 일 경험 청년 73명, 청년사업장 37명, 기타 관계자 40명 참석
사후관리	- 계속 근로 여부 확정: 청년 및 사업장의 의사 확인 후 최종 확정 - 사회진입활동지원금 지원 연계	- 계속 근로 총 21명(정규직 14명, 계약직 7명)

자료: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19). 2019 청년사업장-청년 잇기 프로젝트 YES! 매칭 [4분기 결과보고서]. 내부자료

제3절 청년 커뮤니티 지원

□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목적과 개요

- 청년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지원은 청년과 청년 간, 청년과 지역사회 간, 혹은 청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간의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 지원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청년들의 관심사별로 자발적 모임을 통해 소통 및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그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사업이 있는가하면, 정책적인 교류나 새로운 청년정책의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등의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도 있음.
 - － 여기서는 주로 청년모임 형성과 활동, 청년과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 청년 네트워크 강화 등 청년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 형성과 활성화에 초점을 둔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광주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인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일단모힘, 청년모힘, 작당모힘)은 청년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구의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지역의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모임 활동을 지원(다모디라)하고,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발굴 및 지원(다모디소)하는 사업임.
- 서울의 관계망 지원 사업으로는 2016년부터 ‘어슬렁반상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슬렁반상회는 청년의 다양한 욕구, 상태를 반영한 다회차 소모임으로, 모임 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존감 향상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음.

30 지역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전달체계 성과평가와 내실화 방안을 위한 연구-광주, 대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표 2-17〉 광주/대구/서울 청년센터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 개요(2019년 기준)

구분	광주청년센터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사업명	-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 청년 커뮤니티 지원	- 관계망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2019. 3. ~ 2019. 12.	- 2019. 4. ~ 2019. 12.
지원대상	- 커뮤니티 활동을 원하는 광주 청년	- 만 19~39세 대구 거주 청년	- 청년수당 참여자 중 희망자
지원내용	- 청년 커뮤니티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커뮤니티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	- 지역의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공간 지원 사업	- 진로이행기 청년의 일상생활 지원, 자기탐구를 통한 자존감 향상,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지원방법	- 청년 커뮤니티 형성 지원('일단모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청년 간의 연계를 통한 모임 형성 지원 -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청년모임'): 청년 커뮤니티의 자발적 활동 발굴과 지속 기반 지원 - 청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원('작당모임', 구 반짝모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활동 기회 제공 및 발전을 위한 자원 연계	- '다모디라': 청년 커뮤니티 모임 지원 - '다모디소': 청년 커뮤니티 활동 공간 지원	- 글쓰기, 영화, 요리, 탐방, 만들기 등의 소재를 매개로 자기표현, 공감대 형성, 지지기반 자원, 일상의 활력 증가를 위한 다회차 소모임으로 운영되었으며, 지속적인 관계망 형성을 위한 참여자 주도형 후속 모임 지원 - 원활한 모임 운영과 지역 내 지지기반 마련을 위해 자치구별 협력 파트너 '청년반장' 양성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또래 그룹 발굴
지원예산	- 118,300천원 (사업비 예산 중 38.9%)	- 52,000천원 (사업비 본예산 중 10.8%)	- 232,473천원

자료: 광주청년센터. (2019). 2019년 주요사업 현황 추진 실적 보고, 내부자료; 광주청년센터. (2019). 2019 광주청년센터 운영사업 정산서, 내부자료;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19). 2019 청년커뮤니티지원 「다모디라&다모디소」. [4분기 누계 사업결과보고서]. 내부자료;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20). 2019 대구광역시청년센터 결산자료, 내부자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0). 2019 관계망지원사업 추진결과보고, 내부자료.

□ 지원 대상

- 광주의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커뮤니티 활동을 원하는 광주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음.
- 대구의 청년 커뮤니티 지원도 대구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대구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사업과 달리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별도의 수당은 없음.
- 서울의 관계망 지원 사업은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약 7,500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함.

□ 지원 내용 및 지원현황

○ 광주의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는 청년 커뮤니티 형성 지원,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원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청년 커뮤니티 형성 지원 ‘일단모임’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청년 간의 연계를 통한 모임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커뮤니티 활동이 없는 청년들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함. 2019년 기준 총 14팀이 활동함.
-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모임’은 활동 기간 1년 미만인 신규 청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커뮤니티의 자발적 활동을 발굴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함. 2019년 기준 총 80팀이 활동하였으며, 각 팀별 60만원이 지원됨.
- 청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원 ‘작당모임’은 프로젝트를 기획 중인 청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총 6팀이 지원 받음.

〈표 2-18〉 광주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지원 내용 및 실적(2019년 기준)

구분	청년 커뮤니티 형성 지원 ‘일단모임’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모임’	청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원 ‘작당모임’
지원 대상	- 커뮤니티 활동을 원하는 청년 개인	- 활동 기간 1년 미만인 신규 청년 커뮤니티	- 프로젝트를 기획 중인 청년 커뮤니티(신규/기존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커뮤니티 활동이 없는 청년들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청년의 관심사 및 지역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커뮤니티의 자발적 활동 발굴과 지속 기반 지원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활동 기회 제공 및 발전을 위한 자원 연계 -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과정	- 커뮤니티 개설 희망자 및 주제 선정 - 커뮤니티 개설 및 참여 희망자 모집 - 정기적으로 커뮤니티 참여자 모임 진행	- 청년 커뮤니티 공모 및 선정(2회) - 커뮤니티 워크숍 개최 - 분야별 네트워킹 진행 - 커뮤니티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청년이 도전하는 프로젝트 공모 및 선정(2회) - 프로젝트 지원 오리엔테이션 - 중간보고회 - 프로젝트 지원 결과 공유 콘텐츠 제작 - 결과보고회
지원 실적	- 정기모임 ‘만남의 날’ 행사 9회 진행 - 커뮤니티 활동지원금 14팀 지원	- 커뮤니티 활동지원금 총 80팀 지원(1차 39팀, 2차 41팀) - 각 팀별 60만원 지원	- 커뮤니티 활동지원금 총 6팀 지원(1차 3팀, 2차 3팀)

자료: 광주청년센터. (2019). 2019년 주요사업 현황 추진 실적 보고. 내부자료.

- 대구의 청년 커뮤니티 지원은 청년 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다모디라’와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간을 지원하는 ‘다모디소’로 구분됨.
- 다모디라는 지역 내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를 발굴 및 육성하고, 커뮤니티 간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 활동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모임, 동아리, 단체 등 5인 이상의 팀 단위로 모집하며, 선정된 팀별로 개별 모임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조직들의 자체 성장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그리고 연말에는 다모디라 네트워킹파티를 통해 활동팀 간 각자의 소개와 활동 공유를 통해 서로의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함.
 - 2019년 다모디라는 상반기(다모디라 시즌6)와 하반기(다모디라 시즌7)로 나눠 진행됨.
 - 다모디소는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들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구 내 공간을 보유한 단체를 모집 및 선정하여 지역의 청년 공간으로서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 또한 선정된 공간에 대해서는 대구 청년 커뮤니티 포털 ‘줍프’에 등록 및 인터뷰 기획기사 작성 등을 통해 청년 공간으로서 유용한 활용을 위한 홍보와 확산을 진행함.

〈표 2-19〉 대구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과정(2019년 기준)

구분	‘다모디라’	‘다모디소’
지원 대상	- 대구지역 거주 청년 5인 이상의 모임 및 동아리	- 대구 내 공간을 보유한 단체
지원 과정	- 홍보 및 모집 - 심사 및 선정 - 1차 서류 적격 심사 - 2차 그룹 면접 심사 - 선정된 팀 오리엔테이션 - 팀별 개별 모임 지원 - 다모디라 네트워킹파티 ‘다모디라777: 놀리리 YO!’ 개최	- 홍보 및 모집 - 심사 및 선정 - 1차 서류 적격 심사 - 2차 현장 방문 검사 - 개별 공간 지원 - 현판식, 공간 온라인 DB구축
지원 실적	- 상반기: 16개 팀 선정 - 하반기: 24개 팀 선정	- 상반기: 3개 단체 공간 선정 - 하반기: 3개 단체 공간 선정

자료: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19). 2019 청년커뮤니티지원 ‘다모디라&다모디소’ . [4분기 누적 사업결과보고서]. 내부자료.

- 서울은 관계망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모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각 자치구별 ‘청년반장’과 함께 ‘어슬렁반상회’를 운영함.
- 어슬렁반상회는 안전하고 수평적인 일상적 관계 형성을 위한 소규모 모임으로 자기실현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기획형 모임과 지속적 관계 형성을 위한 후속 모임으로 운영됨.
 - 그리고 어슬렁반상회를 운영하기 위해 청년반장을 발굴하여 역량 강화 교육 및 모니터링 등을 진행함. 청년반장은 권역별 근거리 모임 지원을 위해 전년도 청년반장, 지역 활동가 및 청년수당 기참여자 중 역량 있는 지역사회 또래 그룹으로 구성됨.
 - 2019년 기준 자치구별 25개 어슬렁반상회 모임이 구성되었으며, 25명의 청년반장이 활동함.

〈표 2-20〉 서울 관계망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2019년 기준)

구분	‘어슬렁반상회’	‘청년반장’
지원 내용	- 기획형 모임 • 공통 과업 수행을 통한 자기실현, 자존감 회복을 위한 다회차 소모임 • 자치구별 25개 모임 3회기 운영 - 후속 모임 • 참여자 주체성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모임 • 자치구별 25개 모임 3회기 운영	- 청년반장 25인 선발: 전년도 청년반장, 지역 활동가 및 청년수당 기 참여자 중 청년감수성, 모임 기획 및 운영 역량이 있는 청년 - 오리엔테이션: 관계망 지원 사업 전반 안내 및 모임 계획 수립 워크숍 - 권역별 어슬렁반상회 정기회의: 청년반장, 권역매니저, 동네매니저 간 모니터링 회의 - 청년반장 역량 강화 교육 운영: 모임 기획·운영 역량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기본교육, 실무교육, 체험 및 실습)과 슈퍼비전(효과적인 모임 운영 방법 피드백)
지원 실적	- 기획형 모임: 2,789명 참여 - 후속 모임: 725명 참여 - 총 3,514명 지원	- 오리엔테이션: 1회 - 권역별 정기회의: 총 49회 - 청년반장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총 41회(역량 강화 25회, 슈퍼비전 16회)

자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9).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차보고서: 청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니다.

제4절 기타 지원 사업

□ 청년/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 광주청년센터의 경우 정책 연구 및 교류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청년 해외 정책 연수’, ‘청년정책 실험실’, ‘청년정책 교류 및 네트워크’가 있음

– ‘청년 해외 정책 연수’ 사업은 청년이 직접 해외 국가의 연수를 기획 및 추진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광주시의 자매결연 도시, 우호협력 도시, 교류 MOU 체결 도시 등의 정책 연수를 통해 두 도시 간의 상호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해외 혁신 사례를 경험하여 광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는 것임.

- 2019년에는 2팀이 선정되어 해외연수를 진행함.

– ‘청년정책 실험실’은 청년의 구체적 현실과 지향을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실행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광주 청년 또는 단체가 지원할 수 있음.

- 청년의 구체적 현실에 기반한 이슈 및 정책 연구를 공모·선정하는 청년정책 연구 프로젝트는 지난해 총 2팀이 선정되었고, 청년센터와 지역단체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청년정책 실행 프로젝트는 총 1팀이 선정되어 진행함.

– ‘청년정책 교류 및 네트워크’는 지역 내외 청년단체, 청년위원회, 민간청년 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청년정책 교류행사 지원 및 청년정책 전반(기획, 집행, 평가)에 대한 민간(청년당사자)주도 방식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하는 사업임.

-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청년정책 교류행사 지원, 선진국가 합동연수, 민간(청년당사자) 주도형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기(수시) 회의 개최 등이 있음.

○ 대구광역시청년센터는 대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네트워크지원’과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음.

– ‘청년네트워크지원’은 해외 및 국내 탐방을 통한 청년 역량을 강화하는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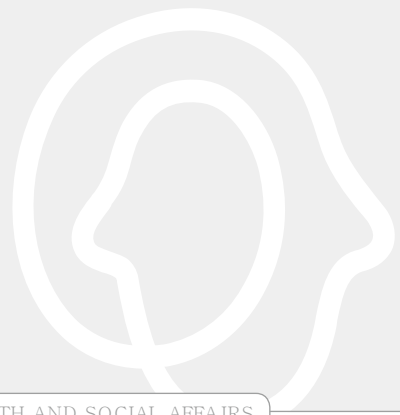
구청년 글로벌원정대 ‘발품’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단체 교류 및 네트워킹 지원, 의제연구사업, 국외네트워크를 통한 역량 강화를 지원함.

-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이 중심이 되어 청년이 살고 싶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을 고민하고, 청년의 삶에 와 닿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활동을 함.

□ 권역별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자치구 단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청년의 지리·정보·심리적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자치구 단위 청년지원 모델사업’을 진행함.

- 지역 단위에서 더 가까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서울 8개 권역별 협력기관과 함께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운영함.
- 자치구 청년지원모델 사업 운영에 적용 가능한 업무매뉴얼을 개발하고, 자치구 단위 청년지원모델을 운영할 협력 주체를 발굴하며, 사업을 운영 할 실무자인 ‘동네매니저’를 발굴·양성함.
- 8개 권역별 협력기관에 2~4인의 동네매니저 총 21인을 배치하고, 동네매니저의 청년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함.
- 권역별 동네매니저를 통해 청년의 근거리에서 정보 제공 및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함.



제 3 장

청년활동지원사업 양적 평가

제1절 상담 지원

제2절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제3절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제4절 향후 평가 방향

제 3 장 청년활동지원사업 양적 평가

제1절 상담 지원

- 상담 지원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는 각 센터의 사업별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센터가 활용한 평가 지표를 검토함.
- 각 센터는 상담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지표를 명목적 혹은 암묵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한 평가 결과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 대구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구분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광주와 서울은 정량 평가만을 실시함.
- 다만, 서울의 경우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정성적 성과에 대한 접근도 병행하고 있으나 사업별 결과보고서에는 담고 있지 않음.

1. 광주

□ 정량 평가

- 추진 실적
 - 온라인 66건, 오프라인 1,021건, 총 1,087건
- 성과 지표
 - 계획 대비 이행률: 198%(1,087건/550건)
 - 만족도(만족도 조사)
 - 만족도(5점 척도), 상담 전 후 심리상태(5점 척도), 주변 추천 의향(예/아니오), 가장 좋았던 점, 가장 아쉬웠던 점,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에게 한 마디, 상담 예약 및 일정 조율의 편리함, 상담 공간, 적절한 상담 소요 시간, 적절한 상담 횟수, 위로와 공감 느낄 수 있었는지, 고민 해소 여부,

40 지역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전달체계 성과평가와 내실화 방안을 위한 연구-광주, 대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세부 프로그램 만족도, 센터 프로그램 및 청년정책 안내(이상 5점 척도)

□ 정성 평가(없음)

□ 검토의견

- 상담 건수 전년 대비 244%(515건) 증가. 계획 사업비 조기 소진에 따라 상담 신청 중단(11.9)
- 온라인 상담 건수 전년 대비 감소 → 원인 파악, 홍보방안 분석 필요

□ 발전방향

- 심리 상담 현재 수준 유지하면서 취업, 창업, 금융, 주거, 법률 등 정책 기반 기초상담 부분 신설 필요
- 템플스테이, 상담콘서트 등 프로그램 확대 필요

2. 대구

□ 정량 평가

- 성과 지표
 - 준비위원회 인원 구성, 회의 실적(횟수), 워크숍 참여 인원, 상담사 구성, 2차 연계기관 발굴 실적, 상담토크콘서트 누적 참석자 수, 공감그레 ‘열린그레’ 누적 방문자 수
 - 만족도 조사: 환경(장소, 냉난방, 소음 등), 진행 절차, 상담 시간, 상담 내용 및 수준, 도움 정도, 유사 기회 참여 의향(이상 5점 척도), 개선 점 또는 건의 사항

□ 정성 평가

- 지역 청년 대상 종합 정보 제공 역할, 사회진입활동 지원 역할,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상담 운영 가능, 회원관리 시스템 통한 청년상담 노하우 축

적, 상담 매뉴얼 제작 통해 상담 내용 질적 관리, 자료집 제작 통해 상담분야별 정보 제공, 2차 연계기관들과 협력 통한 심화 상담, 상담콘서트 통한 공감 장 마련, 온라인 상담 통한 접근성 제고, 상담사 정기회의 통한 실제적 욕구 공유 및 대처

□ 발전방향

- 신청 많은 분야 상담 시간 확대 통한 필요에 맞춘 상담 지원
- 지속적 욕구 파악, 욕구에 부합하는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 사회진입활동지원금 지원 비대상 청년 위한 상담의 장 확충
- 전문적 2차 연계상담 지원 위한 전문기관 지속 발굴
- 상담사 역량 강화 위한 정기적 회의 진행과 교육 지원

3. 서울

□ 정량 평가

- 협력파트너 확대 실적
- 상담 지원 실적(상담 연인원)
- 청년마음친구 지원체계 강화
- 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한 고민상담 지원체계 강화

□ 정성 평가(진로정서 자가진단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참여자 사업 전후 변화 양상 연구 결과)(김창대, 라수현, 안현지, 2019)¹⁾

- 참여자들은 미참여들에 비해 진로 구직 건강성과 심리정서 건강성에서 더 크게 향상
- 활동지원 프로그램들은 진로구직 건강성과 심리정서 건강성이 낮은 참여자들

1)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활력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임.

이 더 많이 이용하였고, 참여자들은 미참여자 혹은 더 건강한 사람들보다 자가 진단 점수 변화 큼.

- 각 프로그램이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보여짐.
- 일대일 상담 프로그램은 회기 진행에 따라 상담 효과가 점차 증가.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던 회기는 10회기

□ 발전방향

- 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 필요
- 협력파트너 역량·관리 강화 필요
-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과 홍보를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
- 공공/민간 협력기관과의 연계 체계 마련과 협력 강화

제2절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는 상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각 센터의 사업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센터가 활용한 평가 지표를 검토함.

1. 광주

□ 정량 평가

- 성과 지표: 계획 대비 이행률 1,100%(55명/5명)

□ 정성 평가

- 타 공모사업 연계 위해 사업비 감액
- 중위소득 기준 선별 과정에서 이탈 사례 다수

□ 발전방향

- 선별 방법 개선. 1인 가구 청년에게 가족 소득 묻는 현재 자격요건 폐지, 개인 중심 기준 적용
- 청년센터의 NEET 지원 사업 지속
- 꾸준한 관계 형성 지원. 이를 위한 전담 부서 혹은 담당자 배정 필요. 주기적 심리정서 모니터링 및 업무 순환 구조 필요
- 체계적 지원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계 구축

2. 대구

□ 정량 평가

- (진로 탐색: 판길 I) 학과 개설 팀 수, 기획회의 횟수, 참여자 수, 수료자 및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신청자 수
- (일 경험 지원: YES! 매칭) 발굴 사업장 수, 매칭 청년 수, 모임 횟수, 직무교육 참여 인원, 사업장 안전교육 및 간담회 참석 개소, 면담 횟수(일 경험 청년, 청년사업장), 청년사업장 방문 횟수, 최종 근무 현황(일 경험 청년 인원, 청년사업장 개소), 일 경험 청년 계속 근로 여부(인원)

□ 정성 평가

- (진로 탐색: 판길 I) 기획회의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공통과정(입학식) 운영 통한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안내, 학과별 수업 통한 자기이해 및 진로 탐색 학과 운영, 결과 영상물 공유 통한 상호 활동 및 소감 교류, 지원금과의 연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구체화
- (일 경험 지원: YES! 매칭)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일 경험 기회 제공, 향후 진로 설정을 위한 경력 및 경험 축적, 청년사업장 발굴과 매칭 통한 자생력 강화, 적절한 매칭 통한 상생 토대 마련, 사회진입활동지원금 연계 통한 자력 자립 강

화, 잇기박람회 통한 적극적 일자리 탐색 과정 제공

□ 발전방향

○ (진로 탐색: 탄길 I)

- 진로 설계, 역량 강화,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일 경험 지원: YES! 매칭)

- 잇기박람회 참여 후 탈락 사업장 불만 문제 대응 위해 사업장 선정 후 박람회 참석
- 발굴 사업장 이외 취업되거나 매칭 후 포기 청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청년들에게 억압적이거나 강압적인 사업장에 대해 참여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사전면접 등)
- 오리엔테이션 시 안전교육, 성희롱 교육 등 업무 시작 전 필수적인 교육 실시 필요
- 청년 모집 경로 다각화

3. 서울

□ 정량 평가

○ (서울잡스내일취재단) 참여에 따른 '진로개발준비도' 향상(자기이해, 전공 직업 지식), 활동 수료율, 만족도(5점 척도)

- 취재단 활동 1,052명 참여
- 진로개발준비도 264% 향상
- 활동 수료율 87%
- 만족도 4.4/5.0점

○ (진로 탐색 프로그램 개발) 신규 프로그램 개발 건수, 만족도(5점 척도)

- 3개 분야 9개 프로그램 125회 운영, 3,078명 참여

－ 만족도

- 자기이해(자기 강점과 자원 발견) 4.2/5.0점
- 정보 제공(직업/직무 정보 파악) 4.2/5.0점
- 자기표현(자기소개서/포트폴리오) 4.4/5.0점

○ (사회혁신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참여자, 프로젝트 그룹, 협력 현장, 만족도(5점 척도)

－ 참여자 61명, 프로젝트 그룹 3개, 협력 현장 28개, 고용 승계 60%(14명 중 9명)

－ 만족도: 4.2/5.0점

○ (현장체험학교) 실 인원, 연인원

－ 6개 현장 실 인원 48명, 연인원 320명

□ 정성 평가(참여자 간담회)

○ 프로그램별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추천 의사와 이유, 자신의 변화와 그 이유 (자신감, 안정감, 나에 대한 이해, 직무 구체화, 취업 정보, 취업 방향, 관계, 전문적인 정보, 동기부여, 구직에 대한 생각, 일자리 정보 등), 예상치 못한 변화나 이득, 더 필요한 주제나 내용/지원정책, 보완점

□ 발전방향

- 프로그램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효율적 대처 방안 필요
- 프로그램 목표 조정에 따른 평가 방법 재검토 필요
- 내일취재단의 운영을 위한 적정한 과업과 규모 조정 필요
- 서울잡스 플랫폼 수정 요소 발견에 따른 보수 필요

제3절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1. 광주

□ 정량 평가

- 추진 실적, 성과 지표: 계획 대비 이행률 166%(100팀/60팀)

□ 정성 평가

- 지역 내 유사 사업 중복 문제. 차별화 대안 마련에 어려움
- 모임이 형성되지 않은 일반 청년 대상 커뮤니티 지원 위한 홍보채널 확장에 한계
- 짧은 활동 기간(1기수 당 3개월)

□ 발전방향

- 유사 사업 진행 타 기관과 상호 협력 통해 중복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 일반 청년 대상 지속 홍보. 홍보채널 안정화 및 다변화 필요
- 형성 지원과 공모 기간 달리하여 안정적 프로젝트 수행 위한 충분한 활동 기간 확보(최대 5개월)
- 커뮤니티 형성 지원에 도움 되는 프로그램 강화
- 커뮤니티 활동 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편

2. 대구

□ 정량 평가

- (정량적 효과) 신청 팀(단체) 수, 선정 팀(단체) 수, 참여자 수, 모임 횟수, 네트워킹 파티 기획단 참여 인원 및 횟수, 네트워킹 파티 개최 횟수 및 참여 인원

수, 온라인 DB 구축(등록 팀 수, 등록 공간 수)

□ 정성 평가

-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발굴 및 활성화 통한 자체 역량 강화 지원, 그룹면접 심사 및 오리엔테이션 통한 청년 커뮤니티 간 교류의 장 구축, 청년 커뮤니티 자체 모임 개최 및 운영 통한 청년 역량 및 활력 증진, 자유로운 모임과 활동 지원, 청년활동 거점 공간 발굴 및 지원 통한 다양한 청년 공간 활성화, 다양한 협력 공간 발굴 및 조성, 청년센터 및 청년 공간 활용 통한 지역 청년활동 영역의 양적·질적 확대

□ 발전 방향

- 제약사항 최소화 통한 다양한 공간 활용 및 모임에 필요한 항목 자유로운 이용
- 지속적 모임 발굴과 지원 필요
- 기존 모임들 간 네트워킹 형성 통한 지속적 성장 유도
- 청년 공간에 대한 운영지원금 확대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환경 개선

3. 서울

□ 정량 평가

- 모임 운영 실적(목표 대비 실적 비율), 청년반장 발굴(좌동), 어슬렁반상회 만족도(5점 척도, 목표 대비 실행 실적)

48 지역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전달체계 성과평가와 내실화 방안을 위한 연구-광주, 대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표 3-1> 서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정량 평가 결과

구분	목표		추진 실적		평가 방법
	건	명	건	명	
모임운영 실적	525	4,200	557 (105%)	3,514 (83%)	목표 대비 실행 실적 (계획 대비 80% 달성)
청년반장 발굴	25	25	25 (100%)	25 (100%)	목표 대비 실행 실적 (계획 대비 80% 달성)
어슬렁반상회 만족도	3.5/5.0	-	4.54	-	목표 대비 실행 실적

주: (추가) 모임 운영 실적: 2019 청년수당 매듭파티 진행 실적 포함(12월 5일/128명 참여)

자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0). 2019 관계망지원사업 추진결과보고, 내부자료.

□ 정성 평가

○ (어슬렁반상회) 진로이행기 청년의 지속가능한 관계 형성 경험 제공

- 자치구 25개 모임으로 확대 운영한 결과 안전하고 수평적 소통 가능한 공공의 관계망 형성 기회 향상
- 다회차 운영 및 후속 모임 참여 구조를 설계하여 관계 지속성 증진
- 권역 협업체계에 기반한 공간, 사람 등의 지역 정보·자원 안정적 연계 및 관계망 접근성 강화

○ (청년반장) 청년반장 역량 강화를 통한 모임별 편차 최소화

- 청년반장 대상 사업 이해도 향상 및 필요역량 실무 교육 확대를 통한 모임 운영력 강화
- 또래 청년 모임지기(청년반장)를 중심으로 미취업 청년의 사회적 연결성 강화, 정서적 지원 확대
- 청년반장별 다양한 주제의 모임 기획을 통해 참여자의 자기이해, 일상의 재구성, 활력 증가 등의 긍정적 변화 확인

□ 발전 방향

○ 참여자 주도형 후속 모임 설계 보완을 통한 관계 지속성·자발성 향상

○ 청년반장 주요 역량 도출 및 이에 기반한 교육 커리큘럼 재정비

○ 어슬렁반상회 운영 사례 정리 및 청년 커뮤니티 사업 가이드 마련

제4절 향후 평가 방향

- 본 절은 각 센터별로 수행한 자체 평가 방식의 체계화 혹은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유사 평가 사례를 검토하고, 적절한 평가체계와 방법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구성하였음.

1. 평가 사례 검토

-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의 일부를 위탁 방식으로 민간에서 수행하는 형태이며, 단일 사업이 아닌 상담 사업,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사업, 커뮤니티 지원 사업 등 사업군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음.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경영실적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함.
 -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의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회보장위원회에 사업의 신설·변경에 있어서 성과 지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획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 혹은 정책 평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관련한 평가를 검토하였음.
 - 먼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정부업무평가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 평가 영역을 살펴보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제도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²⁾

○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 중앙행정기관 평가

- (특정 평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주요 정책 및 기관 역량 등을 평가
- (자체 평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주요 정책·재정사업·R&D사업·행정관리 역량(조직·인사 등)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

－ 공공기관 평가: 평가실시기관이(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연구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

－ 지방자치단체 평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로 구분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

- 국가위임사무는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업무의 특성·평가 시기 등으로 인하여 위의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평가

－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는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의 고유 사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및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20. 10. 30. 인출

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 내용

- 평가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주요 업무, 중점시책 등 업무 전반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
- 평가 방법: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주요 업무 및 시책 등 업무 전반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 아래의 내용을 평가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전략 목표 및 성과 목표에 관한 사항, 당해 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자체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자체 평가 조직 및 자체 평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자체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자체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체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주요 업무, 중점시책 등 업무 전반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행정안전부, 2019)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평가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해당기관 총 수입액의 50% 이상인 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5% 이상인 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5% 미만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관
- 평가 시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완료

- 평가 내용: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발전 등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원칙,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 포함

<표 3-2> 경영실적 평가의 영역별 주요 평가 내용

평가 영역	주요 평가 내용
지속가능 경영	○기관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 파악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 노력과 성과 ○비전·미션 달성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 핵심사업 성과 달성을 위한 자원배분 및 추진과정의 적정성 ○기관의 설립 목적, 조직성과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기반 구축 및 운영 여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령, 인사·조직지침,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등의 준수 여부
경영성과	○주요 사업성과, 고유 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정도, 고객만족도 등 경영활동 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
사회적 가치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소통 및 참여,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등 사회적 책임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

자료: 행정안전부, (2019). 2020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안).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제도 평가

-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사회보장위원회, 2020. 10. 31.).
- 사회보장 평가제도는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한 실적 평가와 기본 평가 그리고 핵심 평가로 구분되는데, 현재 실적 평가와 기본 평가, 핵심 평가가 합쳐진 제도 평가가 수행되고 있음.
 - 기본 평가는 사회보장사업을 생애주기와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한 사업군 평가이며, 사회보장기본계획의 5년 주기에 맞추어 정례적으로 평가하며 사업 단계별 공통 지표를 중심으로 수혜자 욕구 충족 및 효과를 평가
 - 핵심 평가는 사회적 이슈나 관심도가 높은 과제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하는 평가 제도(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16; 오윤섭, 강지원, 이세미, 2016에서 재인용).
- 사회보장제도 평가는 정책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결과(outcome) 중심의 평가’로 수행되며,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평가'로 접근하고 있음.

□ 사업에 대한 평가는 평가의 주체(내부 또는 자체 평가, 외부 평가), 평가의 대상(정책 결과, 집행 과정, 결정 과정), 평가의 시기(중간 또는 과정 평가, 사후평가), 평가의 방법(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음.

○ 평가의 대상에 대한 분류는 평가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즉 평가의 내용이 정책 결과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과정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평가를 분류하는 것으로 정책결과는 효과성 평가와 같은 결과 평가로 접근

－ 본 절은 각 센터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정량적 변수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는데, 추진 실적 등의 산출 지표와 이행률 및 만족도 등 결과 지표에 대한 분석이 포함됨.

<표 3-3> 평가 지표의 유형

지표 유형	설명
투입 지표	－ 성과 달성에 동원된 자원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프로그램 예산, 인력
과정 지표	－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프로그램 출석률/진도율
산출 지표	－ 자원을 투입하여 나타난 1차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율
결과 지표	－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수료자 취업률 및 소득 증가율, 프로그램 만족도

자료: 국방부. (2020).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p. 5.

○ 특히, 본 연구는 광주, 대구, 서울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협의의 측면에서는 각 지역 청년센터의 청년지원활동사업에 대한 사업 평가로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광의의 측면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에 대한 정책 평가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음.

－ 사업 평가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사업의 효과 또는 성과를 파악하고, 이러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임(이광희, 윤수재, 2012, p. 41; 오윤섭, 강지원, 이세미, 2016, pp.

20-21에서 재인용).

- 정책 평가는 정책 형성 과정, 집행, 효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목표의 적합성과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절차적 차원의 민주성, 정책 집행과 관련한 정책 목표 달성도, 효율성, 만족도 등을 평가(구광모, 2003, p. 154; 오운섭, 강지원, 이세미, 2016, pp. 20-21에서 재인용).
-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평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은 단순한 단일 사업이 아닌 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형성되며, 그 목적과 내용으로 볼 때 정책 평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중점시책에 대한 자체 평가에 해당하거나, 해당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체 평가와 경영실적 평가의 주요 지표 중 프로그램의 정책 효과성 평가 및 이를 통한 정책함의 제고에 유용한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경영실적 평가의 경우 평가 영역에 ‘사회적 가치’ 영역이 있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소통 및 참여,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등 사회적 책임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영역임(행전안전부, 2019).
-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영역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효과를 측정할 때 필요한 항목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지표 설정 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지표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나 동 법 시행령에는 지표 체계 및 구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음. 다만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성과 지표를 객관적, 정량적으로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시행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가능한 한 계량화된 지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 다른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체 평가 절차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유사하게 계량 지표가 권장된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평가 결과를 자체 평가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황혜신, 2016, p. 76).
- 정부정책 평가 중 본 연구주제를 포괄하는 사회보장정책에 대해 계량화된 평가 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으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제도 평가를 꼽을 수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제도 평가는 과거에는 기본 평가와 핵심 평가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중 기본 평가의 경우 정책 효과성에 대한 사업군에 대한 평가로서 본 연구주제인 청년활동지원사업들에 대한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음.
- 강신욱, 강혜규, 노대명, 이현주, 이병재(2015)에서 제시한 평가체계는 다양한 사회보장 사업의 평가를 위한 기본 틀이며, 구체적인 사업군의 평가에서는 사업군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수정 보완해서 적용해야 함.
- 아래 표는 사업단계별 평가 지표와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표 3-4> 강신욱 외(2015)에서 제시한 사업단계별 평가 지표

단계	평가 지표	주요 내용
설계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 사업 대상자에 포함된 정도
	대상자의 표적화 정도	사업 대상 집단 중 보호가 필요한 집단의 비중
	사업 간 상충/보완 관계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의 중복 혹은 배제 정도
투입 · 집행	육구대비 자원 투입의 충분성	지원 대상의 규모 대비 예산과 인력 투입이 충분한가?
	경상비/사업비 비중 적절성	총예산 대비 실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절한가?
	급여 유형 및 지원 방식 적절성	급여 유형 및 지원 단위의 사업별 배치가 적절한가?
	지역·시기적 자원 투입 적절성	자원 투입(사업의 집행, 급여의 제공)이 지역별, 시기별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산출	수급률	수요 대비 수급률은 적절한가?
	급여 충분성	수요 대비 지원이 충분한가?
성과	성과 달성 여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성과 부진 평가	성과가 부진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기타 영향	사회경제적 영향	간접적 또는 장기적인 파급효과는?
	부작용 여부	사업이 유발하는 부작용은?

자료: 김태일, 김나연, 김보영, 이주하, 최영준, 최혜진. (2018). 사회보장제도 성인·노인 돌봄 분야 기본평가. 보건복지부·고려대학교. p.78.

□ 청년기본법('20. 2. 4. 제정)에 따라 동법 제8조의1항에 의거 5년마다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동법 시행령 제3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을 발표하게 됨.

○ 아래 표는 배정희, 김기현(2020)에서 제안하는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지표 안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2020년 청년정책 평가 지표의 내용 등이 반영(배정희, 김기현, 2020, p. 119).

<표 3-5> 배정희, 김기현(2020)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시행계획 관련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 내용 (예)	점수
계획 수립의 적절성 (40)	계획 수립 시 청년의견 수렴도	정량 정성 -정책사업 계획 수립 시 청년공청회, 청년 참여 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10
	사업 목적의 타당성	정성 -사업 목적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업 목적이 주요 청년 문제 및 청년 욕구에 기반하여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5
	사업 내용의 적절성	정성 -사업 내용이 사업 목적과 연계되는지 여부 -사업 대상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정책 대상자이며, 선정 방식이 공정한지 여부 -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 및 수혜자 1인당 소요예산(대상자 수/전체 예산)을 고려했을 때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추진체계가 사업 내용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20
	성과 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정성 -성과 지표가 사업 목적 및 사업 내용과 관련되어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성과 목표치가 사업의 예산 규모나 유사 사업의 목표치, 전년도 실적(2차 년도부터)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 여부	5
	전년도 평가 결과 반영의 충실성(2차년도부터)	정성 -전년도 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
	사업 집행의 충실성	정량 -추진계획상 일정 준수 여부 -추진계획상 예산 집행 여부	10
정책 집행의 충실성 (30)	정책 모니터링 및 소통 충실성	정량 정성 -청년 및 정책 이해관계자가 주축이 되는 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모니터링 결과가 정책 환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는지 여부 -청년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며 청년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였는지 여부	10
	유관기관 협업 정도	정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타부처, 타부서,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한 정도	10
	성과 목표 달성도	정량 -당초 설정한 성과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 비율	10
정책 성과의 달성도 (30)	정책 효과성	정성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 효과 발생 여부	10
	정책 체감도	정량 -전체 청년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느끼는 도움 정도 및 중요도 등 긍정적으로 체감하는 정도	10

자료: 배정희, 김기현. (2020).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120-121.

2. 평가 체계 및 지표 설정 방향

□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앞서 언급한 평가들과의 중복 평가가 발생할 수 있고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산출 또는 성과에 대한 결과 평가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해당 평가는 정량화된 계량 지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량화된 결과 평가를 중

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의 경우 그 성과가 명시적 또는 가시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사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업단계에서 설계 및 투입·집행 측면에 대한 평가 역시 중요.
-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자체 평가라 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정부 업무 평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는 다른 평가 결과로 활용할 수 있기에 해당 평가를 통해 자체 평가를 대신할 수도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업단계별 평가 지표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지표(안) 그리고 사회보장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을 참조하고 청년지원활동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평가 지표로 검토해 볼 수 있음.

□ 검토 및 적용 지표

- 적용 지표는 기 수행된 연구의 평가 지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추가 지표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한 지표를 의미함.
- 설계 측면
 - 적용 지표
 -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coverage): 포괄성은 보호(지원)가 필요한 대상자를 얼마나 사업군의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임.
 - 대상 집단에 대한 표적화 정도는 사업의 대상으로 설정된 집단에서 사업군의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지표 적용 측면의 어려움 발생,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음.
 -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원)가 필요한 대상자의 규모를 측정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추정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
 - 또한 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간 지원 대상의 차이가 발생함. 예를 들어 청년센터 상담 사업의 경우 광주의 경우 지역 청년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하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자원 투입의 충분성: 사업이 목적인 문제와 욕구에 대한 대응과 대상 포괄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자원/인력/조직이 확보되고 있는가?
- 급여 유형 및 지원 방식의 적절성: 급여 유형(현금, 현물, 서비스 등) 및 지원 단위(개인, 가구, 기관 등)의 사업별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욕구의 지역적, 시기적 분포 대비 자원투입의 분포의 적절성: 자원 투입(사업의 집행, 급여의 제공)이 지역적으로나 시간상으로 욕구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산출(김태일 외, 2018)

- 수급률: 해당 사업에서 규정한 욕구 대비 수급률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 급여 충분성: 해당 사업에서 규정한 욕구 대비 급여량은 충분한지 평가

○ 성과(김태일 외, 2018)

- 사업(군)별 성과의 달성 여부: 사업(군)이 달성한 성과의 정도를 측정
- 사회경제적 영향: 사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업 목적 이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
- 추가 지표
 - 만족도: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에 대한 정량화 지표로 활용
 - 대상자 모니터링: 사후적 측면의 성과관리로서 서비스 종료 후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추가적 서비스 필요시 서비스 연계 여부 등을 파악

□ 정성적 지표의 고려

- 상기 사업 단계별 평가 지표(안)은 전술한 바와 같이 양적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지표에 따라서는 정성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예컨대, 성과 단계의 대상자 모니터링의 경우 그 여부만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보다 면밀한 평가를 위해서는 정성적인 평가 요소가 가미될 수도 있음. ‘대상

자 모니터링의 적정성'의 지표를 통해 정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임.

- 이 경우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산시스템이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는지, 혹은 전산시스템을 통한 사후관리가 정책 프로그램에 어떻게 환류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함.

○ 또 다른 예로, 타 지역의 유사 사업과 차별되는 사업이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세부 평가 항목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지자체 청년 여건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운영의 노력 정도(청년 의견 반영 노력, 구체적인 홍보활동 노력, 자치단체 혹은 센터의 역량 투입 정도 등), 활용·전파 가능성(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 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타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로 확산 가능성이 있는지 등) 등을 제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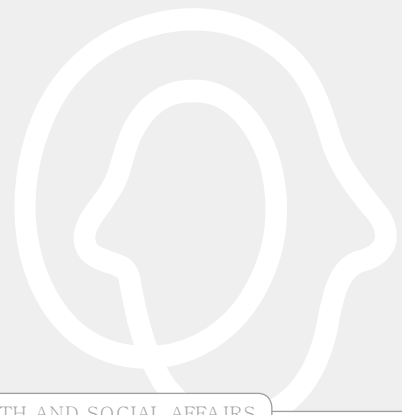
□ 정성적 평가는 평가의 목표와 방향성, 그리고 세부 평가 항목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에 대해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수행됨.

○ 평가 방식은 통상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수행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수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설계 측면에서도 아래의 사항을 정성적 차원의 지표로 파악해 볼 수 있음.

- 보완적 사업과의 연계성: 상담 사업의 경우 자살방지 및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연계는 가능한가?
- 접근성: 서비스 제공 시설의 위치적 접근성,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및 접수, 서비스 제공 여부

□ 또한 사업단계에서 결과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영향 평가 부문을 고려 할 수 있는데, 계량적인 측면의 사업의 영향 평가가 아닌 해당 사업의 역할이 가치재적 기능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통해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제 4 장

청년활동지원사업 질적 평가

제1절 상담 프로그램

제2절 진로 탐색 프로그램

제3절 커뮤니티 지원 사업

제 4 장 청년활동지원사업 질적 평가

- 청년활동지원사업 질적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음.
 - 상담 프로그램, 진로 탐색 프로그램,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3가지 사업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상기 3가지 사업군의 지역별 참여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는데,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총 6개 집단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음(총 6회, 상담 11명,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11명, 커뮤니티 지원 11명, 총 33명).
 - － 첫째, 세 지역 참여자들이 동시에 참여
 - － 둘째, 인터뷰 참여자들의 성별, 연령대별 구성 고려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과 청년층 활동 특성상 저녁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에 따라 온라인 인터뷰를 실시함.
 - － 줌(ZOOM)을 활용하여 인터뷰 참여자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들이 동시에 참여하여 인터뷰 진행.
- 인터뷰 결과는 녹취록으로 정리하고 질적분석방법 프로그램(MAXQDA)을 이용하여 구조분석을 실시함.
 - 참여 동기, 프로그램 효과, 한마디로 표현, 수당의 역할(기능), 신뢰도 변화, 개선사항 등으로 크게 구분.

제1절 상담 프로그램

□ 지역별 상담 프로그램 특징

- 서울과 광주의 오프라인 상담 프로그램은 전문 상담가에 의한 참여자의 심리와 정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대구의 경우 정보 제공의 기능이 좀 더 강한 성격임.
 - 서울지역의 경우 상담 프로그램은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지만, 대구는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임. 광주는 2019년 당시 수당을 제공하지 않아 상담 프로그램 참여가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님.
 - 지역별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가 수당 수급의 조건인지 자발적 참여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자발적 선택을 통한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충실성이 높을 수 있음.
 - 따라서 먼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상담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지원 방식이 상이함에도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의 상담 프로그램 참여 동기는 지역별 프로그램의 차이에서 오는 상이함 보다는 프로그램의 특성보다는 참여자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여기서는 상담에 참여한 동기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나 효과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함.
- 인터뷰 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1〉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정보

		상담 동기	나이	성별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대구 3, 서울 4, 광주 3)	1_대구	학교폭력 경험/불안/우울	23	남
	2_서울	취업 스트레스/가족관계	25	여
	3_서울	진로 고민/가족관계	26	여
	4_광주	대인관계/학교폭력 경험	26	남
	5_광주	대인관계	25	남
	6_서울	가족관계/취업 문제	33	남
	7_서울	가족관계/취업 준비	31	여
	8_대구	재취업 문제	28	여
	9_대구	취업 스트레스	27	남
	10_광주	우울감/대인관계	27	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1.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가.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

□ 상담 프로그램 참여 동기

○ 다양한 동기가 있지만 크게 대인관계, 취업이나 진로 문제, 정신적 건강 관련 문제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청년 개인이 겪는 어려움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함. <표 4-2>는 참여자들이 구술한 내용 중 상담 동기를 분류하여 개념화하고 이를 다시 범주로 분류한 것임.

<표 4-2>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 동기

구분	범주	개념
상담 동기	취업/진로 문제	취업 스트레스
		재취업 문제
		진로 고민
	대인관계/가족관계	대인관계
		가족관계
		학교폭력
	정신적 건강	불안
		우울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1) 취업/진로 문제

□ 취업이나 진로 문제

- 취업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서 신청하거나 지속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서 오는 좌절감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전공 선택에 대한 실패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들, 현재 직장으로 복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은 참여자들이 상담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 중 취업과 진로에 대해 인터뷰 한 내용을 기술한 것임.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저는 청년수당 그거 받으려고 신청하고 청년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서, 상담이 제 마음에 좀, 스트레스 해소 도는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받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동기는 특별히 없었어요. 취업 스트레스랑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부모님과 좀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2_서울)

취업 스트레스

"그런데 이게 거창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제가 면접을 동시에 3, 4군데를 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3, 4군데 면접을 다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뭘 해도 안 된다.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침, 그런데 제가 일부러 찾아서 상담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마침 동네에서 무료로 고민 상담이라 던지, 진로 상담 이런 걸 해준다 라는 현수막을 보고 제가 신청을 해서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게 됐는데" (9_대구)

재취업 문제

"그냥 그 당시에 다니던 회사를 다시 복귀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복직하기 싫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 하니까 복귀를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복귀를 하는 게 저한테 좋다는 것도 알지만,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말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크게 대단한 얘기를 해주신 건 아닌데, 그냥 제 얘기를 들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8_대구)

진로 고민, 가족관계

"그냥 고등학교 때 겪었던 전공에 대한 실패 그런 것들이랑, 부모님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랑 공황장애랑 그런 거랑 다 겪어서, 한 번 상담을 받아 봐야겠다." (3_서울)

2) 대인관계/가족관계

□ 청년들에 대한 문제를 접근할 때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접근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하면 대인관계나 가족관계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 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사례들도 발견됨.

○ 가족관계는 부모님의 이혼이나 갈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가족관계에서 오는 문제 뿐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로 까지 확대되기도 함. 가족관계 문제나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나아가 우울이나 자존감 하락과 같은 정신적인 건강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함.

○ 따라서 참여자들이 상담 동기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한 가지 단편적인 문제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닌, 여러 문제들이 동시에 얹혀 있는 경우도 발견됨. 대인관계문제는 과거의 어린 시절 학교폭력 경험에서 기인하여 성장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정신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음.

□ 다음은 참여자들이 이야기 하는 상담 프로그램 참여 동기 중 대인관계나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을 인용한 것임.

대인관계

"참여한 동기는,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가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도 있었고, 조언 같은 것도 듣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5_광주)

"그런데 제가 좀 그게 심했어요. 감정의 기복이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원래 외향형이긴 한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면을 하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을 잘 하다가 작년에 갑자기 또 우울해졌을 때, 이 프로그램을 카톡 채널로 알게 됐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약물 치료랑 병행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우울증이 심할 때 작년에 심할 때는 밖에 나가는 것도 되게 싫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고" (10_광주)

가족관계

"일단,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툰 편이고, 오히려 감정을 좀 감추는 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보다도 제 성격적인 문제나, 아니면 가정에서 그렇게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가족 간의 소통이 더 확 줄어들게 됐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제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남동생이 남들을 대하는 방식, 가족을 포함해서 대하는 방식이 조금 거칠어졌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졸

업하고 나서 정규직으로 취업이 안되는 사이에 내면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동생이 저를 무시하고 공격적인 성향도 많이 보이고, 말하던 행동이던, 그 상황에서 동생이 오히려 먼저 정규직 취업이 되고, 그런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비정규직으로 일을 오래 하면서 생기는 문제일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 형태를 떠나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주변 동료 분들과의 관계, 대인관계를 제가 잘 못 하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게 서툰 것도 있고, 내 자신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상담을 통해서 얘기하고 정리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6_서울)

"저도 딱히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구요. 저는 아까도 살짝 얘기했는데 원래 다른 직종의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 하는 상황이었을까 그런 게 개인적으로 건디기가 힘들었어요. 잠도 거의 못 자고 일을 했었고, 그리고 돈도 너무 페이가 적었고,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다른 일을 알아 봐야겠다 라고 해서 사실은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거의 4년 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상담을 진행할 때는 그런 시험 준비를 하면서 오랫동안 그런 얘기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가족하고의 사이에서 대화가 잘 안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7_서울)

3) 정신적 건강

□ 정신적인 건강과 관련한 상담 프로그램 참여 동기는 학교폭력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 문제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부터 겪었던 우울감, 청소년기에 겪은 따돌림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지속되어 참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남.

○ 앞서 기술했듯이,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다양하고 복잡적임.

□ 다음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동기 중 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동기를 구술한 것임.

학교폭력 경험

"학교폭력을 좀 많이 당해서 마음에 상처들이 많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치유하지? 했는데 심리 상담이 생각이 나서 그 분께 먼저 달려가서 도움을 청했고, 그런 다음에, 한 번 여기에서 더 받아 보면 어떠냐, 그 분이 여기를 추천해주셨어요." (4_광주)

우울감

"저는 지금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검사를 했을 때 너무 심했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약 상태가 깨끗하다 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그게 심했어요. 감정의 기복이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원래 외향형이긴 한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면을 하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을 잘 하다가 작년에 갑자기 또 우울해졌을 때, 이 프로

그램을 카톡 채널로 알게 됐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약물 치료랑 병행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울증이 심할 때 작년에 심할 때는 밖에 나가는 것도 되게 싫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고" (10_광주)

불안

"네, 저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년정책이라는 배너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지자체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 그런 건데, 일단 들어가 보니까 청년센터도 있고, 청년상담소 이런 게 많아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심리가 많이 불안정했는데 센터에서 상담이나 코로나 극복 이런 거 주로 받아 보니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용할 것 같고요. 아무튼 좋았습니다. 저도, 좀 중학교 때 따돌림 피해를 입어서, 계속 지금 병원도 다니고 있고,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에서 하는 거나 이렇게, 상담을 좀 받아 보면 어떨까, 도움이 그래도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잘 해주셔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심리 상담인데, 중학교 때 그런 따돌림이 좀 트라우마가 많이 생기니까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1_대구)

나.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 그룹인터뷰(FGI)에 참여한 청년은 대부분 상담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함. 다음 <표 4-3>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이 경험한 상담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에 대해 개념화 하여 범주로 나타낸 것임.

- 크게 인간관계 기술 개선, 삶에 대한 의지, 건강 개선, 문제 해결, 사회와의 연결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여기서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으로 구분한 내용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음. 지역마다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 방식과 내용이 다름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는 겉으로 표현되는 내용은 관계에서 오는 문제나 취업이나 진로 문제가 주요한 동기였지만,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며,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의 효과 또한 단선적이지 않음.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것으로 삶에 대한 의지나 자존감이 회복되고 다시 미래에 대해 계획하고 꿈을 꾸게 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효과성은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효과성이기 때문에 진단이나 경험적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음.

<표 4-3> 상담 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

구분	범주	개념
상담의 긍정적 효과	인간관계 기술 개선	타인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
		문제를 발견
		대인관계 개선
		대인관계 기술 향상
		인간관계 다시 시작
		대화하는 법 배우
		가족관계 개선
		밝아짐
		타인에게 친절
	삶에 대한 의지	긍정적 생각
		새로운 기회
		일상 회복
		미래에 대한 꿈
		삶의 의지
	건강 개선	신체건강
		정신건강 개선
		치유
		스트레스 해소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사회와 연결	사회적 케어
		사회적 위안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 첫 번째 범주인 인간관계 기술 개선은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

○ 청년들은 상담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가족관계에서 전과 비교하여 개선됐다고 했으며, 친구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전에 비해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밝아지는 등 대인관계가 개선되기도 했다고 인식함.

○ 앞서 상담에 참여한 동기에서 밝힌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임.

□ 다음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이야기 한 것 중 첫 번째 범주로 발견된 ‘인간관계 기술 개선’과 관련한 개념들에 대해 청년들이 이야기 하는 내용을 전사하여 제시한 것임.

1) 인간관계 기술 개선

타인에 대한 이해

"우선은 제가 그 동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 해 왔던 걸 고치고, 타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 (9_대구)

"저는 처음에 상담 선생님이 진로 문제로 얘기를 끌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일이, 제 성격과 어떤 점에서 안 맞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걸 주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저는 적성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사실 그런 류의 얘기는 제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 저는 이제, 주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소소한 거부터, 최근 있었던 일 중에 제가 친구랑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말에서 되게 상처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사실 이런 걸 많이 기대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느꼈던 건, 제가 오히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 자신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부족했구나 그런 것도 좀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꼭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 거, 그들과 나는 다르다는 거, 이런 걸 알아차리게끔 해주셨던 것 같아요." (7_서울)

자신에 대한 이해

"네, 원래 대인관계 때문에 처음에 상담을 받았었는데, 제가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성격이라는 걸 많이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됐고. 지금 현재는 남한테 의지하는 성격을 좀 줄여 나가서, 이제는 누군가를 만날 때, 아 내가 지금 또 의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있어요. 가장 좋았던 점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 했던 것처럼 또 내가 의지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일단 한 번 통찰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5_광주)

"저는 사실 좀 직장 내에서의 상사라던지 이런 게 좀 꼬인 게 있었어요. 제가 상사와 제 밑 사수, 얘기를 하면, 뭔가 이 사람이 내 말을 꼬아 듣는 것 같고,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좀 가식적으로 보인다 뒤로 호박씨 깬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미리 꺼려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런 류의 얘기를 상담 선생님과 했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지금 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제가 지레 짐작해서 조심스러워하고 이런 건 그래도 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7_서울)

"저는 저도 몰랐던 제 자신을 알게 된 점이 제일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동안 살아오면서,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살아 왔었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뭐 상의를 할 때도, 아니면 스스로 결정을 할 때도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주관적인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랑 어울리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됐던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9_대구)

자신의 문제를 발견

"제 마음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끼쳤던 건 가족이었거든요. 가족 때문에 상담을 신청한 건 아니었는데.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타인에게 공격적인 동생이랑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상담을 끝마칠 쯤에 동생이랑 따로 사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게 사실 지금도 제가 경제적인

로 넉넉한 사정이 아니어서 그 결정 이후에 더 힘들어진 건 있지만, 상담사 선생님하고도 얘기 했던 게 뭐냐하면 내가 마음에 불편한 감정을 덜고, 그 비용으로 내가 독립해서 사는 걸 선택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 같은 게 있었고, 그걸 빼고 나서 생각한다면 자존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연결 된 것도 많았지만, 결국에 근본적으로는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있다는 게 당시 제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 버리되, 근본적으로는 자존감을 채워 가는 걸 스스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걸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됐고, 저는 제가 자존감이 떨어진다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된 게 도움이 됐고" (6_서울)

대인관계 개선

"제 생각의 방향을 확실히 틀 수 있었다는 거요. 이게 별 거 아니라고 말 하기에는, 사람이 살아 온 가정환경이나, 받은 집 안 교육이나 가치관 같은 게 사실 바뀌기 쉽지 않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실천까지 가는 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2_서울)

대인관계 기술 향상

"네, 친구도 많이 만나게 되고, 남자 친구가 생겼는데, 다뤘을 때,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걸 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선생님한테 그걸 많이 물어 봤었어요. 제 남자 친구가 개인적으로, 힘들어할 때, 제가 어떻게 위로 해 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물어 볼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위로를 해 줬는데 더 어떻게 해 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잘 들어 주라고" (10_광주)

"다른 것도 많이 있었는데, 대인관계에서 많이 불안정했었는데 그 본과의 상담을 통해 많이 치유 되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만날지, 그런 것도 많이 팁도 받고요. 예전에는 말투도 딱딱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할지 막막했는데,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많이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졌죠." (4_광주)

인간관계 다시 시작

"별건 아니고요.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2월부터 6월까지의 집에만 계속 있었거든요. 4달 동안, 그래서 돌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미치겠다 생각 했는데, 저도 슬슬 밖에 나가봐야지 했는데. 친구는 연락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갑자기 연락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을 말을 하니까 선생님이 진짜 친구면 다시 연락을 해보면 이해해 줄 것 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별 건 아니었는데 용기를 딱 받아서 바로 친구를 만나서 놀고 용기가 됐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기분 좋았어요." (8_대구)

대화하는 법 배움/치유

"개인 상담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치유 된 것도 도움이 됐고, 대하는 법도 많이 익혔습니다." (4_광주)

대인관계 개선

"처음에는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이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은데 일정은 잡혀 있고. 그래서 5분 10분 늦으면서 가면, 여기에 막상 도착하면 조금씩 조금씩 제 얘기를 하게 되고

집에 가는 길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가 쉬는 방법은 밖에서 자연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스타일인데, 사람들 만나고, 선생님하고 계속 그렇게 만나면서 친구들을 조금씩 조금씩 찾게 되고, 옛날에는 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회 얘기도 하고, 제가 책을 잘 안 읽는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에 대한, 선생님이 먼저 물어 봐 주세요. 어떤 책을 읽었느냐 하면서, 요새는 약간 환경, 비건 식당과 환경에 잘 몰라서 관심을 가지고자 그쪽 책을 읽고, 노동 에세이를 읽고 있는데, 그 얘기도 하면서 저도 그런 책을 보면서 반성하게 되고" (10_광주)

밝아짐

"말도 되게 많이 느꼈었고, 우울했을 때는, 톤도 많이 다운 됐는데 그렇다고 선생님이 막 이렇게 이끌어주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제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말을 하는데, 편했나 봐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랑 있으면 말이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좀 눈빛이 따듯하세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말도 많아지고, 그 말을 하면서 그 사이 사이에 제가 이 선생님을 웃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웃고 그러면서 밝아진 것 같아요" (10_광주)

타인에게 친절

"마음이 진짜 가벼워져요. 별 얘기를 한 게 아닌데, 50분 얘기했는데 마음이 되게 가벼워져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 질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그게 정말 기분 좋아지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8_대구)

2) 삶에 대한 의지

□ 두 번째 범주로 발견된 ‘삶에 대한 의지’는 무엇인가 시도를 해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삶에 대한 의지를 상담의 긍정적인 효과로 이야기 하고 있음.

○ 전에 비해 힘들어도 살아봐야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일상에서 무력감을 느꼈었지만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후 하루 하루 살아가는데 생활의 패턴이 생기면서 일상의 생활이 회복되고, 미래에 대해 꿈을 꾸게 되며, 자신의 꿈이 좌절되었지만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후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다고 인식했음.

○ 상담 프로그램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정신적인 건강과 관련된 상담 동기를 가진 참여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긍정적 생각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의 상처를 너무 생각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됐고, 긍정적이고, 힘들어도 살아 봐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바뀌었죠." (4_광주)

새로운 기회

"제가 원래 발레를 전공했었는데, 발레 부상도 있고, 이게 더 이상 제 능력을 따라 잡지 못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좌절감을 겪게 돼서, 그거 때문에 공황장애가 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그거에 대한 기회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3_서울)

일상 회복

"저도, 상담 끝나고 나서, 사실 제가 무기력증이 정말 심했거든요. 하루에 엄청 늦게 일어나서 뭐 하는 거 없이, 멍하게 있는 날도 많았고, 또 불면증도 되게 심했고, 먹으면 체하고 그런 날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하고 여유를 찾으니깐 불면증도 많이 나아지고, 의욕 같은 게 생겨서 뭐든 하려고 해요. 제가 상담을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회계 전공인데 회계 전공 말고 다른 직업을 찾기로 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새로 배우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일정한 생활 패턴을 좀 다시 되찾았습니다." (2_서울)

미래에 대한 꿈

"안 좋을 때는 식욕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심리 상담 받은 후로 많이 좋아졌죠. 식욕도 많이 돌아오고, 이제는 미래에 대한 꿈도 꾸니까, 확실히 좋아졌죠." (4_광주)

삶의 의지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의 상처를 너무 생각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됐고, 긍정적이고, 힘들어도 살아 봐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바뀌었죠." (4_광주)

"저도, 상담 끝나고 나서, 사실 제가 무기력증이 정말 심했거든요. 하루에 엄청 늦게 일어나서 뭐 하는 거 없이, 멍하게 있는 날도 많았고, 또 불면증도 되게 심했고, 먹으면 체하고 그런 날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하고 여유를 찾으니깐 불면증도 많이 나아지고, 의욕 같은 게 생겨서 뭐든 하려고 해요. 제가 상담을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회계 전공인데 회계 전공 말고 다른 직업을 찾기로 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새로 배우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일정한 생활 패턴을 좀 다시 되찾았습니다." (2_서울)

3) 건강 개선

□ 세 번째 ‘건강 개선’은 신체적 건강과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적 건강이 개선되고, 스트레스 해소나 치유가 된다는 인식을 통해서 드러남.

○ 정신건강과 관련한 문제는 정신건강 그 자체의 문제로 인해 참여한 대상자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 대한 대응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함.

○ 또한 정신적인 건강 문제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던 참여자는 신체적 건강까지 개선되는 경험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남.

신체건강

"예전에도 저도 트라우마에 많이 깊게 사로 잡혔었는데. 그거 때문에 건강도 많이 불량했었는데, 확실히 정신건강이 나아지니까 육체 건강도 많이 좋아졌죠. 안 좋았을 때는 과거의 기억에 사로 잡혀서 열도 많이 나고, 어떻게 별로 안 잡혔는데, 많이 좋아졌죠. 아, 병원에 다닐 만큼 심각했어요. 아주 심각했죠. 안 좋아지는 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약 먹고, 심리 상담도 꾸준히 받고 하니까,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이 많이 사라졌어요." (4_광주)

"스트레스가 좀 해소 되는데 도움이 됐고요. 옛날에는 스트레스 많아서 조금 건강도 안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건강해지고 있어서, 상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병원을 좀 덜 가요. 작년에 위 내시경 같은 걸 했는데, 신경성 위염이라고 판정을 받아서, 상담을 받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해소 되면서, 좀 이제, 병의 증상이 좀 덜하고, 많이 가라앉아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1_대구)

정신건강 개선

"예전에도 저도 트라우마에 많이 깊게 사로 잡혔었는데. 그거 때문에 건강도 많이 불량했었는데, 확실히 정신건강이 나아지니까 육체 건강도 많이 좋아졌죠." (4_광주)

"상담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해 왔던 것들에 대해 보상 받는 느낌, 그래도 이 길이 틀린 길이 아니었구나, 잘 해 왔구나 그렇게 위로도 받고 그때도 공황장애 약을 끊었어요. 그 상담 받을 때는, 그런데 아무래도 횡수가 짧다 보니까, 요새 다시 재발하더라구요.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가기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 또 신청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상담을 끊고 또 지내다 보니까 다시 공황장애도 재발하고 불면증도 재발한 상태예요. 지금은" (3_서울)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을 안 먹고 있어요. 그리고 불면증도 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잠을 약 없이도 잘 수 있는 상태까지" (5_광주)

치유

"개인 상담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치유 된 것도 도움이 됐고, 대하는 법도 많이 익혔습니다." (4_광주)

스트레스 해소

"제가 외국 살 때 힘들었던 부분들을 얼마나 아빠한테 말 하면 걱정하시고, 친구들에게 말 하면 그래도 너는 외국에서 사니까 배부른 투정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말을 못 했는데, 상담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말 했거든요. 아무한테 말 못했던 걸 1시간인데,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기분이 너무 우울하고 그렇다고 별거 아닌데 제 속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그걸 처음으로 만년 만에 누구한테 꺼내니까 너무 기분이 시원한 거예요. 앓던 이가 빠지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정말 기분이 좋아서, 그 주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또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10점 만점인데 굳이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너무 짧아서 그게 아쉽다. 저는 사비를 들여서 또 상담을 받아 볼까 싶기도 해요." (8_대구)

4) 문제 해결

□ 상담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영향 중 네 번째는 청년이 상담했던 어려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상담 동기에서 나타는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책을 주거나 또는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됨.

○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거나, 진로 문제에 대한 고민에 대해 부담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거나, 스스로 돌아보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법을 깨닫게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다음은 문제 해결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술한 것임.

문제 해결

"사람마다 다르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상담 선생님하고 되게 잘 맞았어요. 그분께서, 사실 다른 센터는 제가 감정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처럼 토로하고 거기에서 딱 끝났다면, 이번 상담은 그 선생님께서 해결책을 많이 제시해주셔서, 이 상담을 끝난 후에도 ○○ 씨가 이런 비슷한 슬픔 감정이 들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어떤 행동들을 이용하면 하는 게 좋다라고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마냥 좋진 않았어요. 좀 야속한 면도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훨씬 도움이 됐습니다." (2_서울)

"그냥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어느 정도 내려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3_서울)

"최근에 제가 전공과 아예 무관한 길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본인의 전공에서 대학교 박사 과정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 저 전공이랑 아예 무관해서 솔직히 이 공부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 공부 팀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도 나가는 것도 벅차요. 힘들어요 라고 얘기 했을 때, 그냥 일단 들으라고, 너무 욕심 내지 말고, 두 바퀴 세 바퀴 돌리면 되니까 책을, 일단 자연스럽게 넘기라고, 그 말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니까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훨씬 마음도 편해지고" (10_광주)

"우선은 제가 그 동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 해 왔던 걸 고치고, 타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도 제가 여쭙봤었어요. 상담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셔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도 배웠던 것 같아요." (9_대구)

"일단 작년에 비해서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아니에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가족과의 관계도 사실 막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황이라 던지 그런 변화는 없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건 이제까지, 어딘가에 속을 털어 놓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뭔가 안으로 계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마음의 짐이랄까, 쌓이는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앞으로 조금씩 떨어내면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인드의 변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7_서울)

"제 마음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끼쳤던 건 가족이었거든요. 가족 때문에 상담을 신청한 건 아니었는데,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타인에게 공격적인 동생이랑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상담을 끝마칠 쯤에 동생이랑 따로 사는 결정을 내렸어요.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 같은 게 있었고, 그걸 빼고 나서 생각한다면 자존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연결된 것도 많았지만, 결국에 근본적으로는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있다는 게 당시 제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 버리되, 근본적으로는 자존감을 채워 가는 걸 스스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걸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됐고, 저는 제가 자존감이 떨어진다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된 게 도움이 됐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일 자체를 정규직을 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한테 확신이 없어서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 준비 과정에서 힘든 부분들, 그럴 때 저한테 질문,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6_서울)

5) 사회적 연결

□ 상담 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으로 나타난 다섯 번째 범주는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는 느낌’이나 자신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평가한 것이며, 사회가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 점임.

○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청년의 고립감을 일정부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임. 특히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털어 놓음으로써 누군가(사회가) 나를 보호하고 돌봐주고 있다고 느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나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인 결과로 보임.

○ 사회적 고립감은 자살과 우울과 같은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군가 또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돌봐주고 있다고 느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음.

사회적 케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던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수준의 아픔이어야지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뭔가,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나 걱정을 먼저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게 좋은 점은,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서 얘기 못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가족도 그렇고 솔직히 친구한테도 못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터놓고 얘기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편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좀 케어 받고 있는 듯한 느낌, 사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7_서울)

사회적 위안

"일단 비싸 돈이 안 든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고민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게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그 진입 장벽이 높은 거에는 뭔가 사회적인 편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비용 문제가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가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좀 무료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자체라든지 나라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사회하고 연결된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되게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7_서울)

다. 상담 효과_만족도: 지역 구분

□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모든 지역에서 다 높게 나타남. 만족도 점수의 범위는 7점에서 10점으로 나타남.

○ 인터뷰 참여자들은 만족도에 대한 평가의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는데, 대부분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면서 오는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음.

<표 4-4> 만족도 점수와 만족도 점수 높은 이유

	만족도 점수	만족도 높은 이유
상담의 만족도	9+	문제 해결에 도움
	9	도움이 되서
	9	잘 들어줘서
	7	통찰 가능
	9+	마음상태 변화
	8	미래 계획 세움
	10	활력소
	8	몰랐던 자신을 알게 됨
	10	속마음 털어놓음
	10	친구들과 다시 관계를 형성하게 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만족도 점수_9+: 문제 해결에 도움

"네,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9점이나 9점 이상. 사람마다 다르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상담 선생님하고 되게 잘 맞았어요. 그분께서, 사실 다른 센터는 제가 감정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처럼 토로하고 거기에서 딱 끝났다면, 이번 상담은 그 선생님께서 해결책을 많이 제시해주셔서, 이 상담을 끝난 후에도 ○○ 씨가 이런 비슷한 슬픔 감정이 들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어떤 행동들을 이왕이면 하는 게 좋다고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마냥 좋진 않았어요. 좀 야속한 면도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훨씬 도움이 됐습니다." (2_서울)

만족도 점수_9점: 도움이 되서

"네, 저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10점 만점에 한 9점, 높는데 이게 횡수가 적은 게 너무 안타까워서" (3_서울)

만족도 점수_9점: 잘 들어 줘서

"그건 9점 정도. 상담 선생님이 되게 잘 해주시고, 말을 잘 들어 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1_대구)

만족도 점수_9점: 통찰 가능

"네, 일단 점수로 표현하자면 10점 만점에 7점 정도 주고 싶고요. 그 이유는 그냥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른 종결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께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종결을 먼저 내리셨는데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많은 통찰을 할 수 있었고, 그 상담 할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종결을 하나까 밋고 좀 속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은 오히려 고마웠던 분, 제가 여러 상담을 받아 봤지만,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상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10점 만점에 7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5_광주)

만족도 점수_9+점: 마음상태 변화

"상담을 시작할 때 비해서 지금 현재 제 마음 상태가 어떠냐 라고 물어 보면, 아주 극적인 차이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담이 종료되고 나서 코로나를 겪고 지금 현재까지 다시 하향세를 그리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서 그렇긴 한데, 상담 시작하고 끝을 비교하자면 마음이 한, 2나 3에서, 7,8 정도까지는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상담 자체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로 표현하시면) 만점이긴 힘든 게, 시간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조금 항상 아쉬운 건 있었는데 그래도 거의 그 수준에 가깝게 만족을 한 것 같아요." (6_서울)

만족도 점수_8점: 미래 계획을 세움

"저는 10점 만점에 8점을 주고 싶네요. 아주 만족했어요. 우선은 심리 상담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치유 되었고,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게 매우 좋았죠." (4_광주)

만족도 점수_10점: 활력소

"저는 10점 만점에 솔직히 9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저는 이거 상당히,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자체가, 작년에 저한테 많은 활력소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에 다 참여해 보라고 사실 좀 홍보도 하고 싶고, 상담 했던 내용도 좀 좋았긴 한데, 제가 9점을 드린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 하셨지만 시간 제약이, 뭔가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더 기회가 주어져서

12번까지 하긴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7_서울)

만족도 점수_8점: 몰랐던 자신을 알게 됨

"저도 몰랐던 제 자신을 알게 된 점이 제일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동안 살아오면서,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살아 왔었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뭐 상의를 할 때도, 아니면 스스로 결정을 할 때도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주관적인 생각대로 살아 왔는데,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랑 어울리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됐던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8점 정도요." (9_대구)

만족도 점수_10점: 속마음을 털어 놓음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인데, 굳이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저도 시간이 1시간 밖에 비대면이라서 그게 아쉬웠어요. 다른 분들은 장기적으로 하셨으니깐,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한 번 더 해 보고 싶고, 그거 말고는 다 만족스러웠어요. 그냥 그 날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외국 살 때 힘들었던 부분들을 얼마나 아빠한테 말 하면 걱정하시고, 친구들에게 말 하면 그래도 너는 외국에서 사니까 배부른 투정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말을 못 했는데, 상담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말 했거든요. 아무한테 말 못했던 걸 1시간인데,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기분이 너무 우울하고 그렇다고 별거 아닌데 제 속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그걸 처음으로 반년 만에 누구한테 꺼내니까 너무 기분이 시원한 거예요. 앞던 이가 빠지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정말 기분이 좋아서, 그 주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또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10점 만점인데 굳이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너무 짧아서 그게 아쉽다. 저는 사비를 들어서 또 상담을 받아 볼까 싶기도 해요." (8_대구)

만족도 점수_10점: 친구들과 다시 관계를 형성하게 됨

"처음에는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이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는데 일정은 잡혀 있고. 그래서 5분 10분 늦으면서 가면, 여기에 막상 도착하면 조금씩 조금씩 제 얘기를 하게 되고 집에 가는 길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가 쉬는 방법은 밖에서 자연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스타일인데, 사람들 만나고, 선생님하고 계속 그렇게 만나면서 친구들을 조금씩 조금씩 찾게 되고 (상담 받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상담 내용 자체만으로 봤을 때 만족도가 1-10점까지 몇 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점." (10_광주)

라. 상담으로 인한 신뢰도 변화

□ 상담 프로그램 참여로 청년센터와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청년센터에 대한 신뢰도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했음.

○ 신뢰도의 경우 해당 지역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즉, 해당 지역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면 신뢰도가 0점에 가깝게 나타남. 또는 청년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신뢰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청

년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이 청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때 신뢰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발견은 대체로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지역이나 청년센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이나 청년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적 노력들을 홍보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함.

□ 다음 표는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지역이나 청년센터에 대한 신뢰도 변화와 그 이유에 대해 정리한 것임.

<표 4-5> 신뢰도 점수와 그 이유

	신뢰도 점수 변화	높아진 이유	낮았던 이유
상담 신뢰도	9→10	지역에 대한 신뢰가 높음	-
	5→8, 9	프로그램 참여	몰라서
	5→7, 8	신경을 쓰고 있다고 느낌	와 닿는 것이 없었음
	8→8	변동 없음	
	4→6, 7	프로그램을 알게 됨	몰랐음
	5→7	프로그램 참여	-
	5→8	노력을 하고 있다고 느낌	프로그램을 잘 몰랐음
	2, 3→6, 7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음	기대가 없었음
	5→9	프로그램 참여	
	4, 5→8, 9	프로그램 참여	청년센터 존재를 몰랐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 아래는 참여자들이 신뢰도 점수와 신뢰도가 변한 이유에 대해 구술한 것일 제시한 것임.

지역에 대한 신뢰가 높음

"저는 아까 전에 9점 했지만 지금은 10점 정도. 대구시는 괜찮은 것 같아요." (1_대구)

의식해 본 적 없다가 참여하고 나서 올라감

"저는 이거 하기 전에는 사실 5점 정도로, 사실 특별히 의식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어련히 잘 알아서 해 가는 곳이다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참여하고 나서 8, 9점." (2_서울)

와 닿는게 없다는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해서

"처음에는 5점이었던가 이번에 7, 8점. 이전에는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고 하는데, 와 닿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년수당이나 이런 상담들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것 같아요." (3_서울)

변동 없음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8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_광주)

몰랐다가 청년 지원에 대해 알게 돼서

"저는 한 4점이었던가 지금은 6, 7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광주뿐만 아니라 전 지역으로 해도 똑 같은 것 같은데, 원래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청년들한테 지원 되는 걸 몰랐었는데, 이번 계기로 청년들도 이렇게 지원 주는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5_광주)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저는 참여 전에는 한 5점 정도였고요. 참여 하고 나서는 7점 정도." (6_서울)

잘 모르고 있다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느껴서

"저도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5점 정도였다면 저는 8점 정도로 이미지는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서울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느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서울시로부터 받았으니까, 나중에 언젠가 여력이 되면 나도 좀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하기도 했었어요." (7_서울)

기대가 없었고 프로그램이 별로 없음

"2점, 3점이었는데요. 몇 년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도 별로 기대도 없었는데, 한 6, 7점.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순간 또 한 번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물론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 제가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이나 그런 것도 없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 프로그램을 써 먹기 힘들어서, 조금 서울에 비하면 낮은 것 같아요." (8_대구)

프로그램 참여해서 올라감

"저는 처음에는 신뢰도가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5점이었는데, 참여하고 나서 9점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9_대구)

청년센터 존재를 몰랐다가 참여하게 되서

"처음에는 청년센터, 광주에 청년센터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 지하상가 제일 구석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좀 좋은데, 물론 버스 정류장,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4, 5점 이랬는데 지금은 8, 9점인데 버스 정류장에 붙어 있는 건 좋은데, 대문쪽만하게 붙어 있고 이런 건 좋은데, 아직도 광주에서 청년 사업을 하는 곳들도 있고 재단 청년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제 주변에는 아직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못 쓰는 형편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접근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홍보물을 배포하고 오프라인으로, 그런 것도 좋은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10_광주)

마. 상담을 한마디로

- 상담 프로그램이 참여자에게 어떤 의미인지와 상담 프로그램이 참여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파악하기 위해 참여한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표현해보기를 제안했음.
- 상담에 참여한 동기는 대인관계나 취업진로 문제나 정신적 건강과 같은 문제였는데, ‘상담을 한마디로’에서도 직접적인 문제 해결과 위로에 해당하는 표현이 많이 발견되었음.
- 이와 더불어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것’,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기’, ‘너 자신을 알 수 있다’, ‘자존감 채우기’와 같이 참여자 자신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내용들도 발견됨.
 - 이러한 표현은 대인관계나 가족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인관관계의 기본적인 기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4-6> 상담을 한마디로

범주	한마디
‘나다움’ 이해와 찾기	선한 영향력/있었던 나 찾기
	자기 내면에 귀 기울이기
	너 자신을 알 수 있다
	자존감 채우기
문제 해결과 위로	너만을 위한 대나무 숲
	가뭄의 단비
	구조 동아줄
	위로 받은 순간
개인적 측면에서 효율성	사랑의 눈물
	개이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1) '나다움' 이해와 찾기

선한 영향력

"잃었던 나를 다시 되 찾은 느낌, 그리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 받았던 선한 영향력을 다시 건네주고 싶다." (10_광주)

자기 내면에 귀 기울이기

"저는 자존감 채우기,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자기 내면에 귀 기울이기." (6_서울)

너 자신을 알 수 있다

"너 자신을 알 수 있다." (5_광주)

자존감 채우기

"저는 자존감 채우기" (6_서울)

2) 문제 해결과 위로

너만을 위한 대나무 숲

"너만을 위한 대나무 숲, 이게 제가 단체 상담을 안 한 이유가, 아무리 다 어디를 가서 다른 분들이 얘기 하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일대일 상담은 속 깊이 있는 것까지 다 말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담하면서 저도 좀, 운 적이 많아서, 그렇게 타인 앞에서 울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나무 숲이라고 정했습니다." (2_서울)

가뭇의 단비

"네, 가뭇의 단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4_광주)

구조 동아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사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연결 되어 있는 느낌이 난다고 했잖아요. 동아줄 느낌, 약간 낭떠러지라고 생각 될 때 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구조 신호 같은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7_서울)

위로 받은 순간

"위로 받았던 순간" (3_서울)

사랑의 눈물

"사랑의 눈물,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가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 되거나 마음이 편해지면, 제가 좀 감정적이라서, 원래 남자들은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저는 그런 게 좀 많아서, 운 적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런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_대구)

3) 개인적 측면에서 효율성

개이득

"비속어 써도 되나요? 개 꿀 뽀다. 개이득. 제가 생각 했을 때는 지금 제 평소 어휘 수준으로 봤을 때는 딱 개이득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개이득이다." (8_대구)

바. 수당 역할

□ 수당의 역할은 지역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

○ 서울은 상담 프로그램 참여가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지만, 대구의 경우에는 수당을 받기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참여한 것임.

○ 따라서 여기서는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수당이 없어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지, 수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한 내용을 정리했음.

□ 상담 프로그램 참여가 참여자에게 여러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지역이나 청년센터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 유인을 주는 것은 의미 있지만, 프로그램 참여가 수당의 조건이 아니어도 참여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수당의 조건을 프로그램 참여로 설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움.

○ 다만,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음.

<표 4-7> 수당의 역할

범주	개념
지출에 도움	지출
상담과 연계성	상담을 연계
	상담에 참여
	상담과 별개
시간 사용	시간 사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1) 지출에 도움

지출

"저는 제일 크게 쓴 건 학원 다니는 데 쓰고, 나머지는 저도 통신비, 그리고 식비. 그리고 그냥 크게는 그렇게만 써서, 나머지는 잡다한 거" (2_서울)

"우선은 발레 반주로 전공을 옮겼기 때문에 교육비나 악보 사는데" (3_서울)

2) 상담과 연계성

상담을 연계

"무작정 청년수당을 주면,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청년수당을 준 이유는, 청년들이 사는데 도움을 주려고 주는 거니까, 먼저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이걸 수행하면 청년수당을 받는 거로" (3_서울)

"저도 대구 방식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상담을 이미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감 없이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저도 이전의 경험이 없었다면, 괜히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낯설음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주저만 하다가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한 번이던 두 번이던 우선 해 보고, 도저히 안 맞는다 그러면 거부를 하던지, 그렇게 하는 게,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것 보다는, 반 강제적으로라도 한 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요." (2_서울)

"저도 마찬가지로, 심리 상담 받으면 수당을 주는 게 더 좋죠." 4_광주)

"아무래도 돈만 주면 어디에 썼다고 해도, 알 길이 거의 없고, 아무래도 심리 상담을 같이 받으면 마음의 상처가 여러 사람들이 많고, 청년 분들이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도 확실히 좋죠." (4_광주)

상담 프로그램 참여

"네,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사실 직접적으로 금전 지원을 받는 거니까, 저는 이거로 이번에 운전면허 학원도 다녀서 타고 그런 식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까 다른 분도 말씀 하셨는데.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좀 약한 것도 있는데, 수당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면 오히려 참여율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상담이라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담이라고 하면 진짜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폐인 되기 직전의 사람들이 받는 거다 그러면서 낙인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 분들이 아직 많으니까, 수당을 통해서 같이 홍보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_서울)

"딱히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청년수당을 받음으로 해서 이런 상담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에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3_서울)

"이게 청년수당이 사실 그냥 돈만 주는 프로그램이면, 이렇게까지 의미는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돈이 생활비 자체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잃었어야 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서 진짜 저도 여유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좋았던 것 같고, 얘기를 이어 가자면, 청년수당을 하면서 사실 저는 마음 건강에 참여해선 게 제일 의미가 있었어요." (7_서울)

상담과 별개로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상담에 거부감이 있거나 예를 들어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건강한데 왜 굳이 내가 상담을 들어야 해? 엄청 귀찮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억지로 이걸 해야지만 돈을 줘, 이런 건 너무 강압적이고 상담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면 귀찮아 안 받을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5_광주)

3) 시간 사용

시간 사용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그게 이제 마음 건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인데, 제가 받는 수당만큼을 일 해서 벌기 위해서 제일 낮은 일 자리에 투입이 돼서, 시간도 들이고, 비용도 소모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른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더라고요. 저는 수당을 돈을 받았다고 보다는 그 시간을 확보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골랐을 뿐 인 거고" (6_서울)

"저도 6_서울 선생님과 의견을 같이하는 게 이게 청년수당이 사실 그냥 돈만 주는 프로그램이면, 이렇게까지 의미는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돈이 생활비 자체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잃었어야 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서 진짜 저도 여유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좋았던 것 같고, 얘기를 이어 가자면, 청년수당을 하면서 사실 저는 마음 건강에 참여해선 게 제일 의미가 있었어요." (7_서울)

사.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또는 추가 욕구³⁾

□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은 다음과 같음.

-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은 ‘홍보’에 대한 내용과 ‘상담 횟수’에 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왔음. 홍보에 대한 불만은 다른 청년에게도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는 의미와, 홍보 방식이 다양했으면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청년들이 SNS를 많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을 인지하게 된 경로는 매우 다양함. 친구나 부모님, 현수막이나 SNS뿐만 아니라 소식지를 통한 인지 등 다양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3) 불만과 추가 욕구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했지만, 참여자가 이용한 상담의 유형과 상담 횟수와 상담 시간 또한 지역 내에서도 다양하여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여기서는 지역 구분 없이 제시함.

- 그러나 이는 현재의 홍보 방식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좋은 취지와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알고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상담 횟수에 대한 불만은 실제 상담제공 횟수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프로그램 욕구로도 해석할 수 있음. 세 지역 모두가 상담 횟수가 짧은 것은 아니기 때문임. 다만, 대구 사례의 경우에는 전화상담 1회 1시간을 이용했기 때문에, 시간 제약에 대한 아쉬움이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임.

○ 추가적인 욕구는 대상자 확대와 프로그램 참여가 끝나도 상담을 다시 참여하고 싶은 욕구들이 표출되었음.

- 지역별로 제공한 실제 상담 시간은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청년들의 상담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고 크며, 상담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 한 것으로 해석됨. 이는 프로그램 참여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사후 상담에 대한 욕구로도 표현됨.

□ 다음은 지역별로 나타난 특징적인 욕구와 불만임.

- (서울) 불만은 인식 개선과 상담 인력 확대에 대한 의견이었으며, 추가적인 욕구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참여자의 욕구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가 하나의 코스처럼 체계적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함.
- (대구) 상담 시간이 짧은데서 오는 시간 제약과 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했으면 한다는 의견, 상담 선생님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상담보다도 수당에 대한 불만으로 사용처가 제한된 점과 수당을 받기 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길다는 점을 불만으로 이야기 함. 또한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광주) 다른 청소년 상담과 같이 상담 선생님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했으면 한다는 의견과 광주에서의 상담 프로그램으로 인한 경험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찾아보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표 4-8>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또는 추가적 욕구

구분	범주	개념
상담 불만	시간과 횟수	시간 짧음
		시간 제약
		횟수 늘리기
	홍보	홍보
		인식 개선
	상담 방식	방문상담
		대면 선호
	상담 인력	인력 확대
		선생님 선택
과정적 불편함	사용처 제한	
	기다림	
상담 관련 추가 욕구	프로그램 다양화	다양한 프로그램
		체계적 과정 제공
		상담
		다른 프로그램 이용
	프로그램 선택의 유연성	시간 선택
	사후관리	사후상담
	대상자 확대	대상자 확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1) 불만

(1) 시간과 횟수

시간 짧음

"저도 너무 횟수가 짧다는 거하고요 1회 하는데, 제 기억에 1시간이었거든요. 하루 1시간 상담인데, 사실 1시간 상담도 짧았다고 느껴서, 한 번 하는데 시간을 1시간 반, 길게 잡으면 2시간 이렇게 시간도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2_서울)

"저는 특별한 건, 역시 시간이랑 횟수 늘리는 게 제일 크고요. 사실 홍보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홍보도 조금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는 따로 없어요." (2_서울)

"최소 4회는 했으면 좋겠고요. 1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기 때문에 조금 길게 했으면 좋겠고요. 비대면이니깐 얼굴은 모르니까 말을 좀 더 자유롭게 해서 좋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면 좋겠어요. 비대면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고,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조금 별로일 것 같아요. 시국이 시국이니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8_대구)

"저는 웬만한 건 다 맞춰주셔서요. 예를 들어서 상담 주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얘기를 해서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늘렸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맞추셨던 것 같은데, 저는 기본 상담 시간이 50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뭔가 시간이 이제

좀 내가 토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딱 시동이 걸리면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보통 40분까지는 그냥 약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좀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끝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 조정이 가능하면, 한 회차이라도 좀 더 시간을 50분 이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7_서울)

시간 제약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9_대구)

"제가 외국 살 때 힘들었던 부분들을 얼마나 아빠한테 말 하면 걱정하시고, 친구들에게 말 하면 그래도 너는 외국에서 사니까 배부른 투정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말을 못 했는데, 상담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말 했거든요. 아무한테 말 못했던 걸 1시간인데,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기분이 너무 우울하고 그렇다고 별거 아닌데 제 속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그걸 처음으로 반년 만에 누구한테 꺼내니까 너무 기분이 시원한 거예요. 앓던 이가 빠지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정말 기분이 좋아서, 그 주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또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10점 만점인데 굳이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너무 짧아서 그게 아쉽다. 저는 사비를 들어서 또 상담을 받아 볼까 싶기도 해요." (8_대구)

횟수 늘리기

"네, 저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10점 만점에 한 9점, 높은데 이게 횟수가 적은 게 너무 안타까워서" (3_서울)

"상담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해 왔던 것들에 대해 보상 받는 느낌, 그래도 이 길이 틀린 길이 아니었구나, 잘 해 왔구나 그렇게 위로도 받고 그때도 공황장애 약을 끊었어요. 그 상담 받을 때는, 그런데 아무래도 횟수가 짧다 보니까, 요새 다시 재발하더라구요.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가기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 또 신청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상담을 끊고 또 지내다 보니까 다시 공황장애도 재발하고 불면증도 재발한 상태예요. 지금은" (3_서울)

"전 그런 건 없고, 횟수가 너무 짧았다. 그게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이게 아무래도 횟수가 짧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말 하려다 보면 끝나 있더라고요. 이런 주제도 얘기하고 싶고, 저런 주제로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횟수가 짧으니까, 상담 선생님이랑도 정말 중요한 것만 얘기하자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거든요." (3_서울)

"저도 너무 횟수가 짧다는 거하고요 1회 하는데, 제 기억에 1시간이었거든요. 하루 1시간 상담인데, 사실 1시간 상담도 짧았다고 느껴서, 한 번 하는데 시간을 1시간 반, 길게 잡으면 2시간 이렇게 시간도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2_서울)

"저는 중복이 안 돼서 저도 횟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1_대구)

"회기도 매우 짧고, 중복도 안되는 게 매우 큼니다. 그리고 홍보도 잘 안 돼서 수 많은 청년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게 많이 아쉬움이 남죠." (4_광주)

"괜찮은데, 횟수가 조금 이제 중복, 1인 당 한 번 밖에 못 하니까 그게 좀 아쉽네요." (1_대구)

"최소 4회는 했으면 좋겠고요. 1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기 때문에 조금 길게 했으면 좋겠고요. 비대면이니까 얼굴은 모르니까 말을 좀 더 자유롭게 해서 좋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면 좋겠어요. 비대면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고,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조금 별로일 것 같아요. 시국이 시국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8_대구)

"선발하는 사람들을 좀 다양하게 뽑았으면 좋겠어요. 7_서울 선생님 말씀처럼, 성향이라는 게 이런 대구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만 듣는 거잖아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은 아예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개선됐으면 좋겠고, 일단 일회성은 너무 짧은 것 같고, 내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상담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상담 프로그램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걸 몇 개로 단축시키고, 횟수를 늘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8_대구)

(2) 홍보

홍보

"일단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청년들에게도 이런 걸 잘 알려 주고 싶은데 국가 차원에서의 홍보가 너무 부족하고, 게다가 회기도 좀 짧아서 회기도 매우 짧고, 중복도 안되는 게 매우 큼니다. 그리고 홍보도 잘 안 돼서 수많은 청년들이 이것 잘 모르는 게 많이 아쉬움이 남죠." (4_광주)

"홍보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당을 챙겨 준다거나 그런 혜택이 좀 없으니까, 조금 더 아무래도 홍보가 덜 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그렇고, 1388 청소년 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 청소년이 있는 장소까지 오기도 하는데, 청년은 저희가 직접 그 장소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상담 선생님께서 저희가 있는 장소로 올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 (5_광주)

"저는 특별한 건, 역시 시간이라든 횟수 늘리는 게 제일 크고요. 사실 홍보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홍보도 조금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는 따로 없어요." (2_서울)

"저는 홍보 문제인 것 같아요. 솔직히 청년수당 아니었으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 (3_서울)

"제가 서울시에 센터에 바라는 점은,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청년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 청년이라고 하는 계층이라고 해야 하나? 관심을 좀 기울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홍보를 진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더 많은 서울시의 청년들이 더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걸 알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미지가 지금 사실 시행하고 있는 청년 사업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아직까지 취업을 못 한 사람들, 아니면 사회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좀 이런 인식 개선이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이런 류의 홍보를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7_서울)

"대구시에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가 너무 안돼요. SNS를 통해서 홍보하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 말고 인스타그램이라 던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SNS가,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8_대구)

항상 센터 담당자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홍보, 시도 마찬가지로, 되게 애를 많이 쓰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방법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_광주)

"홍보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옛날 스타일이지만 집에 홍보물을 날리는 것, 보내주는 거, 진짜 먹고 사느라 바쁜 사람들은 정보를 찾아 볼 수가 없잖아요. TV가 없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없을 수도 있고, 버스 정류장 그거를 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10_광주)

인식 개선

"제가 서울시에 센터에 바라는 점은,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청년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 청년이라고 하는 계층이라고 해야 하나? 관심을 좀 기울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홍보를 진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더 많은 서울시의 청년들이 더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걸 알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미지가 지금 사실 시행하고 있는 청년 사업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아직까지 취업을 못 한 사람들, 아니면 사회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좀 이런 인식 개선이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이런 류의 홍보를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7_서울)

(3) 상담 방식

방문상담

"홍보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당을 챙겨 준다거나 그런 혜택이 좀 없으니까, 조금 더 아무래도 홍보가 덜 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그렇고, 1388 청소년 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 청소년이 있는 장소까지 오기도 하는데, 청년은 저희가 직접 그 장소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상담 선생님께서 저희가 있는 장소로 올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5_광주)

대면 선호

"최소 4회는 했으면 좋겠고요. 1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기 때문에 조금 길게 했으면 좋겠고요. 비대면이니까 얼굴은 모르니까 말을 좀 더 자유롭게 해서 좋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면 좋겠어요. 비대면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고,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조금 별로일 것 같아요. 시국이 시국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8_대구)

(4) 상담 인력

인력 확대

"저도 제가 했던 상담 내적으로는 시간적인 아쉬움 말고는 전혀 아쉬운 부분은 없고요. 상담사 선생님의 인원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적인 부분하고 같이 고려를 하면, 상담사 선생님 풀이 좀 넓어지고,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뭐 그런 보상 같은 것도 같이 연계 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상담을 넉넉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6_서울)

선생님 선택

"불만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을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불만이었던 건 아니고, 제 성격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성별이면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번에 상담 했던 선생님은 여자 분이셨거든요." (9_대구)

2) 추가 욕구

(1) 프로그램 다양화

프로그램 다양화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제가 크게 할 말은 없지만,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재원도 투입이 많이 돼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렸으면 좋겠다." (6_서울)

체계적 과정 제공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제가 크게 할 말은 없지만,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재원도 투입이 많이 돼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그냥 청년이 아니고 졸업한지 얼마 이상 지나고, 조건이 어려운 그런 청년들 대상으로 조금 더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지원하는 폭이,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상으로는, 커리큘럼 같은 거, 예를 들면, 진로 고민이 있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진로 코스를 선택하면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일 경험은 해 볼 수 있는지.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수 있고, 모의 면접을 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코스가 있고, 어떤 분은 고민 상담을 한다면, 일대일 상담도 하고 그룹 상담도 하고 온라인 상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코스가 만약에 설계가 되면, 하나씩 이렇게 골라서 듣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6_서울)

상담

"저도 또 참여할 기회가 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사실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는 상담 받던 선생님 명함을 받아 놔거든요. 나중에 좀 힘들면 다시 연락을 드리려고, 아무래도 다른 선생님과 또 처음부터 또 신뢰를 쌓아 가기는 부담스럽고, 그 선생님과 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비슷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저는 다른 분과 하더라도 어쨌든 다시 참여할 의향은 있습니다. 저도 상담으로 도움을 많이 받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도 겪으면서 또, 되게 힘든 점이 은근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한테 터놓고, 아예 없는 것 같아도 막상 얼굴을 마주 보면 또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속 시원하게 한 번 하고 싶습니다." (2_서울)

"그때 상담이 종료 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정규직 직장,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상담을 계속 이어 나가고 싶다 생각했어요." (6_서울)

"제가 외국 살 때 힘들었던 부분들을 얼마나 아빠한테 말 하면 걱정하시고, 친구들에게 말 하면 그래도 너는 외국에서 사니까 배부른 투정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말을 못 했는데, 상담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말 했거든요. 아무한테 말 못했던 걸 1시간인데,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기분이 너무 우울하고 그렇다고 별거 아닌데 제 속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그걸 처음으로 반년 만에 누구한테 꺼내니까 너무 기분이 시원한 거예요. 앓던 이가 빠지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정말 기분이 좋아서, 그 주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또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10점 만점인데 굳이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너무 짧아서 그게 아쉽다. 저는 사비를 들여서 또 상담을 받아 볼까 싶기도 해요." (8_대구)

다른 프로그램 이용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쪽으로 가도, 저는 광주 쪽으로, 그 분과 계속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고, 다른 프로그램도 찾아 볼 의향이 있습니다." (4_광주)

(2) 프로그램 선택의 유연성

시간 선택

"2점, 3점이었는데요. 몇 년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도 별로 기대도 없었는데, 한 6, 7점,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순간 또 한 번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물론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 제가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이나 그런 것도 없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 프로그램을 써 먹기 힘들어서" (8_대구)

(3) 사후관리

사후상담

"네, 저는 다시 찾아 볼 의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찾아본다고 하면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이왕이면 전에 상담을 해주셨던 선생님을 찾아 볼 것 같아요." (5_광주)

"저는 만약에 다시 참여할 수 있으면, 이런 센터에 참여하고는 싶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저는 1년 전에 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참여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 뭔가 심적으로 위안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저도 좋아짐을 느끼긴 했지만, 뭔가 세상살이가 다 급격하게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1년이 지난 후에,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제가 작년에 만나 뵈던 선생님하고 저는 라포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점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한 번씩 피드백을 서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요즘 좀 들더라고요." (7_서울)

대상자 확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제가 크게 할 말은 없지만,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채용도 투입이 많이 돼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그냥 청년이 아니고 졸업한지 얼마 이상 지나고, 조건이 어려운 그런 청년들 대상으로 조금 더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6_서울)

"제가 다른 지역의 프로그램은 자세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구시 청년센터에 바라는 점은 우선 참여 인원이나 선발 인원을 좀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일 경험 사업에 떨어지고 나서, 정말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9_대구)

"선발하는 사람들을 좀 다양하게 뽑았으면 좋겠어요. 성향이라는 게 이런 대구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만 듣는 거잖아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은 아예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개선됐으면 좋겠고" (8_대구)

2.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결과

□ 이 연구에서는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영향은 대부분 상담에 참여한 동기와 관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상담에 참여한 동기는 크게 진로나 취업 문제, 대인관계나 가족관계, 정신적 건강 문제로 나타났으며, 상담을 통한 긍정적 영향은 '인간관계 기술 개선', '문제 해결', '건강 개선' 과 같이 상담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 이 외에도 상담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은 나와 사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삶에 대한 의지가 생긴 점임.

○ 이러한 상담의 긍정적인 영향은 상담에 참여한 청년들이 상담 참여 동기에서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거나 홀로 무기력 해져 있는 상태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청년들이 고립되어 있지 않도록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회적 도움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이 필요한 많은 청년들이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이러한 노력은 결국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연구 설계 당시에는 상담 프로그램은 지역마다 설계가 다르고 참여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효과성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지역별 특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음.

○ 또한 지역별 참여자가 경험하는 상담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영향이 다르다고 해서 지역별 프로그램의 내용과 제공 방식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상담의 긍정적인 효과가 정확한 진단에 의해 평가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효과성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진로 탐색 프로그램

□ 지역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특징

-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마다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에 차이점이 있음. 서울지역에서 제공하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은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당 직업 종사자를 인터뷰하거나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탐색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대구의 경우에는 진로 탐색과 일 경험을 지원하고 있음. 진로 탐색 프로그램은 학교 형식으로 분야별 과정과 기간이 정해져서 운영되고 있음. 예를 들어 ‘연극학교’처럼 과목이 정해져서 강사가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는 방식임.
- 광주의 진로 탐색은 자신과 유사한 직군을 준비하는 사람과의 교류를 지원하는 방식의 프로그램 참여자가 인터뷰에 응하였음. 연구를 설계할 때 광주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자는 NEET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NEET 청년 발굴 및 지원’ 사업 참여자였음. 그러나 참여자 섭외의 어려움으로 2018년도 청년수당 드림 참여자 중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음.
- 상담 프로그램의 참여 방식과 같이 진로 탐색 프로그램 또한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것과 프로그램은 자율 선택인지가 다름.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와 달리 진로 탐색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동기가 보다 동질적임. 모두 진로 찾기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지만, 개인의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나 대인관계 기술에서의 문제 등이 프로그램 참여 동기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효과성 또한 자신에 대한 이해와 대인관계 등에서의 개선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진로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 자격증 습득이나 시험을 잘 보는 것과 같은 취업기술 능력 이외에 사람들과 대화하는 기술이나 많은 대중 앞에서 발표를 잘 할 수 있는 기술 등 대인관계 기술이 필요함을 인정한다면 대인관계 기술과 관련한 개념들이 발견된 것은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나 효과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함.

○ 인터뷰 참여자들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음.

〈표 4-9〉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자 정보

구분		프로그램 참여 동기	나이	성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자 (대구 4, 서울 2, 광주 4)	11_대구	진짜 회사를 가서 일을 배우고 싶어서	20	여
	12_대구	취미에서 꿈이 되길 바람	22	여
	13_광주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금전적 도움 받기 위해	30	여
	14_광주	유사 직군과 정보 교류	30	남
	15_광주	생산적 활동을 통한 자신감 채우기	26	여
	16_광주	사람들 앞에서 떨어져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27	여
	17_대구	자신이 관심 있는 일과 관련	25	남
	18_대구	영상제작 일을 배우고 싶어서	32	남
	19_서울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해	35	남
	20_서울	자신의 진로를 바꾸기 위해	34	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1.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효과성

가.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

□ 인터뷰 참여자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 동기는 프로그램명과 같이 취업이나 진로 탐색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고 참여자간 유사한 동기를 가지고 있음.

○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특징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동기도 ‘일 경험/진로 찾기가 가장 많이 나타남. 이 외에 ‘금전적 도움’ 과 ‘개인의 성격 변화’가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동기로 나타남.

<표 4-10>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 동기

구분	범주	개념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 동기	일 경험/진로 찾기	진짜 회사를 가서 일을 배우고 싶어서
		취미에서 꿈이 되길 바람
		영상 제작 일을 배우고 싶어서
		진로 찾기
		진로 바꾸기 위해
		요식업 쪽에 관심 있어서
		유사 직군과 정보 교류
	금전적 도움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금전적 도움 받기 위해
	개인의 성격 변화	새로운 것 시도와 자신감 채우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떨어서 바꾸고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1) 일 경험/진로 찾기

□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동기로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범주는 ‘일 경험/진로 찾기’임. 앞서 설명했듯이 프로그램의 의도와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 경험/진로 찾기’가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로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임.

□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 중 ‘일 경험/진로 찾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진짜 회사’에 가서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하거나, 참여자 자신은 취미이기도 하지만 꿈으로 생각하는 예술 쪽 일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참여하거나, 영상

제작 일을 배우고 싶어서 참여하는 등 자신의 진로와 취업 방향과 관련 있는 경험과 기술을 배우고 싶은 동기가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직접적으로 진로를 찾거나 새로운 진로로 바꾸기 위해서거나 요식업 쪽에 대한 관심이 있는 참여자도 있었으며, 이 외에 관련 직업과 유사한 직군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정보 교류를 위해서 참여했다고 밝힌 참여자도 있음.

진짜 회사에 가서 일을 배우고 싶어서

"저는 이제 6개월 동안 일 경험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야기하는 그림 체험 활동이었어요. 분야는 원래 세 가지가 있잖아요. 상담형이랑 한달 체험이랑 저처럼 일자리를 가서 직접 일을 해보고 경험하는 그런 체험이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진짜 회사를 가서 배워보고 싶어서 세 번째 유형으로 선택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_대구)

홍보와 기획 일 배우고 싶어서

"저는 원래 회계 쪽으로 일을 하고 학교를 회계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회계를 하다가 토크콘서트를 들으면서 이쪽 말고 나도 약간 기획이나 홍보나 이런 걸 하는 게 좀 더 재미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런 홍보 활동도 해보고 싶어서 찾았었는데 원하던 회사는 떨어졌지만 비슷한 쪽을 갈 수 있어서 많이 배웠던 거 같아요." (1_대구)

취미에서 꿈이 되길 바람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꿈이죠.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하지만 그냥 최종 목표는 직업을 그 꿈으로 직업을 갖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과정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 뮤지컬 이런 테서 하는 그런 연극을 실제로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 부풀고 간 건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시간이 그걸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한 것도 있고 그런 와중에도 간략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되게 선생님들도 이끌어주셔서 만족했던 그런 수업이었어요." (12_대구)

영상제작일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영상 제작 같은 건 따로 학교를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제 개인 취미로 하고 있었던 일인데 이 기회가 없었으면 그냥 저는 다른 일 몸 쓰는 일이나 그런 쪽으로도 그냥 돈을 벌러 취직을 할 생각이었는데 마침 여기에 매칭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어서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관련 업무를 어깨 넘어라도 배울 수 있고 장비들을 제가 이렇게 다룰 수 있게 되어서 그런 점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8_대구)

진로 찾기

"기대했던 건 사실 이제 다 마찬가지로겠지만은 진로 찾는, 내 진로가 무엇일까 라는 게 제일 큰 목적이겠죠. 저처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한 번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때 당시에 저도 수당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20_서울)

진로 바꾸기 위해

"다른 직업에 대한 현실이라든지 현직자들의 경험 같은 걸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좀 있는 편이니까 인턴을 다시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런 제가 직종을 바꾸고 싶는데 그 관련 정보를 얻는 데는 그렇게 현직자한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게임 관련, e스포츠 관련해가지고 취업을 좀 하고 싶어서 그 쪽 관련 이제 정확하게는 게임 테스트 분을 저는 섭외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이제 확정했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19_서울)

요식업 쪽 관심

"다른 학과들은 제목만 보면 뭘 할지 알 수 있는 거였거든요. 가축 공예라든지 여행에 대한 뭘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잇클린이란 학과가 사람도 많이 뽑을 뿐 더러 깨끗한 먹거리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신청하기도 했고 제가 일을 요식업 쪽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서 같이 연계되어서 아마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17_대구)

유사 직군과 교류

"그 식사 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같은 공기업 직군들이나 그런 걸 좀 잘 커뮤니티 식으로 만들어줘서 원래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지원하는 게 타 과이거든요. 제가 원래 전공이 그쪽이 아니고 원래 화학과인데 전기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인프라가 몇 명 없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지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 관련 쪽은 아니라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4_광주)

2) 금전적 도움

□ 금전적 도움을 받고자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해당 지역의 프로그램 특성이 반영된 참여 동기라고 할 수 있음.

○ 즉,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는 지역에서 나타난 동기라고 할 수 있음.

취업기간 동안 금전적 도움

"제가 청년수당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진짜 딱 단순하게 청년수당이 오는데 대신 한 달에 한 번 보고서를 써내야 된다 그 수준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 프로그램 내용 같은 거는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홍보물을 받으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청년수당 같은 거를 신청했을 때는 아무래도 취준 생활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돈이 약간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껄끄럽고 약간 좀 돈이 좀 많이, 돈을 준다는 사실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 그까짓 거 쓰자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던 건데 " (13_광주)

3) 개인의 성격 변화

□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세 번째 범주는 개인의 성격 변화를 위해서임.

- 예를 들면, 사람들 앞에서 떠는 성격을 바꾸고 싶다가나, 장기간 미취업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일상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나가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새로운 것 시도와 자신감 채우기 위해

"일단 제가 프로그램을 선택했던 기준 중에 하나가 제가 안 해본 것들 위주로 해보고 싶어서요. 솔직히 이십 몇 년 살면서 목공을 해볼 일이 별로 없었고 게다가 제가 가족들이랑 살기 때문에 제가 뭐 저 혼자 있어서 전구를 갈 거나 선반을 만들어 보거나 이럴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뭔가 보람도 찾을 수 있고 내 생활을 잠깐 환기시키는 용도로 저는 생각을 했었고 어떤 결과물이 있다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다는 거가 너무 이제 취업이 오래 안되어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질 때 여가지고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좀 자신감을 채워 나가는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를 했고 기대감이 충족이 됐었죠." (15_광주)

사람들 앞에서 떨어져 바꾸고자

"제가 사람들 많은데 있으면 떨고 그런 게 심해가지고 모의 면접하면서 저를 바꾸고자 싶어서 이럴 때 해보지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해봤고 인생 보고서도 저를 다시 돌아보면서 자기 소개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원, 참여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예체능이어서 거의 작품 활동만 하고 이랬어서 딱히 그런 쪽에는 제가 아예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취업 구직 활동하다 보니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기회가 되었을 때 하면 좋겠다 싶어서 " (16_광주)

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

□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은 취업을 했는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았는가가 될 것임. 그러나 이 연구에서 진로 탐색의 효과를 미리 규정하지 않고 참여자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영향과 변화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했음.

□ 인터뷰 결과, 참여자가 경험하는 진로 탐색의 긍정적인 영향은 취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것에서부터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정서적인 변화까지 매우 다양한 범주가 나타났음. 이 연구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로부터 발견된 진로 탐색 프

로그래의 긍정적인 영향은 8가지임.

- 먼저 취업이나 진로와 관계된 긍정적인 영향은 일과 관련된 직무기술을 직접적으로 배운 것과 일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한 것, 진로에 대한 구체성이 생긴 것임.
- 다음으로 나타난 진로 탐색의 긍정적인 영향은 삶이 회복된 것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은 취업과 진로와 관계성이 직접적이지 않지만, 진로 탐색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과정적 목표가 될 수 있는 성취감과 자신감, 정서적 지지를 받은 것과 같이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과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무엇인가 해냈다는 성취감이나 두려워서 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효과성은 실제 청년들이 진로 탐색을 위한 과정적인 중요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여짐.
- 이외에도 상담의 효과성에서도 분석이 되었던 대인관계와 관련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것이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났음.

<표 4-11>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

구분	범주	개념
진로 탐색의 긍정적 효과	직무 기술 배움	일 경험함
		진짜 일 경험을 통한 기술 배움
		일 많이 배움
		직업 관련 진행 능력 생김
		자격증 취득
	일 배움 기회 제공	일 참여 기회를 제공한 점
		기회를 열어줌
		자신의 진로에 좋은 경험
	진로에 대한 구체성	다른 진로에 대해 관심 갖게 됨
		진로를 찾아 취업함
		진로를 찾는 데 도움
		계획 세우는데 도움
	삶의 회복	동기부여가 됨
		계획적 삶을 살게 됨
	성취감	연극을 완성해서 올릴 수 있었음
		마지막 결과물 전시가 뿌듯함
	자신감	두려워서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어서
		자신감 얻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변화
		자신에 대해 알게 됨
		타인의 삶을 보며 자신을 돌아봄
		시야가 넓어짐
	정서적 지지 받음	가족과 여유 있게 얘기 하게 된 점
		따뜻한 느낌 받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1) 직무기술을 배움

□ 가장 먼저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효과로 구분된 것은 일과 관련된 직무 기술을 배운 것에 있음.

○ 이러한 효과성은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 동기인 일 경험/진로 찾기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성취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참여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나 좋았던 점에 대해

서 이야기 한 내용은 일을 경험 한 것, 진짜 일 경험을 통해 기술을 배운 것, 원하는 분야와 비슷한 곳에서 일을 많이 배운 것, 직업과 관련한 능력이 생긴 것,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것 등으로 나타났음.

일 경험함

"그냥 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좋았던 거 같아요." (1_대구)

진짜 일 경험을 통한 기술 배움

"경험이죠. 정말 되게 본격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글 쓰는 것도 가르쳐 줬거든요. 거기서 책을 낸 작가분이고 이제 대형 출판사에서 일을 하다가 따로 나오신 분이 편집장 역할을 해가지고 인터뷰 글을 쓰는 방법. 그리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인터뷰 기사를 써보면 하나 하나 수정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경험들이 다 좋았습니다." (19_서울)

일 많이 배움

"저는 원래 회계 쪽으로 일을 하고 학교를 회계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회계를 하다가 토크콘서트를 들으면서 이쪽 말고 나도 약간 기획이나 홍보나 이런 걸 하는 게 좀 더 재미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런 홍보 활동도 해보고 싶어서 찾았었는데 원하던 회사는 떨어졌지만 비슷한 쪽을 갈 수 있어서 많이 배웠던 거 같아요." (1_대구)

직업 관련 진행 능력 생김

"인터뷰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쨌든 섭외를 하고 다 혼자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통해서 얻었던 게 뭐냐하면 인터뷰에 대한 어떤 경험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인터뷰를 적응할 수 있도록 굉장히 본격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좀 인터뷰 섭외가 원래 어려운 성격이었는데 거기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은 것 같아요." (19_서울)

자격증 취득

"일단 가장 긍정적인 건 자격증을 땀고 딴 게 가장 중요한 거 같고" (13_광주)

2) 일 배울 기회 제공

□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로 일 배울 기회를 제공한 점 또한 본래 프로그램의 취지나 참여자의 참여 동기와의 일치도가 높은 범주임. 이러한 범주적 특성은 참여자의 특성파도 관련성이 높음.

○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미취업 상태 기간이 길거나 취업과 관련한 진로 경험 기회가 적었던 대상자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따라서 이들에게 무엇이 자신에게 맞는지 다른 이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진로를 찾는지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일부 성취하는 것임.

일 참여 기회를 제공한 점

"이것은 사업에 대한 만족은 아니겠지만 그 일하고 있는 곳이 정말 제 생활패턴이랑 잘 맞아서 계속 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이 만족스럽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겠죠." (8_대구)

기회를 열어줌

"좋았던 점 같은 경우는 기회를 많이 열어줬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많이 열어줬다는 거랑 저는 실질적으로 참여는 안 했지만 제가 언제든지 원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저는 원하진 않았지만 다른 분야의 그 사람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나는 이쪽 분야에 있는 게 확실히 내가 이 분야가 맞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거냐 아니냐,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분야로 뛰어들는 것도 괜찮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장을 열어줬던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런 점을 느꼈었어요." (4_광주)

자신의 진로에 좋은 경험

"제가 그 꿈을 이뤘을 때 지금의 저를 생각해보면 그때 지금의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아티스트 그런 경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좀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눈을 좀 가지게 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 거 같아요." (12_대구)

3) 진로에 대한 구체성

□ 세 번째 범주인 진로에 대한 구체성도 프로그램 자체의 특성과 참여 대상자의 특성에 기인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른 진로에 대해 관심도 갖게 되고, 실제로 진로를 찾아 취업하기도 하며, 자신이 관심 가지는 분야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자신과 맞는 진로를 찾기도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함.

다른 진로에 대한 관심 갖게 됨

"제가 청년수당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진짜 딱 단순하게 청년수당이 오는데 대신 한 달에 한 번 보고서를 써내야 된다 그 수준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 프로그램 내용 같은 거는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홍보물을 받으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프로그램 자체도 만족스러웠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사는 말 그대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도 자기 목표가 뚜렷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뭘지 모르겠는데 한국사를 한국사 자격증을 따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무작정 그거를 쓰겠다고 한 거라 그래서 약간 진로 탐색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게 됐고, 아무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를 쓰고 그 공간을 대여해

주시니까 청년센터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센터나 아니면 약간 협동조합들, 청년 단체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게 흥보나 약간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거 체험을 하면서부터는 한 번 청년단체나 시민단체도 들어가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어요." (13_광주)

진로를 찾아 취업함

"일단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비슷한 e-스포츠 업종에 취업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도움이 됐다는 얘기겠죠.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관련해서 인터뷰 하는 커리큘럼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예의 같은 것들을 배우고 또 인터뷰 기사를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과정이 되게 길었어요. 몇 개월 단위의 프로그램이어서 이게 되게 배운 것도 많고 남는 것도 많고 저 개인적으로는 재취업도 성공했으니까 저는 대단히 만족하죠." (19_서울)

진로를 찾는 데 도움

"충분히 도움이 됐죠. 사실 여행사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잘못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 스펙이 엄청 높으신 분들이 저만 남자고 다 여성분이셨거든요. 스튜어디스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들으니까 이런 직업이구나 이런 것도 좋았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그런 것도 좋았고 사회복지사나 언론사 같은 분들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되게 그 진로 프로그램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많이 알고 지내자고 그러셨고 언론사 그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잠깐 제가 그 쪽 분야의 다른 것을 준비를 한 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0_서울)

계획 세우는데 도움

"저는 일단 구직활동 보고서 있잖아요. 그게 계획을 어쨌든 한 달간의 계획을 세워서 그걸 보여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게 너무 제 소재의 공부하는데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어요." (16_광주)

4) 삶의 회복

□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의도한 목표는 아니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준 것으로 나타남.

○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었던 어느 참여자는 우울증으로 의욕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타인의 삶을 보면서 자신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심적인 변화를 경험했음.

○ 다른 참여자 중에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 그 자체보다는 매달 참여자 보고서를 쓰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적인 삶을 살게 된 점을 긍정적인 변화

로 이야기 함. ‘삶의 회복’은 앞서 상담의 긍정적 효과에서 발견한 ‘삶에 대한 의지’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됨.

동기부여가 됨

"변화된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우울증 걸리면 우울증이 걸리면 다 무기력해지잖아요. 무기력해졌을 때 솔직히 인터넷만 엄청 붙잡고 살았어요. 인터넷 같은 데에 보면 사람들 우울한 이야기들 같은 것만 나와 같은 사람이 많다 약간 그런 동질감을 찾고 싶었던 거 같아요. 약간 그런 걸로만 그거 읽으면서 저도 더 우울해지고 그랬는데 약간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고 있다. 아무리 세상이 살기 힘들더라도 사람들은 좀 그만큼 더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를 그 분들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깨닫고 그 다음에 9시 넘어서까지 청년센터 직원 깨닫고 약간 그랬던 거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동기부여 같은 게 된 거 같아요." (13_광주)

계획적 삶을 살게 됨

"그냥 좀 계획적인 삶을 좀 더 하게 됐다는 거,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정 패턴 같은 거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원래는 월초, 중반, 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지난 달에 안 좋았던 점, 그 다음에 개선할 점 그런 보고서를 쓰도록 돼있는데 그걸 제가 세분화를 해서 기간을 정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거다 이런 식이 좋았던 거 같아요." (4_광주)

5) 성취감

□ 성취감은 무엇인가를 끝까지 해냈을 때 느끼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감정임.

○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성취감은 연극학교에서 하나의 연극을 완성하기 위해 각본을 쓰고 무대를 연출하고 연기를 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성과물 전시회를 통해 전시물들을 보며 느끼는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감정을 전함.

연극을 완성해서 올릴 수 있었음

"좋았던 거는 힘들었지만 이름에 걸맞게 연극을 한 번이라도 올려볼 수 있었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 완벽하진 않았지만" (12_대구)

마지막 결과물 전시가 뿌듯함

"저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맨 마지막에 보고회를 연단 말이에요. 그 보고회를 열 때 저희 거 말고 다른 분들이 해왔던 결과물들을 딱 진열을 해주고 그걸 읽을 수 있게 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게 가장 좋았던 거 같아요. 제가 해왔던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을 다 보여주는 거 자체가 저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해가지고 제거밖에 몰랐는데 저희가 그때 보고회 할 때는 음악을 선택하신 분들이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분들이 축하 연주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청년보고서나 내 인생보고서 쓴 분들이 책자가 나와서 그걸 전시

해놓고 읽을 수 있게 해줬던 말이에요. 그래서 딱 나만의 얘기가 아니고 저는 힐링 쪽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4개월 동안 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해왔고 저희가 공간을 빌려서 문화전당 쪽을 빌려고 했는데, 이 공간을 꼭 채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열심히 살았구나 해서 그게 좋았던 거 같아요." (13_광주)

6) 자신감

□ 진로 탐색의 긍정적 영향이나 효과성으로 나타난 여섯 번째 범주는 자신감임.

○ 자신감은 무엇인가 두려워서 해보지 못했던 것을 시도해봄으로써, 부족하지만 이제 다시 무엇인가를 해 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을 의미함.

두려워서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어서

"일단 제일 처음에 들었던 토크콘서트가 되게 인상 깊었고, 그때 많은 생각하는 시간을 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약간 청년센터에서 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생겼고 다양한 걸 그때 보면서 신청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걸 통해서는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거, 몰랐던 부분을 해보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못했던 부분을 직접 일을 해봤으니까 아직은 못 하더라도 그런 자신감은 생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1_대구)

자신감 얻음

"우선은 진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을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함으로써 내가 이런 부분에 조금 소질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괜찮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20_서울)

7)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 대인관계 개선은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서도 나타난 긍정적 영향임.

○ 대인관계에서의 개선은 누군가를 만나면서 자신을 돌아보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나타나는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타인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

"아까 같은 경우에도 얘기했지만 이쪽에 대한 정보는 정말 제가 문외한이라서 관심도 없었을 뿐 더러 생각하지 싶지도 않았던 주제였는데 자의건 타의건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는 제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런 거" (17_대구)

긍정적으로 변화

"제가 좀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실 그때 집안에만 쳐박혀 있고 약간 그런 사람이었는데 청년수당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약간 의무적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사람이 좀 제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13_광주)

자신에 대해 알게 됨

"아무래도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좋았던 거 같아요. 수업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나의 내면을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무서워하는지 이런 걸 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좋았습니다." (12_대구)

타인의 삶을 보며 자신을 돌아봄

"변화된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우울증 걸리면 다 무기력해지잖아요. 무기력해졌을 때 솔직히 인터넷만 엄청 붙잡고 살았어요. 인터넷 같은 데에 보면 사람들 우울한 이야기들 같은 것만 나와 같은 사람이 많다 약간 그런 동질감을 찾고 싶었던 거 같아요. 약간 그런 걸로만 그거 읽으면서 저도 더 우울해지고 그랬는데 약간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고 있다. 아무리 세상이 살기 힘들더라도 사람들은 좀 그만큼 더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를 그 분들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깨닫고 그 다음에 9시 넘어서 까지 청년센터 직원 깨닫고 약간 그랬던 거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동기부여 같은 게 된 거 같아요." (13_광주)

시야가 넓어짐

"제가 좀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실 그때 집안에만 쳐박혀 있고 약간 그런 사람이었는데 청년수당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약간 의무적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위들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야가 넓어지면서 정책 연구도 그 일안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청년수당 보고서 쓰려고 들어간 건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좀 더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돼서 제가 정책 연구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청년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거든요. 그것도 처음에 그 은행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청년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 존재를 알게 되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시야가 넓어지고 제가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게 해줘서" (13_광주)

가족과 여유 있게 얘기 하게 된 점

"긍정적인 것은 일단 제가 가장 느낀 것은 가족관계가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여유를 갖게 되니까 가족들한테 좀 여유를 갖고 대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짜증도 부리고 이랬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도 들어 보고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수당 받은 걸로 고기도 사 먹고 간식도 사먹고 하면서 좀 가족들끼리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된 점이 더 좋았어요." (15_광주)

8) 정서적 지지 받음

□ 정서적 지지는 프로그램 자체의 효과성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 담당자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음.

○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담당자로부터 보살핌을 받음으로써 따뜻한 정서적 지지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임.

따뜻한 느낌 받음

"밥은 여기 직원들이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같더라고요. 자리는 불편하지 않느냐 자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좁으면 이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충분히 그런 걸 설명해 주시고 저희를 배려하시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같고, 교통 같은 경우도 저는 북구에서 남구로 가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밥은 괜찮은지 그리고 부족하면 더 드셔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 직원 분들이 챙기려는 마음은 엄청 따뜻하게 받아 들였던 거 같아요." (4_광주)

다. 진로 탐색 효과: 만족도

□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남. 점수 범위가 7점에서 10점 사이임.

○ 만족도 점수의 범위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7점에서 10점으로 나타남. 아래 표는 인터뷰 참여자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점수와 그러한 점수를 준 이유에 대해 정리한 것임.

<표 4-12> 진로 탐색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와 이유

만족도 점수	만족도 높은 이유
8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얻음
7	돈이 안들었지만 유익함
10	수당이 도움이 많이 돼서/면접과 자기소개서에 도움
8	모임 경험이 괜찮음
7	금전적 지원과 다짐 방향 정하는데 도움
8	긍정적으로 변함/시야가 넓어짐
8.5	모임 지원과 자격증 지원이 좋았음
9	인터뷰 프로그램 참여가 좋았음
10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활동할 수 있어서
9	수당 지원과 삶의 원동력이 되어줘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만족도 점수_8: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얻음

"점수는 8점으로 주는데 왜 8점이나 하면 일단 수업이 2주마다 한 번씩 장소가 바뀌어서 계속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번거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거만 빼면 다른 건 딱히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것은 제가 이쪽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나 돼지를 키우면서 파괴된 환경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한 번 더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저도 고기보다는 채소 쪽으로 많이 먹게끔 설명도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17_대구)

만족도 점수_7점: 돈이 안들었지만 유익함

"저는 한 7점 정도. 사실 이제 뭐 그렇게 저희가 따로 돈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실 대단히 만족스러웠어요. 프로그램 자체는 되게 획기적이고 직업의 멘토를 정한다는 게 되게 좋았는데 저는 유익하기는 저 입장에서는 유익하기는 했지만은 뭐라고 해야 되죠? 크게 직접적인 도움은 안되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래서 마이너스 3점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쨌든 진로를 찾고 싶어서 이제 간 건데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그것을 듣고 확실하게 아직 좀 더 몇 번 더 듣고 싶다. 한 번 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명확하게 오는 게 없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20_서울)

만족도 점수_10: 수당이 도움이 되고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도움

"저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는 솔직히 수당 그게 제일 컸는데 이제 아무래도 미취업이다 보니까 그게 제일 컸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는 잘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면접도 하고 자기소개서에 추가할 것도 생기고 해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10점 만점이면 10점 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거든요." (16_광주)

만족도 점수_8: 모임 경험이 괜찮았음

"8점 정도겠죠. 아까도 저도 있고 있었는데 매칭해주는 것 이외에 중간 중간에 몇 번씩 교육을 이수해야 되거나 이수하는 것하고 처음에 참여자들끼리 모임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모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경험이었었는데 교육부분에서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시다." (8_대구)

만족도_7점: 금전적 지원과 다짐 방향 정하는데 도움

"저는 7점 정도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목표했던 금전적인 부분을 많이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쓰면서 제가 나름 준비를 했지만 달에 한 번씩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저희 목표를 달성한다거나 수정을 한다거나 다짐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7점, 프로그램이 약간 아쉬워서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았던 거 같습니다." (4_광주)

만족도_8점: 긍정적으로 변하고 시야가 넓어짐

"제가 좀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실 그때 집안에만 쳐박혀 있고 약간 그런 사람이었는데 청년수당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약간 의무적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사람이 좀 제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약간 좀 시야가 넓어지고 제가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게 해줘서 8점을 줬는데 사실 9점을 주고 싶었는데 사회 참여 저희가 자립 지원이

라고 해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청년센터 안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번 딱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8월 초창기에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뜸문뜸문 해지거든요. 그럼 처음에 선정을 안 한 사람들은 그 뒤로부터 한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점이 중간 투입이 가능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어려워서 마이너스 1점에서 8점." (13_광주)

만족도 점수_8.5점: 모임 지원과 자격증 지원이 좋았음

"8.5점. 프로그램 자체는 상담도 이해시켜주고, 모임도 있고 자격증 지원도 해주고 해서 좋았는데 조금 회사 사업장과 이제 청년의 생각이 차이가 많이 컸던 거 같다는 느낌이 좀 컸던 게 청년 입장에서는 사실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못했던 분야를 경험 하기 위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거잖아요.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런 한 명의 일 쿤을 얻으면서 청년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청년을 좀 많이 원했던 거 같아서 뭔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약간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 알아서 이 일을 다 해결하라 이런 느낌이 커서 그런 게 조금 배우는 것보다는 그런 게 좀 더 컸던 거 같아요." (1_대구)

만족도 점수_9: 인터뷰 프로그램 참여가 좋았음

"9점을 주고 싶고 1점을 왜 뺐냐하면 그니까 되게 김에도 불구하고 1차 인터뷰 이후에 2차 인터뷰까지 스케줄이 되게 빡빡해요. 그러니까 섭외하는데 시간 너무 걸리고 또 이렇게 인터뷰 진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쳐 나가떨어져 가지고 결국 수료를 못하는 사람들도 나왔거든요. 그 점 빼면은 저는 좋았어요." (19_서울)

만족도_10점: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활동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5점에 5점. (1점에서 10점 범위라면 10점?) 네. 활동적인 걸 제가 좋아하는데 활동적이더라고요 엄청. 그럴 수밖에 없는 수업, 커리큘럼.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하고 몸도 부딪쳐 가면서 활동도 많이 해볼 수 있는" (12_대구)

만족도 점수_9점: 수당과 삶의 원동력이 되어줘서

"저는 9점이에요. 일단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당,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리프레시 되는 또 다른 어떤 삶의 원동력처럼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는 제 뭔가 취업에 직접 관련돼 있지 않더라도 제 생활 자체에 있어서 뭔가 스펙을 올리는 느낌이었어서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15_광주)

라. 진로 탐색으로 인한 신뢰도 변화

□ 신뢰도 점수의 변화는 인지도와 홍보와 관련성이 매우 높음.

○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에서와 유사한 사유로 신뢰도 점수가 낮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결국, 신뢰도 향상은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표 4-13>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신뢰도 점수 변화와 이유

신뢰도 점수 변화	높아진 이유	낮았던 이유
5→8	참여해서	알고 있었지만 멀리서만 알아서
2→8	사업 참여가 괜찮아서	관심이 없어서
8→9	광주와 청년센터에서 변하려고 노력해서	-
5, 6→9	도움이 되서	나쁜 감정이 없음
0→9	프로그램 참여가 만족스러워서	몰라서
0→7	좋은 취지로 일해서	아무 생각 없었기 때문에
0→7, 8	프로그램 의도가 좋아서	이전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0→10	직접적 도움	몰라서
1점 미만→8.5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함
0→9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함	몰랐었기 때문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 아래는 신뢰도 점수와 신뢰도가 변한 이유에 대해 제시한 것임.

신뢰도 점수 변화: 5→8 멀리서만 알았다가 참여해서

"5점에서 8점 정도. 그 전에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았던 게 너무 많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만 5점을 쳤어요." (1_대구)

신뢰도 점수 변화: 2→8 잘 몰랐다가 참여한 사업이 괜찮아서

"전에는 이런 청년 지원 사업 같은 걸 잘 몰랐어요. 잘 몰랐고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당첨이 돼서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사업도 괜찮네 이런 사업을 좀 더 크게 하면 어떤가 청년들 대상으로 좀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2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후는 8점 정도." (12_대구)

신뢰도 점수 변화: 8→9 변하려고 노력해서

"저는 그 전에도 8점에서 9점으로 그 정도로 생각할 거 같아요. 8점에서 9점 정도 올라간 정도. 왜냐하면 지금 말고 공기업들을 다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서 지역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 나중에 혁신도시 전력 산업에 대한 공기업과 나머지 농업에 대한 공기업들이 몇 개 정도 있거든요. 그거를 시에서 협업해서 채용 박람회 같은 거를 해요. 그런 점에서는 꽤나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는 관련이 없긴 하지만 광주에 일자리를 만들려고 아직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최근에 쿠팡과 협업해서 2만 자리 만들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작용한 거 같고, 센터 같은 경우는 저랑 맞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스개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광주에 살려면 공무원을 하든지 아니면 일자리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걸 해야 된다. 공공의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면 아, 기아 자동차가 유명하잖아요. 기아 자동차에 들어가든지, 우스개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쪽은. 약간 그런 쪽

도 있긴 하지만 약간 좀 변화려고 노력은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_광주)

신뢰도 점수 변화: 5, 6→9 도움이 돼서

"10점 만점에 한 5, 6점. 참여하고 나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점 정도. (특별히 6점, 5점 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크게 저는 그런 나쁜 감정은 사실은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자신감을 되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그래도 수당을 받으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놓이는 게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뭔가 내 마음 뭐 어떤 돈적으로 여유가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신뢰도 점수 변화: 0→9 몰랐다가 프로그램에 참여가 만족스러워서

"서울시나 서울 청년센터의 모든 어떤 제가 프로그램을 들은 건 아니라서 전체적인 신뢰도를 말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제가 들었던 서울 잡스만큼은 아까처럼 저는 9점 주고 싶어요. 부족한 이유도 스케줄이 너무 빡빡했던 것 말고는 저는 만족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하기 전에는 혹시 이렇게 약간 신뢰도 이런 것들은 없었던 편이신가요?) 아예 인식 자체가 없었죠. 여기 많은 분들처럼.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청년센터 같은 게 그러니까 뭐 시 자체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런 건 있는지 알았지만 청년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뭘 한다는 것 자체에 인식이 없었어요." (19_서울)

신뢰도 점수 변화: 0→7 아무 생각 없다가 좋은 취지로 일해서

"원래는 아예 그냥 대구시에 대한 생각이 그냥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그냥 뭐 여기 뭘 하는지도 몰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없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한 7점 정도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 좋은 취지로 하는 일들이니까 아무래도 이번 일 겪고 나서 많이 좀 올라간 것 같긴 해요." (17_대구)

신뢰도 점수 변화: 0→7, 8 이전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가 프로그램 의도가 좋아서

"청년센터 자체는 아예 존재나 이런 것도 잘 몰랐고 청년이란 타이틀을 달고 하는 행사, 사업 이런 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의 이름만 많이 팔고 청년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이대가 많으신 분이 위에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위에 비위에 맞춰지기 식으로 운영된다고 많이 생각해서 공연업체나 아니면 축제 공연 이런 쪽에도 제가 옛날에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취업에 관련된, 취업이나 구직에 관련된 건 아예 몰랐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되게 운영되고 있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고요. 대구시라고 말하면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 이런 구직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파트는 생각지도 못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점수를 준다면?) 전에는 아예 없다가 지금은 한 7, 8점 정도겠쎬. 모자란 부분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 의도는 좋지만 운영하고 있는 당연하게도 존재하는 그런 미숙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쎬. 개선되어야 될 점이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7점, 8점."

신뢰도 점수 변화: 0→10 몰랐다가 직접적인 도움을 줘서

"전에는 솔직히 모르니까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예 그 쪽, 이쪽 지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해서 솔직히 처음에는 막 있는지 모르니까 0점에서 지금은 솔직히 되게 그래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래도 직접적인 도움을 이렇게 주는 게 좋잖아요." (16_광주)

신뢰도 점수 변화: 1점 미만→8.5 하는 것이 없다가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실제 참여 전에는 1점도 안 될 것 같아요. 시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청년들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게 전혀 뭐가 있지도 않았는데 이제 청년수당 2018년도에 참여하고 나 서 그 이후에 이제 뭐 현재 끝났지만 이제 맞춤형제작소 사업이라든가 혹은 교통 드림수당 사 업이라든가 이제 좀 청년들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긴 느낌이어서 8.5.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 어서 8.5점이에요." (15_광주)

신뢰도 점수 변화: 0→9 몰랐다가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함
"하기 전에는 0점이었어요. 뭘 해주나 했는데 한 다음에는 9점까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제 가 시라던가 청년센터 광주 청년은행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것들을 하는데 제가 몰랐던 거뿐 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많은 걸 하고 홍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많은 청년들 대상으 로 그 혜택을 수혜를 받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무래도 정보가 느리다거나 모른다거나 약 간 그런 식으로 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9점까지 올라갔어요." (13_광주)

마. 진로 탐색을 한마디로

□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표현한 내용은 상담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내용과 는 차이가 있음. 이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한 마디는 대부분 무엇인가를 배우는 과정에 대한 내용과 자신의 진로에 대해 안내해주는 안내관과 관련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룸. 이 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있음. 그러나 진로 탐색 프 로그램을 '꿀'이라고 표현한 인터뷰 대상자는 진로 탐색 자체의 내용보다는 금 전적 도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한 것으로 해석됨.

<표 4-14>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범주	한마디
배우는 과정	작은 학교
	연마하는 과정
	나를 알아가는 시간
	인생이다
안내판	안내판
	(표지판)
	(등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그 위를 달리게 함
새로운 시작	취업으로 가는 도중 작은 쉼터
금전적 도움	터닝포인트
	끝

주: 괄호로 표기된 한마디는 한마디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추출된 것으로 한마디와는 다른 개념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술하고 분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작은 학교

"작은 학교.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19_서울)

연마하는 과정

"저는 연마하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취업 진로, 제가 이력서를 제가 써가지고 수정 피드백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약간 좀 흔들리고 있던 거를 좀 표지판을 세워서 등대를 비춰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잡아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보 쪽만 생각했는데 청년단체나 청년센터나 그쪽으로도 일자리를 생각한 것처럼 그래서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돈 문제에 개의치 않고 약간 좀 제 스스로 연마했던 거 같아요. 이게 끝나고 사회에 나가도 괜찮도록" (13_광주)

나를 알아가는 시간

"그냥 저를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20_서울)

인생이다

"그냥 연극은 인생이다.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연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마주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주 안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12_대구)

안내판

"안내판. 사실 뭔가 새로운 걸 가는 길은 약간 풀썩 같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그런 모르는 길을 또는 이 일을 경험으로 선택을 했지만 진로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든 길을 알려주려고 해주는 것들이 좀 초년생들에게 안내판이 되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준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1_대구)

표지판, 등대

"저는 연마하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취업 진로, 제가 이력서를 제가 써가지고 수정 피드백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약간 좀 흔들리고 있던 거를 좀 표지판을 세워서 등대를 비춰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잡아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보 쪽만 생각했는데 청년단체나 청년센터나 그쪽으로도 일자리를 생각한 것처럼 그래서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돈 문제에 개의치 않고 약간 좀 제 스스로 연마 했던 거 같아요. 이게 끝나고 사회에 나가도 괜찮도록" (13_광주)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그 위를 달리게 함

"저는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저를 그 위에 타게 해줬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 같아요. 국토 같은 경우 달릴 경우 신호등 같은 게 있어서 멈추기도 하고, 제한속도 같은 게 있으니까 멈추는 과정이 조금 있어서 제가 나가는데 멈추는 과정이 있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면 제가 목표하는 지점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점인 거 같습니다." (4_광주)

취업으로 가는 도중 작은 컴퓨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최종 목표는 취업이었으니까 취업으로 가는 길목 도중 있는 작은 컴퓨터. 저는 컴퓨터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물론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수당도 현금으로 들어 와서 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족에게 쓸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취업에 관련된 어떤 학업이나 교재에도 결제를 할 수 있었고 일단 뭐 이 전에 얘기했던 인생 보고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 한 끼 한다거나 아니면 중간 중간에 목공이라든가 아니면 심리 상담 같은 것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제가 이 취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 컴퓨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이 가는 길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부스터를 붙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5_광주)

터닝포인트

"저는 터닝포인트,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생에, 다시 새로 뭔가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프로그램." (16_광주)

꿀

"딱 떠오르는 건 아닌데, 어차피 해야 되니까. 꿀이다로 할게요. 벌들이 만드는 꿀이요. 그러니까 달고 좋다는 뜻인데 왜냐하면 이수했을 때 받는 지원금이 실제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주위에 똑같은 상황인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인턴이나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보다 기회하고 시기가 맞는다면 이 사업을 신청하면 5개월만 지나면 그 수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8_대구)

바. 수당의 역할

-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서도 수당의 역할은 크게 프로그램 참여와의 관련성과 금전적 도움에 대한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금전적 도움은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거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장비 구입에 도움이 되었음.

□ 프로그램 참여와의 관련성은 프로그램 설계 방식에 대한 논의를 주로 했는데, 참여자 중 대다수는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

○ 수당 지급의 조건으로 참여했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만족스러워서 수당을 조건으로 하지 않아도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함.

○ 그러나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거나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면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참여자도 있음.

<표 4-15> 수당의 역할

범주	개념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 관련성	프로그램 참여에 도움
	프로그램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엄청난 동기
	다른 프로그램 체험 기회 제공
	다른 프로그램 탐색의 기회 제공
	프로그램 참여에 도움
	구직에 도움
	진로 탐색만 참여도 가능
금전적 도움	목표의 확실성에 따라 다름
	생활에 도움 됨
	장비 구입에 도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1)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 관련성

프로그램 참여에 도움

"사실 참여한 사람들 아마 대부분이 수당을 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제가 일을 그때는 하기 전이라서 약간 이제 이런 쪽으로 수당을 주니까 일 안 한 상태에서 수당을 주니까 신청 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돈을 보고 시작했지만 배운 게 많았어서 같이 하는 게 더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17_대구)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가 분들이 와서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 제가 체험해보고 저희가 이제 나머지 수당 받은 돈으로도 다음에 자기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수업을 듣고 가는 게 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9_서울)

"저는 프로그램을 그래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돈만 받으면 남는 게 없고 뭐라도 이런 어쨌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니까 어쨌든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 얻어가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16_광주)

"저도 수당이 없었으면 솔직히 신청을 안 했을 거 같아요. 만약에 프로그램의 홍보를 보여줬으면 약간 고민을 했을 거 같은데 만약에 그 수당이 아예 없었으면 진짜 말 그대로 취업 쪽의 프로그램만 고려하지 다른 것들은 아예 일절 생각을 안 했을 거 같아요." (13_광주)

프로그램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엄청난 동기

"이 사업을 신청하면 5개월만 지나면 그 수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수당을 매달 받는 게 아니라 다 이수하고 나서 한꺼번에 150만원 이렇게 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엄청난 동기부여, 끝까지 이수할 수 있는 동기부여입니다." (8_대구)

다른 프로그램 체험 기회 제공

"저는 체험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사실 돈만 주면 그냥 돈만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악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 노력 없이 그런 대가를 받으면 사실 쉽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여를 하면서 싫든 좋든 참여를 하면 그걸 듣게 되잖아요. 그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생각이 변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체험을 하면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1_대구)

다른 프로그램 탐색의 기회 제공

"광주 방식이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참여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강도가 높게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만 참여했기 때문에 잠깐만 짬을 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이 정도이고 그 다음에 그거 그 프로그램을 그 중에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더 좋은 거 같아요. 냉정하게 저는 안 했을 거 같아요. 근데 대신 제가 정신적으로 피폐했을 기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 소정의 교통비나 그런 거를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지원금을 낮게 주면은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텐데 그때 시기에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수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때 상황이 받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4_광주)

프로그램 참여에 도움

"같은 질문이라면 저는 이게 조건이 어려운 조건이 아니었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막 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랬지 상담만 한 번 받아도 됐었고 혹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목록 별로 있었기 때문에 그 중 하나만 그냥 잠깐 한두 시간 참가하는 것들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프로그램 참가 안 해도 됐었으면 약간 건설적으로 이수당들을 쓰진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15_광주)

구직에 도움

"그렇죠. 그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저한테 아까 앞에 서울에 두 분 말씀하셨다시피 그 프로그램이 저한테 그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맞다고 판단되면 저는 그것을 들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찾고 있는 직종하고 전혀 다른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면 있고 그것을 꼭

듣지 않아도 되면은 그건 안 듣고 제가 따로 이제 조직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그 수당은 구직에 도움이 된 거잖아요." (8_대구)

진로 탐색만 참여도 가능

"네. 이 프로그램은 솔직히 제가 이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하기 전이었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경험을 한 입장에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커리큘럼을. 그러면 참여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높은 수준일 줄은 몰라서 저는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팜플렛이나 이런 소식지만 보고도 수당 없으면 참여했을까요?) 네. 만약에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런데 저는 약간 상황이 재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제가 재취직을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재취직을 준비하는 똑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수당 없어도 했을 것 같아요." (19_서울)

"수당이 없더라도 참여 했을 거 같아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욕구가 좀 더 있으셨던 거네요?) 네." (12_대구)

"저는 (수당이) 없었어도 했을 거 같아요. 그런 분야를 안 해봤으니까 그걸 체험하고 참여하고 그런 게 좀 더 우선순위였어요." (1_대구)

목표의 확실성에 따라 다름

"말 그대로 수당만 지원해 주면 그 수당만 받고 목표가 확실하신 분들은 그 수당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면접을 보러 갈 때 양복을 사신다 라든지 교통비로 쓰신다 라든지. 근데 저 같이 어떻게 목표가 확고하지 않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존의 목표를 약간 좀 취소하고 다른 과도로 수정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돈만 주고 알아서 하라고 초원에 풀어놓는 그런 방식은 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아무래도 계기 마련이나 그런 거를 본인 의지를 끌어내야 되는데 의지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13_광주)

2) 금전적 도움

생활에 도움 됨

"저는 처음에 설명회 때 그렇게 포인트를 준다고 말을 해서 그냥 한 번에 쓸 수 있는 컴퓨터 노트북을 샀거든요. 그 노트북 살 때도 그게 이제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조금 은행이나 그 판매 하는 곳이나 이렇게 알아보고 서로 연락해보고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었어요. 지원금은 쓰기가 힘들었지만 그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5개월 동안 참고 견뎌서, 그러니까 사실 저야 계속 일하게 된 경우이지만 그것은 이 사업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5개월까지 하고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까지 이 사업이거든요. 다른 참여자들도 이거까지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이 지원금까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삶에 도움이 됐어요." (8_대구)

장비 구입에 도움

"일단 아까 제가 그 사업 간략하게 설명할 때 말씀 못 드린 게 이것을 5개월 동안 이수하면은 150만원을 줬어요. 현금으로 준 건 아니고 카드 포인트로 줘서 저는 장비를 살 수 있었고 그 수당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제 이 사업에 더 해야겠다.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사실 그냥 최저시급에 5개월 동안 일하는 인턴

이고, 인턴일 뿐이고 내가 원하는 기업에 정확히 매칭될 수 있는 확률도 없고 서류도 엄청나게 복잡해서 마지막에 이수 시에 150만원의 포인트가 없었다면 저는 이것을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8_대구)

사.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또는 추가 욕구⁴⁾

-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은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서도 홍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음. 홍보에 대한 불만 내용 또한 많은 청년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알려지기를 희망한다는 의미에서 홍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했다고 보여짐.
- 홍보에 대한 불만은 자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로에서 겪은 불만이라기보다 전술한 것과 같이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은 청년들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나온 것이므로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프로그램에 추가적인 욕구는 다음과 같음.
 - 이전에 참여했던 청년들과의 경험이 공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함. 이러한 이유는 센터에서 진행되는 내용과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맥락에서 제시한 욕구임.
 - 이 외에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기를 바란 것임. 특히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 쪽은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현재보다는 스펙트럼이 넓어지기를 희망했음.
 - 연속적인 프로그램은 중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기를 원함. 또한 모임의 참여자 유사성이 낮다는 점, 프로그램 참여 하기 전 사전 조율 시간이 너무 많다는 점, 공지가 명확하지 않고, 보고서 작성 시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대상자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했음.

4)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또는 추가 욕구 또한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지역 구분 없이 제시함.

- 지원 과정과 지원 홈페이지가 간략하게 정리되고 안정화 되었으면 하면 의견이 제시됨.
- 그 밖에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했으면 하는 것과 프로그램 이용 시간대도 다양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함. 이 외에 강사진이 다양했으면 하는 것과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더 늘어났으면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표 4-16>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또는 추가 욕구

구분	범주	개념(지역)
진로 탐색 불만	참여 시기	연속적 프로그램도 중간에 참여했으면 좋겠음
	미스매칭	모임의 참여자 유사성 낮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정보 명확히 제공	직전 참여자와 경험 공유를 해주었으면
		사전 조율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음
		공지 제대로
		보고서 작성 시 가이드라인이 없었음
		지원 과정 간략히
		지원 홈페이지 안정화
추가 욕구	홍보	홍보
	수당 사용 어려움	수당 사용하기가 어려움
	다양한 프로그램	좀 더 다양한 분야를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간대 제공
	강사진 다양성	강사가 다양했으면
	대상자 확대	대상자 확대
	횟수 확대	횟수가 아쉬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1) 불만

(1) 참여 시기

연속적 프로그램도 중간에 참여했으면 좋겠음

"프로그램이 단타성으로 끝나는 게 있고 연속성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연속성이 되는 프로그램도 중간에 끼어들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 같다는 거랑.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번 딱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는 제가 8월 달부터 들어갔는데 8월 초창기에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뜨문뜨문 해지거든요. 그럼 처음에 선정을 안 한 사람들은 그 뒤로부터 한가해 지거든요. 빠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1, 2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 점이 중간 투입이 가능하면 좋았을 텐데" (13_광주)

(2) 미스 매칭

모임의 참여자 유사성 낮음

"안 좋았던 점 같은 경우는 저는 공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이었지만 그 다른 주변에 저랑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은 다 공무원 준비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잘 몰라서 그러거나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이 공무원과 공기업에 대한 차이 개념 이해를 못 하셔서 그렇게 배정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4_광주)

(3)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정보 정확히 제공

직전 참여자와 경험 공유를 해주었으면

"보고서 쓰는 것도 가이드라인도 어느 정도 약간 가이드 선행 기수들, 하셨던 분들이나 경험 담이나 그런 걸 공유해주셔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예시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무 막연해서 어렵고 힘들게 했거든요." (13_광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 다른 회사를 갔으니까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는데 그런 거를 좀 소통하는 모임은 좀 적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조마다 조가 있는데 지금 한 번 만났고 지금 두 번째 만남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회사에서 했던 거를 보고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뭘 보고하라고 하니까 저도 약간 아무것도 없이 하라고 하니까 PPT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회사에서 생각하는 거에 다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소통하면 약간 의지도 되고 약간 응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는 좀 부족했던 거 같다." (1_대구)

사전 조율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음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청년센터에서 약간 좀 규정을 정해놓고 모임을 했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약간 왜냐하면 저희가 회의하느라 시간 소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청년센터랑 조율을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었고" (13_광주)

공지 제대로

"청년센터에 바라는 점은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잘 참여하진 않지만 홍보는 잘 되고 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딱히 없는데요. 굳이 하나 꼽자면 저는 ○○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걸 알았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로 제일 빌딩 뒤로 이전을 했던 거라고요. 그런 사실 같은 걸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못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4_광주)

보고서 작성 시 가이드라인이 없었음

"저도 마찬가지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보고서를 다달이 낼 때 가이드라인이 없는 그거예요. 저도 어느 성의껏 쓴다고 썼는데 이게 처음에 가이드라인이 없고 맨 처음에 아무 것도 없는 빈 표가 와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대략적인 예시만 좀 있었어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 텐데, 매달 이걸 보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전달에 만약에 제가 통과를 했더라도 이게 맞게 써서 통과한 건지 아니면 담당자 분이 이번 달은 처음이니까 이 정도이면 괜찮겠지 해서 넘겨주신 건지 그 선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적어주셨으면 더 편하게 했었을 거 같아요." (4_광주)

지원 과정 간략히

"처음에 지원할 때 서류라든지 지원하는 홈페이지가 좀 더 간략하고 안정화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8_대구)

홈페이지 안정화

"처음에 지원할 때 서류라든지 지원하는 홈페이지가 좀 더 간략하고 안정화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8_대구)

(4) 홍보

홍보

"저는 꼭 수당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진로 탐색 프로그램들을 이런 게 있다는 걸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랑 연결되는 건데 서울시나 그냥 어느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수당을 받는 사람들처럼 이런 게 있다.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안내 문자 같은 게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열려 있다는 점 그런 안내 같은 게 왔으면 좋겠어요." (20_서울)

"아무래도 방금 발언하신 분처럼 홍보 문제가, 저도 이제 취업 카페에서 그 정보를 알기 전까지는 이런 게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좀 문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좀 이것은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가 건의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도 홍보 문제가 가장 좀 급한 게 아닌가 개선해야 될 점으로 생각합니다." (19_서울)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을 못하고 넘겼지만 홍보 문제인 것 같아요. 거리에 보면 현수막이나 아니면 큰 전광판 같은 데 이런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아니면 나한테 해당되는지도 그냥 생각 못한 채 넘겼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정확한 방법은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광고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면 좋겠습니다." (8_대구)

"다들 얘기하셨어서 아무래도 이제 다들 알기가 어려우니까 다들 알기 쉽게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17_대구)

"그런데 저도 진짜 맨 처음부터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런 게 있는지 몰랐고 해서 그런 좀 더 저도 똑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16_광주)

2) 추가 욕구

(1) 다양한 프로그램

좀 더 다양한 분야를 제공해주길

"바라는 건 저는 체험할 수 있는 걸 좀 더 다양하게 분야를 좀 다양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너무 한정적인 거 같아서. 음악이요(음악은 지금 대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신가요?)없더라고요. 제가 찾아 봤을 때는 청년지원 사업 쪽에는 음악은 없어가지고."
(12_대구)

"프로그램 각각 자체보다는 좀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혹은 다른 기관들이랑 연계를 해서 그 스펙트럼 자체를 좀 넓혀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참가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것도 좀 부족했거든요. 어떤 연사라고 해야 되나? 좀 이름 있는 분들 모셔서 강의 같은 거 특강처럼도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취업직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좀 더 세분화 되어서 하면 저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15_광주)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간대 제공

"저도 조금 다양하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랑 시간대가 사실 안 맞아서 못 한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시간을 좀 다양하게 시간대를 했으면 좋겠는 거." (1_대구)

(2) 강사진 다양성

강사가 다양했으면

"강사님이 다양한 분들 더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두 분도 괜찮았는데 더 많이 있으면은 뭐 좋으니까 더 많이 그래 가지고 그 정도. 다른 건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17_대구)

(3) 대상자 확대

대상자 확대

"저는 좀 다른데 저는 홍보보다는 사실 청년들이 한 종류의 청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정들의 청년들이 있는데 사실 시에서 운영하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물론 소득요건이 가장 크지만 그 소득요건을 넘어도 애는 좀 청년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었거든요. 저도 한 번 2018년에 지원받고 나서 주변에 야 너 이거 비슷한 거 청년정책 나오면 이거 해볼래 이거 해볼래하고 알렸는데 자격이 되는 애가 없는 거예요. 잘 사는 애가 아닌데 잘 사는 애가 아니고 아직 취업이 되지 않은지도 오래 되었고 사정이 어려워 보이는 데도 자격이 안되는 거예요." (15_광주)

(4) 횟수 확대

횟수가 아쉬움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듣다 보니까 수업 진행하는 게 약간 되게 기다려지면서도 좀 더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 3번 이런 걸 바라셨다는 의미신지) 네, 맞아요." (12_대구)

2.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결과

□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특성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과 관련성이 낮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특성상 일을 경험해보거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프로그램 참여의 동기이기도 함과 동시에, 그 자체가 참여자에게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음. 이들에게 무엇인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과 경험해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임. 장기 미취업 상태거나 정보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참여자 표현대로 하자면, “구조의 동아줄”이자 “안내판” 역할이 되어 주기 때문임.

–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는 프로그램의 만족도나 공공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함. 그러나 신뢰도의 경우에는 낮은 점수의 원인이 프로그램의 낮은 질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인지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임.

○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높지 않은 성과 중 대인관계에서의 개선은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에서도 제시된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이는 참여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는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종종 발견된다는 것도 의미함.

–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문제 해결이나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여 필요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제3절 커뮤니티 지원 사업

□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별로 프로그램의 성격이 상이함.

○ 서울의 ‘어슬렁반상회’는 지역별 반장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임에 청년수당

을 받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임.

- 청년의 다양한 욕구, 상태를 반영한 다회차 소모임으로, 모임 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존감 향상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이에 개별 참여자들이 청년반장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임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수평적인 소통, 관계 맺기 경험의 기회를 갖는 방식임.

○ 대구와 광주에 경우는 참여자들이 기획하고 제안한 커뮤니티 활동을 센터에서 공간과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임.

- 기존의 커뮤니티가 프로그램화 하는 방식과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방식이 공존함.
-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활동기반 마련이 목적임. 이에 따라 당초 공통의 목적을 가진 청년 집단이 활동(창작, 교육 등)을 하면서 센터의 지원을 받는 방식임.

□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나 효과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함.

○ 인터뷰 참여자들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음.

〈표 4-17〉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정보

구분	나이	성별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대구 4, 서울, 4, 광주, 3)	21_대구	남
	22_대구	여
	23_광주	남
	24_광주	여
	25_서울	여
	26_서울	남
	27_대구	남
	28_대구	여
	29_서울	남
	30_서울	여
	31_광주	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1.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가.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

□ 대구시와 광주시

- 기존 영상제작 관련 모임 연계, 기존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기존 문화예술 분야 청년 커뮤니티 연계, 지역 청년들과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진로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동아리 모임 만들어 연계

- 지원금과 공간 제공의 이점 기대

- 서울시 참여 경로는 청년수당을 매개로 반상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경로임.

- 참여 동기는 소품 제작 클래스 참여,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감과 이야기 나누기, 어슬렁반상회 참여자 소개와 추천, 익명성과 수평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타인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

금전적 지원이 참여 동기부여

"제가 생각할 때 동아리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나이가 35부터 26까지 이렇게 나이대가 다양해지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돈을 지원 받으니까 동아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않았나." (21_대구)

<표 4-18>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 동기

구분	범주	개념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 동기	서울	소품 제작 클래스 참여
		고립된 생활 벗어나기 위한 공감과 이야기 나누기
		어슬렁반상회 참여자의 소개와 추천
		익명성과 수평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타인을 알아가는 기회
	광주, 대구	기존 영상 제작 관련 모임 연계
		기존 교육 프로그램 연계
		기존 문화예술 분야 청년 커뮤니티 연계
		지역 청년들과 함께 하는 공간 만들기
		진로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 동아리 구성 연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 광주, 대구, 서울 프로그램 성격 차이에 따른 참여 동기의 상이성과 함의

- 대구·광주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자체적인 모임이나 프로젝트 그룹을 형성한 청년들이 센터의 공간 및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고 참여.
- 서울의 경우 활동지원수당을 받는 청년들에게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써, 프로그램 성격의 다양성만큼 참여 동기도 다양.
- 프로그램의 목적과 참여 동기가 타 지역과 차별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도 달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나.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

□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영향의 범주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됨.

- 먼저, 심리정서적 지원, 공간 지원, 사회적 관계, 성취, 지역에 대한 애착과 신뢰 형성
- 이 중에서 심리정서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측면 당초 연구 설계 단계에서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인데, 다수의 인터뷰 참여자가 이와 관련한 효과를 진술하였음.

<표 4-19>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

범주	개념
심리정서적 지원	편안함과 위안
	자립심
	정신건강
공간	공간 자체의 효용
	활력 공간
사회적 관계	타인과 익숙해지기
	사회적 관계의 효용(사회적 자본)
	새로운 관계망 형성과 유지
성취	프로젝트 성취
	개인적 성취
	경험 축적, 자기계발
지역 신뢰, 애착	탈 OO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1) 심리정서적 지원

□ 심리정서적 지원은 편안함과 위안, 자립심, 정신건강 측면에서 보고됨.

○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친구들과 달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참여자들과의 소통이 주는 편안함과 위안

심리적 편안함

"뭔가 마음을 얘기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그걸 누가 물어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친한 친구 끼리도. 그런데 뭔가 진지하게 마음을 얘기하는 거를 좀 너무 진지하지 않고 무겁지 않게,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쉽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해주는 분위기,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잘 꺼낼 수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얘기도 많이 듣고, 다 각자의 그런 OO가 있구나 라는 것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서로 지지하고 지지 받는 그런 경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30_서울)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귀엽하는 얘기 이런 앗울한 얘기들을 나누게 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는데 그 분들을 만날 때는 내가 나누고 싶은 얘기만 나누고 깊은 얘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25_서울)

위안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취업하고 나서 회사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대화 주제가 약간씩 사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청년수당 대상자 분들은 좀 조건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비슷한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살아온 환경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공감이가는 부분도 있고 시간이 겹치는 것들도 있고 그런 데서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25_서울)

"사실은 저는 ○○대생이어서 이런 대외활동 같은 것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것을 하면서 뭔가 사람 만나는 재미라든지 아니면 학교 외에 대외 활동하는 재미가 느껴져서 사람이 밝아졌어요." (21_대구)

자립심, 의욕

"자립성이라고 할까요? 내가 좀 준비를 해야겠다 스스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뭘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도 같이 좀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31_광주)

정신건강

"정신건강으로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참여한 사람 중에 우울증이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게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나가라고 일단 햇빛을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집에 혼자 있으면 나가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리가 있는 모임을 잡고 어쨌든 우리끼리 약속이고 나가야 하나까지는 그 분도 똑같이 나오면서 어떻게든 나오면서 마음을 많이 열어주신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괜찮은 프로그램이지 않은 게 싫어요." (26_서울)

"일단 긍정적인 건, 확실히 심리적인 것에 있어서, 좀,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심했는데, 이걸 하고 나서,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따로 심리 치유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듣고 그

했어서, 그런데 또 마침 시기가 딱 잘 맞아서 그 모임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드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 (30_서울)

2) 공간 이용

□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공간 자체가 주는 효용이 있으며, 공간을 통해 얻는 효용을 보고함.

활력 공간

"디자인생킹을 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 가지고 장소를 물색하던 동안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운나그래에 가니까 예약은 할 수 없지만 장소가 비어있으면 쓸 수 있다고 해서 매 주 토요일마다 가서 그 공간을 활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진짜 대구의 청년 활력 공간이란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1_대구)

공간 자체의 효용성

"공간이 일단 생기면 그 공간에서 만들어 내는 것들은 되게 무궁무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는 저희가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사실, 제가 옛날부터 느꼈던 거지만 카페나 이런 곳들 외에는 되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좀 늘어나야 창의적인 활동도 하고" (27_대구)

3) 사회적 관계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같은 참여자 간의 관계와 청년센터 또는 프로젝트 관련 관계자들과의 교류 경험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 이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 학습

○ 이렇게 맺어진 사회적 관계가 주는 실질적인 도움(효용)

○ 프로그램을 통해 맺어진 사회적 관계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연결망(사회적 자본)이 형성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사회적 네트워킹)

"약간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어서 의무로 봐야 되는 사람 아니면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모인 사람들끼리 약속이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법도 배운 것 같고 사람마다 다른 성격을 이해하는 법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26_서울)

"내가 만약에 일반 청년들 문화예술 쪽에서 활동하지 않는 청년들과 만났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더 내가 소통을 해야 하는지 그런 언어적인 부분이나 가르치는 스킬 또 내가 습득, 그 스킬을 습득할 때 어떤 부분을 요구해야 되는지 또는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22_대구)

사회적 관계의 효용

"일단 낯은 건 다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다양한 분들 되게 많이 만났고,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는 여기에도 오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사람 살아가는 그런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28_대구)

"항상 학교에서 나가는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라든지 저보다 8살, 9살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니까 정말 동생처럼 너무 잘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많은 그런 저의 자기계발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취미생활을 하는데 자기계발이 되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21_대구)

새로운 관계망 형성과 유지

"관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1년 넘게 프로그램은 끝났는데 추후의 모임 같은 것들이 독서모임 같은 경우에도 같이 만나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제일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25_서울)

"지금 제가 만나는 분들 1년이 넘었는데 아직 나이랑 사는 곳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도 지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언제든지 그냥 모였다가 헤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만남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느끼면서 어린 아이들이 호의적으로 편견 없이 만나는 것처럼 어른들도 이런 모임이 가능하구나라는 마음 확장 같은 것들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25_서울)

사회적 자본(프로젝트 성과)

"저희끼리 영상을 아는 사람들끼리 영상을 만들기 보다는 네트워크에서 저는 오히려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많이 어떤 기대효과를 생각지 못하게 충족을 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주로 다루고자 하는 사안 5.18이 그것을 직접 겪었던 어른 세대가 아니라 젊은 청년분들, 청년분들 5.18에 관심 있었던 지역의 청년 분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면서 상영회나 또 사업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청년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같이 사업을 했던 같은 반짝 모임 1기에서 다른 같이 선정했던 다른 팀원 분들하고 같이 상영회를 하면서 그때 쉬스토리를 관심 있게 봐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쪽도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쉬스토리를 통해서 교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_광주)

"이것도 결국은 하나의 그런 사회적 자본이니까 인적 네트워킹도 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도움도 받고, 그래서 사람 자체를 얻어갈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21_대구)

4) 프로젝트 성과, 개인적 성취

□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은 경험과 개인적인 성취로 연결된 사례

○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고 지금까지 그 결실을 향유하고 있는 사례

○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얻은 직·간접적인 자산(경험 축적, 자기계발, 창업 등)

프로젝트 결실, 성취

"작품을 기획을 했을 때가 작년 2019년 1월에서 2월 정도고요. 그때 보통 쿠우단체, 그러니까 왜곡을 하는 쿠우 단체가 본격적으로 미디어에 노출이 된 시기였고요. 그래서 왜곡에 대한 어떤 인식을 변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가 궁극적인 기대 효과였습니다. 광주가 아니라 타 지역으로 가서 작품이 많이 알려지고 5월 여성들의 이야기, 또 왜곡을 반대하는 어떤 진실된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게 기대 효과였고요. 작품을 만들고 광주 지역에서도 상영을 했지만 다양한 영화제 출품에 대해서 지금 제작이 되니까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서울이랑 대구랑 여기 저기 지역에서 영화제에서도 상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3_광주)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이전에 거기에서부터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구나 하는 것에 만족감이 매우 높았고, 그 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성과까지도 매우 좋게 나오다 보니" (31_광주)

자신의 브랜드로 사업 시작

"대구가 청년들이 많이 머물지 않는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사실 그렇거든요. 주변에 제 진로도 저는 그때 결정을 했어야 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우연히 청년 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센터를 접하고,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길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진 않지만 다양하게 서포트를 해주는 이런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 브랜드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게 일말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28_대구)

경험의 축적, 자기계발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제 이력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이런 경험을 적을 수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제 그냥 단순 취미가 아니라 정말 자기 계발되고 인생에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런 게 가장 좋았고" (21_대구)

5) 지역에 대한 애착과 신뢰

□ 자신이 성장해서 살아오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신뢰가 생긴 것은 이 프로그램의 매우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음.

○ 커뮤니티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상담,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사업도 비슷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비단 커뮤니티 지원 사업만의 성과로 볼 수는 없을 것.

○ 그럼에도 서울과 구별되는 광주와 대구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 특성상(참여자 자신이 기획하고 운영) 활력 정도가 높은 청년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음.

-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거나, 서울 등 외지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경우 경제활동 지역을 선택할 능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이들이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계기로 지역에서 정착할 유인을 찾게 된 것은 프로그램의 매우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음.

○ 서울 참여자의 경우에도 대체로 서울시 혹은 청년센터에 대한 신뢰도가 큰 폭으로 상승.

지역 정착의 유인 발생

"사실은 옛날에는 대구를 빨리 떠나서 경기도나 서울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대구시에서도 뭐 하는 거 많네 생각보다 지방이라도 문화생활이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는 사실은 무조건 대구를 뜨고 싶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대구에 살고 싶다." (21_대구)

지역으로부터 도움 받는다는 느낌

"사실 그 전에는 제가 대구에서 쪽 자라왔지만 대구에서 뭔가 보호 받는다거나 뭔가 내가 대구 사람인데 대구사랑 뭐다 이런 연결 고리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느껴지지도 않고. 느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 시나 이런 센터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구나를 느끼면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대구에 다시 오길 잘 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28_대구)

청년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도시로 재인식

"그 전에는 이런 정책이 있는지 잘 몰랐어서 우리지역에 청년들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구나 싶었고 광주 우리 지역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9점 정도. (사회자: 9점 정도로 올라갔고 그 전에는?) 그 전에는 5점. (사회자: 그 전에 낮은 이유는?) 굉장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된 재미없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24_광주)

지역 청년들의 진로를 위한 발판

"청년수당, 교통비 지급, 주거 지원 등, 이 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지원이라던가, 정책, 사업, 공모전 등등, 뭔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혹은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없었는데 대학교 말고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발판이 이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지역에서는 정말로 뭔가 여건이라던가, 환경을 동등하게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오지 같은 위치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겠구나." (31_광주)

지역에 대한 신뢰도 상승

"아까 연대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뭔가 연대감을 많이 느끼고, 좋은 관계들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심했는데, 국가가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좀 돈 받고,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니까, 좀 그래도 신경을 써 주긴 하네? 이런 사회에 대한 신뢰 그런 게 좀 높아진 것 같아요." (30_서울)

"지역의 청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공통된 의식이 지역을 탈출 하는 거거든요. 특히 대구도 마찬가지로, 탈 대구가 되게 중요하고, 사실 시인을 하자면 저도 탈 대구를 하고 싶어서 작년에 서울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돼서 1년 간 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신뢰도가 낮다기 보다는 조금 더 환경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역보다는 이 서울이라는 곳을 부인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돌아 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점수는 9점으로 올랐는데" (27_대구)

다. 커뮤니티 지원 효과: 만족도

□ 커뮤니티 지원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남. 점수 범위가 최저 5점에서 최고 10점 사이임.

○ 인터뷰 참여자 11명 중 1명이 5~6점으로 낮은 점수를 매긴 반면, 나머지 10명의 점수 분포는 8점에서 10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

- 특히, 10명 중 5명이 10점, 4명이 9점에서 9.5점으로 높은 점수 부여

<표 4-20> 커뮤니티 지원 사업 만족도 점수와 이유

구분	만족도 점수	만족도 높은 이유
만족도 점수	10	프로젝트 성과에 도움
	10	네트워킹, 지원금
	8	(시간 선택 제약, 서류 작업 피로도)
	5~6	(시간 제약, 목표 상충)
	9	프로그램 자체 (갈등 관리)
	9	기대 충족 (리더십)
	9.5	공간 제공
	10	기획 모임 참여
	9	-
	10	자연스럽고 가벼운 분위기, 상호 지지
	10	사업 결과 만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만족도 점수_10: 과정과 결과에 만족

"새로운 걸 배워 나가는 친구들이 거기에서는 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이전에 거기에서 부터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구나 하는 것에 만족감이 매우 높았고, 그 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성과까지도 매우 좋게 나오다 보니" (31_광주)

만족도 점수_9.5: 공간 제공과 활용의 효용

"사실 저도 청년 당사자지만,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게 말은 좋지만 그럴 공간이 잘 없잖아요. 특히 서울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도 더더군다나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의식적으로라도 만들고 그런 공간들이 조금 확장되는 게 저는 좋아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_대구)

라. 커뮤니티 지원으로 인한 신뢰도 변화

□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 대부분 지역사회 혹은 청년센터에 대한 신뢰도가 큰 폭으로 상승

○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지원이 부재하다는 인식을 대체로 가지고 있다가,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혹은 청년센터의 청년에 대한 역할을 인지하면서 신뢰도가 큰 폭으로 상승.

<표 4-21>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신뢰도 점수 변화와 이유

구분	신뢰도 점수변화	높아진 이유	낮았던 이유
프로그램 종료 후 신뢰도 변화	5 ⇒ 10	정책, 사업의 긍정적 변화	저조한 문화예술 수준
	5 ⇒ 9	지역 청년 지원 프로그램	청년 활동 제한된 재미없는 도시
	0 ⇒ 9	프로그램 만족도	
	1 ⇒ 10	다양한 경험 기회, 정신건강 지원	
	5 ⇒ 9	수당, 정책 발전, 기대 충족	청년정책 미인지
	5 ⇒ 9	지역 청년정책	제반 조건
	0 ⇒ 8.5	지역 청년정책	지역과 연결고리 없다는 느낌
	2 ⇒ 7	정신건강 개선	
	2~3 ⇒ 7~8	수당, 프로그램 지원	기본적 불신
	5~6 ⇒ 7~8	지역 청년정책	지역 청년정책 부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신뢰도 점수 변화: 5 → 9 재미없는 도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도시
 "그 전에는 이런 정책이 있는지 잘 몰랐어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구나 싶었고 광주 우리 지역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9점 정도. 그 전에는 5점 굉장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된 재미없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24_광주)

신뢰도 점수 변화: 5~6 → 7~8 지역 청년들의 진로를 위한 발판
 "청년수당, 교통비 지급, 주거 지원 등, 이 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지원이라던가, 정책, 사업, 공모전 등등, 뭔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혹은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없었는데, 대학교 말고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발판이 이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지역에서는 정말로 뭔가 여건이라던가, 환경을 동등하게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오지 같은 위치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겠구나." (31_광주)

신뢰도 점수 변화: 0 → 9 지역에서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의 변화
 "사실은 옛날에는 대구를 빨리 떠나서 경기도나 서울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대구시에서도 뭐 하는 거 많네 생각보다 지방이라도 문화생활이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는 사실은 무조건 대구를 뜨고 싶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대구에 살고 싶다 그래서 한 9점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0점이었어요. 떠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9점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21_대구)

신뢰도 점수 변화: 1 → 10 프로그램을 알아가는 만큼 얻는 것이 많아져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전에는 전혀 이런 모임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저희 센터에서도 그렇고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킹을 확장하는 방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청년대학이라고 그래 가지고 청년대학처럼 아마추어 누구나 학과장이라든가 수강생을 모집해서 대학 강의처럼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많이 확장시켜 주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또 서울시에서 정신건강 같은 거 정신 상담이라든가 사정 같은 걸 따져가지고 누군가를 좀 돌봄에 대한 식습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을 적에는 1점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알아보는 만큼 얻어가는 게 많아서 1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25_서울)

마. 커뮤니티 지원을 한마디로

□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표현한 내용은 대체로 프로그램이 목적하는 바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음.

○ 사회적 관계망,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 효능감, 에너지, 기회 등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음.

<표 4-22>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구분	내용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한마디로	‘거미줄’ (사회적 관계망)
	‘퍼즐’ (다채로운 조각(개인)이 완성하는 퍼즐)
	‘액체괴물’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그림’ (각개의 인생이 그려 낸)
	‘에너지’ (서로에게 힘)
	‘빙산의 일각’ (청년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마음’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연결’
	‘안정’ (금전과 심리), ‘효능감’
	‘제 발로 다시 들어간 학교’ (연대감)
	‘기회, 발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거미줄

"저는 거미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두 개밖에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았지만 ○○님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 보면 이 프로그램이 하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중복 가능해서 내가 A라는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을 B에서 만날 수도 있고 B에서 만난 사람을 C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되게 인간관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인맥을 그런 식으로 넓혀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거기서 공통적인 관심사나 하는 일 바라는 꿈이나 직업 같은 거 같은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모임 외에서도 사적인 만남을 갖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그런 거 보고 거미줄이라고 생각했어요." (26_서울)

액체괴물

"약간 잘 안 떠오르는데요. 손에서 가지고 그 뭐라고 하지? 약간 젤리처럼 조물딱거리는, 그러니까 마음에 안정을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자: 액체괴물?) 네. 그런 건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재료로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 수 있고 그냥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손에서 그냥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액체괴물 같은....." (22_대구)

효능감

"효능감이요. 무언가를 만들 수 있구나, 해낼 수 있구나 라는 감정. 자존감이랑 비슷한데 저는 효능감이라는 단어로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_대구)

빙산의 일각

"저는 빙산의 일각이 그냥 생각이 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완벽하게 보여 주지는 않더라도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 사업은 빙산의 일각, 일부분이고 앞으로 광주 청년센터의 정책이 더 다양하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단어가 생각이 방금 난 것 같아요." (23_광주)

제 발로 다시 들어간 학교, 재입학

"저는 다모디라를 하면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 함께 이루어 나간다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오랜만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 싫고, 학교 다닐 때는 빨리 졸업하고 싶고 그랬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소속감, 연대감을 느끼면서, 조금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내심, 그게 또 엄청난 규율이 있고 내가 이래야만 한다는 그런 압박 아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들어간 단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존재할 수 있구나 라는 안정감도 좀 느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굳이 표현하자면 제 발로 다시 들어간 학교, 재입학" (28_대구)

바. 수당, 지원금의 효과

□ 수당이 프로그램 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서울 참여자들에게만 질문하였음.

○ 서울시의 경우 수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므로 기본적으로 수당이 프로그램 참여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보임.

○ 참여자의 다수가 향후 수당이 없더라도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에서 프로그램 자체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수당이 아닌 커뮤니티 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는 광주와 대구의 경우 지원금이 프로그램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공히 보고하고 있음.

○ 지원금이 실제 프로그램 운영의 경상운영비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프로그램 참여나 연계 측면에서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부적합 함.

수당은 게이트웨이 역할, 수당 없어도 참여할 의향

"네 만약에 수당을 받지 않았으면,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있다는 것조차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그런 청년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수당을 받으면서부터니까, 수당을 받으면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 연락도 오고,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찾아보고, 이런 게 지원이 되는구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만약에 수당이 없었으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애초에 신뢰가 없으니까 참여할 생각을 전혀 안 했겠죠. 그냥 별로 재미없겠지 이런 생각으로" (30_서울)

"저도 이런 프로그램들 알고 있기 전까지는 그런 거 딱히 생각 없었는데 어쨌든 청년수당을 받음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모습들이랑 알게 된 사람들 이런 거 전반적으로 보면 수당이 없어도 참여할 것 같아요." (26_서울)

"이런 활동이나 지원 사업이 일회성이라는 소모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속성의 부분에서 어쨌든 어슬렁반상회나 이런 프로그램 자체도, 처음에는 지원금을 받고 나서 6개월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거로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참여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꼭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지원금은 못 받더라도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서" (29_서울)

프로그램 이해에 기반한 지원금 만족

"저희는 금액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는 전반적으로 큰 개선 사항이라거나 불만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고요.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이미 저희는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이 예산은 여기에는 사용할 수 없을까? 그런 부분도 이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더 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끼리 끝나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청년센터에서도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왔었습니다. 우수하게" (31_광주)

사.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또는 추가 욕구

□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의 지역별 특성상 불만과 추가적인 욕구가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는 측면이 있음.

○ 서비스 제공자(센터, 매니저)와 참여자의 관계가 서울은 광주와 대구와는 다른 측면이 있음.

- 서울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청년반장)와 참여자간의 관계가 발생하고, 광주와 대구는 커뮤니티 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간접 지원과 관련해서 센터와의 관계가 발생함.
- 또한 서울은 같은 프로그램 참여자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함.

□ 불만은 공간 사용, 행정적인 소통, 참여자 간 관계, 홍보 등에서, 추가적인 욕구는 커뮤니티 다양성, 사후 지속성 등에서 나타남.

<표 4-23>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또는 추가 욕구

구분		내용
불만	공간	공간 제약에 따른 시간 배정의 제약
		청년 밀집지역 공간 부족
	행정	서류작업 피로도
		공문 시행(행정적 소통)
	관계	커뮤니티 내 리더의 역량
		참여자 간 갈등관리 미흡
추가 욕구	홍보	다양한 청년 참여 기회 제약
	커뮤니티 확대	공동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규모 확대(참여 기회 보장)
	프로그램 전문성과 다양성	전문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다양한 전문 기관과 연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사후관리	프로그램 지속 기회 제공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1) 불만

(1) 공간

공간 제약에 따른 시간 배정의 제약

"연극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 자체를 청년센터에서 정해준 느낌이 있어 가지고 시간대가 안되는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21_대구)

공간 부족

"이제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간을 쓸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원의 일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대구 곳곳에 여러 공간들이 생기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한 군데 공간밖에는 없다는 거. 이게 경북 대학교 근처에 있는데요. 사실 대구에는 굉장히 많은 대학교가 있어서 그 대학교 옆이나 시내 중심가나 이런 데 한 군데씩만 더 있어도 지역 별로 또는 시간대 별로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많은 청년들이 그런 것이 아직 조금 더 시도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_대구)

(2) 행정적 소통

행정적 소통

"제가 사업 대표고 연출이다 보니까 기관에 컨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문을 여기서 보내 주실 때가 많은데 많다고는 사실 저희가 어느 기관하고 컨택을 하려면 항상 청년센터에서 공문을 먼저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 사업 담당하시던 청년센터 선생님께 제 머리 속에 있는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제가 처음에 공문에 적으려고 했던 내용이 아무래도 제가 직접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제 얘기를 듣고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완벽하게 내용이 전달이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공문을 보내는 게 편해서 보내면 어떤 컨택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청년센터에서 얘기를 들을 때도 많아서 영상 작업을 하면서 소통을 행정 쪽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적이 몇 번 있어서 그게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_광주)

(3) 관계

커뮤니티 내 관계

"아무래도 사람간의 일이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지 않는 규칙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 간에 뭔가 상처를 받고 뭔가 강요받는 부분 같은 것들이 조금 있고 누군가가 독점을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거나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와가지고 자기 얘기만 펴 붓고 가는 시간 같은 것들이 조금 상처가 되는 경험도 또 있어서" (25_서울)

리더의 역할

"모임 하나하나마다 그것을 이끌어주시는 스텝 분들이 계시는데 스텝 분 한 분이 많이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 스텝 부분이었는데 서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려면 그 사람들을 묶어주고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었는데 그 분이 약간 그것을 서툴러 하시고 그러다 보니 조금 그 모임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었는데" (26_서울)

2) 추가 욕구

공동 프로그램 운영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동 행사나 SNS 마케팅 그런 거 배우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공통적으로 모이는 행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긴 했었어요." (24_광주)

프로그램 참여 대상 확대

"프로그램을 할 때 보통 한 15명 모집하는 거에 80명 정도 지원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자체에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다른 센터로 보내 드려야 할지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어 가지고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정말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먼저 따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참여율 같은 경우가 떨어지는 부분이 나중에는 생기게 되는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25_서울)

다양한 욕구의 청년들 참여 기회 확대

"되게 애매한 사각 지대 청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돈은 버는데, 그 기준 선에 근접하게 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라는 엄연한 것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데, 아예 쉽게 말해서 실직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세후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해서, 이런 부분들에 되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을 매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이런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딱 소득으로 못 박아 두니까. 잠재성이 있고 정말 필요로 하는데, 그 소득분위에 막혀서 번번이 신청을 못 하는 청년들이 좀 있지 않나" (27_대구)

프로그램 지속 기회 제공

"회차가 조금 더 길면 재미있겠다. 아무래도 7회로 끝나다 보니까, 7회를 하다 보면 누구는 안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모두가 7회를 다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7회 동안 운이 좋으면 굉장히 친해지는 거고, 운이 좀 안 맞으면 그냥 그렇게 7회만으로 끝나 버리는, 그런데 저는 운이 좀 좋았어서, 저는 1기랑 3기만 참여 했는데도 한 자리에 다 모여서 놀 수 있을 정도로 운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이 7회 만으로는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후에 모임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했어요." (30_서울)

"금전적인 지원도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바랄 수만은 없는 부분이고,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청년들끼리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나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지속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9_서울)

2.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결과

□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음.

○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측면에서는 공간 제공,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유지, 프로젝트 성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측면에서는 심리정서적 지원, 지역에 대한 애착과 신뢰의 형성 등을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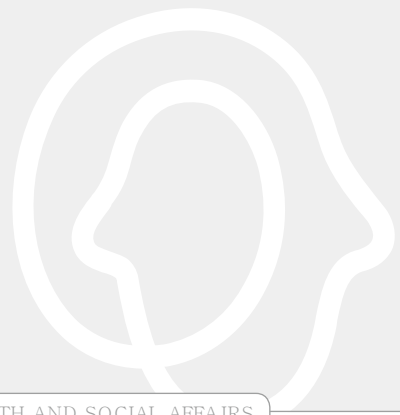
□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크고 작은 문제점들도 존재함.

○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보다 다양한 대상들이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서 유발된 욕구로 볼 수 있겠음.

○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도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임.

－ 대구의 ‘다모디소’는 이 같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입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서비스 제공자와 참여자 간의 관계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참여자들 간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서울시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상의 디테일(참여자 내 리더 역할, 반장 역량 등)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임.



제 5 장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 평가

제1절 운영 방식

제2절 조직, 인력 및 인프라

제3절 역할 및 방향성

제 5 장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 평가

- 본 절에서는 지역청년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달체계(이하 지역청년센터)의 운영 방식과 조직·인력 등의 인프라, 역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추진체계가 본격적으로 체계화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지역에서 청년정책을 수행해온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지난 5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지역 청년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분석은 향후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
- 청년정책 집행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모범사례로서 지역청년센터의 사례를 제시하고 향후 역할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함.
- 본 연구는 지역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의 조직 인프라와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서비스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지역청년센터의 운영 방식, 인프라(조직, 인력 및 자원), 역할 및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함.

〈표 5-1〉 지역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이하 지역청년센터) 분석틀

구분		분석 내용
운영 방식	설치·운영 및 관리	• 설치 기준 및 위탁관계 • 관리·감독 방식
	공공과의 관계	• 지자체-지역청년센터의 역할 분담 • 지자체-지역청년센터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구조 • 지역청년센터의 자율성 수준
	연계·협력	•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 지역사회주민(청년) 참여
조직, 인력 및 자원	조직 구조	• 사업과 조직 구조의 조응 • 조직 내 업무 및 인력 배분의 적정성 • 조직 내 업무에 대한 조정 및 협조
	인력	• 인력의 전문성 • 인력에 대한 처우 • 인력자원 육성 및 개발
	예산 및 기타 자원	• 예산 현황 • 공간, 시스템 등의 유·무형 자원
역할 및 정체성	역할	• 주요 기능 및 핵심 업무 • 주요 기능 및 핵심 업무 수행의 개선사항
	전망 및 기대	• 지역청년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역할 전망 • 지역청년센터의 방향성

○ 전달체계 분석을 위해 문헌 검토와 종사자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함.

- 법령 및 조례, 사업 지침/규정/가이드라인, 시설 내규, 조직도 및 업무분장, 인력 현황(상근/비상근, 정규직/비정규직, 자격 등), 예산 자료, 관련 정책 문서 등의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 광주, 대구, 서울 지역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표 5-2〉 지역청년센터 종사자 간담회 정보

구분	간담회 참여자 구성	인터뷰 내용
광주청년센터	• 팀장급 이상 4명 • 팀원 3명	• 팀장급 이상 인터뷰: 지역청년센터의 운영 방식, 조직·인력 등 인프라, 역할 및 정체성 • 팀원 인터뷰: 조직·인력 등 인프라, 역할 및 정체성
대구광역시청년센터	• 팀장급 이상 3명 • 팀원 3명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팀장급 이상 4명 • 팀원 3명	

제1절 운영 방식

1. 설치·운영 및 관리

□ 법적 근거

- 광주, 대구, 서울시 지역청년센터는 지자체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기 시작함.

〈표 5-3〉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 연혁

구분	연혁
광주청년센터	2015년 6월 광주청년센터 개관 2017년 12월 교육문화공동체 결 위탁계약 종료 2018년 1월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위탁계약 체결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16년 4월 (사)대구사회연구소 위탁계약 체결 2016년 7월 활동그레(1센터) 개소 2019년 4월 다운나그레(청년활력 공간) 개소 2019년 6월 공감그레(2센터) 개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6년 7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개관 2017년 8월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 2018년 7월 자치구 청년지원모델 시범운영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지역청년센터 종사자 간담회 결과.

- 광주, 대구, 서울시 지역청년센터의 설립 및 운영은 지역별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함.
 - 광주시 조례는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과 관련하여 청년센터 설치 운영을 명시하였고, 대구시 조례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청년센터를 설치 운영함을 명시함.
 - 서울시 조례는 청년지원기관으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를 명시하고 청년관련 사업과 자치구별 청년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제시함.
 - 대구와 광주시 모두 청년센터의 업무 범위는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청년 능력 개발 등을 위한 교육, 청년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 그 외 청년정책 필요 사업이고 청년센터 기능과 유사 혹은 관련이 있는 사업의 위탁이 가능함.

〈표 5-4〉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 설립 근거 및 업무 범위

구분	광주청년센터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제10조제1항에서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해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함을 명시 제10조제3항에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가능함을 명시	제12조제1항에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함을 명시 제12조제2항에서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가능함을 명시	제10조제4항제3조에서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함을 명시 제20조제1항에서 청년지원기관으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를 명시
업무 범위	제10조제2항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제5항 ⑤ 시장은 청년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청년센터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제3항 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 기능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을 청년센터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4.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교육·평가 5.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10조제4항에서 청년센터 민간위탁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 제18조제1항에서 다음의 사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양성 2. 청년 부채 및 이자 상환, 주거 복지, 취업 지원 등 청년 생활 안정 및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 제19조 청년정책 시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명시	제12조제2항에서 청년센터 민간위탁시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 제16조에서 청년단체, 청년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명시	제20조제6항에서 청년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함을 명시 제23조에서 청년단체, 청년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및 기관, 청년기업 등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명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68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대구광역시조례 제54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358호).

□ 설치 기준 및 위탁관계

○ 광주, 대구, 서울시 지역청년센터는 모두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공공서비스 공급은 행정관리 주체에 따라 직접 관리(행정부서관리, 사업소), 혼합 관리(책임운영기관), 간접 관리(공사, 공단, 제3섹터, 민간위탁 등), 민간관리 등으로 분류됨(이상철, 2002).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은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으로 구분 가능함.

－ 전국 지자체 82개 청년센터 중 절반 이상인 44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그 다음으로 직영센터(34개),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사업(12개)의 순이었음(김종진, 박관성, 2020).

•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보면 중 15개의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3개 센터를 제외하면 12개의 청년센터가 운영 중.⁵⁾ 이 중 공공위탁으로 운영 중인 대전, 세종, 경남 3개 지역을 제외한 9개 지역의 청년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⁶⁾

－ 대구광역시청년센터와 광주청년센터는 시설(청년센터)에 대한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방식인 반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경우 사업에 대한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방식임.

○ 위수탁 계약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광주청년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2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수준.

－ 사업 운영과 고용관계가 위수탁 기간에 종속됨에 따라 기관과 인력이 체감하는 불안정성이 있음. 청년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안정적 운영의 근거를 필요로 함.

5) 김종진, 박관성(2020)은 광역 단위에서 청년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없음’)으로 경기, 강원, 충남, 경북을 꼽고 있으며 대전은 미설치 지역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있음’에도 분류하지 않아 누락된 것으로 보임. 대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26조)고 되어 있으며, ‘청춘인포’가 청년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조례에 의거하면 공공위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6) 동 연구에서 직영으로 분류한 부산시의 경우는 ‘부산경제진흥원’이라는 재단법인에서 사무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어 ‘공공위탁’으로 수정·분류될 필요가 있고, 민간위탁으로 분류한 세종시와 경남의 경우 각각 ‘세종시사회서비스원’과 ‘경남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역시 ‘공공위탁’으로 수정·분류될 필요가 있음.

〈표 5-5〉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 위탁 방식

광주청년센터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광주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 위수탁 기간: 2년 - 수탁법인: 사단법인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 대구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 위수탁 기간: 3년 - 수탁법인: 사단법인 대구사회연주소	-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 위수탁 기간: 3년 - 수탁법인: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지역청년센터 종사자 간담회 결과.

□ 관리·감독 방식

- 광역지자체는 지역청년센터에 대해 예산 집행 등의 수탁사무에 대한 지도 점검, 사업 추진 결과 및 예산 집행 결과 보고, 성과 평가 등을 실시함.
- 지방정부의 민간위탁에 의한 보조금 지원 방식은 공공과 서비스 전달체계 간에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아닌 공공의 규제에 근거한 종속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 지자체 지도감독 부서의 주요 기능과 조직 내 위치에 따라 청년정책의 방향성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대구시의 경우 최근 일자리투자국으로 이동하면서 종사인력들이 조직 이동의 영향(청년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에서 일자리 위주의 접근으로의 방향 전환)을 우려하는 상황.

〈표 5-6〉 청년정책 및 지역청년센터 관련 지자체 행정조직

구분	광주청년센터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정책 담당부서	여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일자리투자국 청년정책과	청년청
민간위탁 지도감독	여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일자리투자국 청년정책과	청년청 청년지원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지역청년센터 종사자 간담회 결과.

2. 공공과의 관계

□ 지자체와 지역청년센터의 역할 분담

- 지역청년센터에게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됨.

- ‘중간지원기관’은 여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달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함(박영선, 정병순, 2020). 시민사회의 공익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중간지원조직은 연결자, 지원자, 생태계 조성자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임.
- 지역별 청년기본조례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범위가 명시된 것은 아니나 센터 종사자들은 지역의 청년정책 발달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요구되어 왔다고 인식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청년센터는 현장과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지자체 행정조직에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청년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함.

○ 광주청년센터의 경우 초기 설정과 대비할 때 현재 역할 조정의 과정에 있음.

- 광주청년센터의 경우 2015년 설립 당시에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청년사업 기획, 수행 및 의견수렴 등의 총괄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 최근에는 광주시의 경우 청년지원사업이 여러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사업이 일관성 있는 목적과 내용으로 수행되는데 제약을 줄 수 있음.
- 광주시의 경우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고 청년정책 추진 및 수행체계 내에서 광주청년센터의 역할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 또한 광주청년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면 그 역할을 명확화하고 이를 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함.

○ 대구광역시청년센터는 청년정책의 형성 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고 청년정책을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함.

- 대구는 광역시가 ‘청년희망공동체’를 통해 여러 유관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구조를 조성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청년정책 내에서 참여주체들의 기능이 분화되어 있음.

-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청년 관련 단체 등의 역할이 분화되어 있고 이는 청년들의 욕구(활력 정도)에 따라 분화된 측면이 있음.

○ 지방정부 환경이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역할과 방향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서울과 대구의 경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각각 3선과 재선에 성공하면서 청년센터 설립 후 지역 청년정책이 변동되는 계기가 발생하지 않았음. 민선 7기 공약에서 서울시의 청년자치정부, 대구형 청년보장제 등과 같이 청년 관련 내용이 강조됨(대구광역시, 2019; 서울특별시, 2019).
- 광주의 경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선되면서 지방정부 환경에 변동이 있었으며, 민선 7기 공약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 형성 과정에 청년참여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으나 청년정책이 두드러지지 못하였음(광주광역시, 2019).

○ 한편, 서울시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청년센터 전달체계가 신설되는 과정에 있음.

- 광역 청년활동지원센터와 기초지자체 청년센터의 구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당사자를 직접 만나는 방식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
- 대구, 광주시에서도 광역 내 일부 지자체 혹은 거점 방식으로 청년사업 전달체계가 등장하고 있음. 조례상으로 지역청년센터에 광역 지자체로서 기초 지자체 청년사업 전달체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부과하지는 않았으나 대구광역시청년센터의 경우 기초지자체 청년센터의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광주청년센터의 경우에도 기초지자체 청년센터를 대상으로 매뉴얼과 교육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공공과의 관계 및 전달체계의 자율성

○ 지역별 공공과의 관계와 지역청년센터의 자율성 수준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음.

○ 광주청년센터의 경우 현재 체계에서 자율성의 한계가 있음.

- 광주청년센터 종사자들은 위수탁 계약에서 행정과의 파트너 관계보다는 행정의 관리 감독 측면이 큰 것으로 인식함. 지자체 행정조직과의 관계에서 센터의 조정이나 제안 등의 자율성은 크지 않은 편임.
 - 현재 구조에서는 지자체 행정조직과 파트너십 관계나 협력조직으로 기능하기에 한계가 있음.
- 대구광역시청년센터는 대구시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종사자들은 예산 등의 사항에 조정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 행정조직과의 의사소통에서도 비교적 원만한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청년센터는 2019년 대구시 민간위탁기관 성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대구시 내에서 우수한 민간위탁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 대구시의 경우 대구시 청년정책 관련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센터가 의사소통하는 컨택 포인트의 증가로 관련 업무 부담이 증가함.
- 서울시의 경우 공공과 청년활동지원센터가 함께 전략을 짤 수 있는 협력적 관계에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청년활동지원센터와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있음. 종사자들은 업무 과정에서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센터에 위임하는 부분이 크고 규정이나 관리 감독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평가함.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제안이 가능하고(매뉴얼 등)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조정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청년정책 담당부서의 재량권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음.
- 지역청년센터와 공공과의 관계에서 지자체 행정조직의 인력의 특징이 중요할 수 있음.
- 지자체 행정조직의 담당자(주무관) 인사이동 시 새로운 담당인력의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행정처리 기준 등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예를 들어 담당 공무원마다 정산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등).

- 서울과 대구의 경우 사업 관련 결정 권한이 있는 직급의 담당자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함. 대구시는 청년정책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2017년 임용하여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음. 서울 청년청장은 현재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었고 담당부서 팀장급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활용하였음.
- 위와 같은 조치는 공무원 조직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청년정책 이해와 사업 수행의 단절을 예방하고 사업 관련 결정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이는 명문화 혹은 규정화되기 어렵고 지방정부단체장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임. 청년정책 수행에 우호적인 지방정부 환경은 가변적인 요소라는 한계가 있음.

○ 지자체에 따라 현장 조직에게 권한 위임하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정책의 당사자성이라는 특징은 현장 전문가 조직의 자율성과 권한을 필요로 하는 배경이 됨.
- 광역지자체가 다른 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경험이 광역지자체가 전문성 있는 현장의 조직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3. 연계·협력

□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 지역청년센터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지역 내 다양한 자원 연계를 위한 협력, 지역 내 청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직접적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청년센터는 지역 내 자원 및 서비스 연계와 협력을 위해 지역 내 사회 복지, 정신건강, 고용 및 노동, 자활, 교육, 사회적 경제 등의 다양한 영역의

기관과 협력함. 청년 접점과 연계 차원에서 지역 내 대학교와 협력도 고려하고 있음.

- 지역별 청년 관련 단체와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음. 광주청년센터의 경우 지역 청년단체들과 정기적 교류 및 협의 방식을 마련하고자 하며, 지역 내 수행기관 실무자 모임을 준비 중에 있음.
- 대구시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력사례에서 공공보다 민간 유관기관이 협력에 호의적인 경향을 보였음.

○ 전국 지자체의 지역청년센터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지역청년센터 협의체를 구상 중에 있고 11월 협의체 발족식이 진행 예정임.
- 전국 청년사업 제공기관 간의 협력은 청년지원사업 관련 이슈에 공동 대응할 수 있고 기관 간 정보 교류를 통해 사업 운영, 기관 내외의 자원관리 등의 측면에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도적인 조치들을 학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종사자들 또한 지역별 청년정책 전달체계나 종사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5-7〉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의 유관기관 협약 현황

광주청년센터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청소년, 고용/노동, 심리건강, 사회복지, 협동조합, 교육, 인터넷/스마트, 기타 공공기관 등 • 지역 내 청년 관련 단체 • 지역 대학교 •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	• 사회복지, 고용/노동, 정신건강, 자활, 도시재생, 협동조합, 예술, 사회적 기업/사회적 경제, 인터넷/스마트 등 • 지역 내 청년 관련 단체 • 지역 대학교 •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	• 정신건강/심리지원/자살예방/상담, 건강가정, 사회복지, 주거 등 • 혁신형 중간지원조직(NPO,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혁신 등) • 지역 내 연구기관

자료: 광주청년센터,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표를 구성함.

□ 지역사회주민(청년) 참여

- 지자체별 청년정책이 형성되는 거버넌스 구조와 지역청년센터의 내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음.

- 광주시의 경우 지역 청년의 실질적 참여 및 정책 실현을 위한 단계별 구조 (지역 청년 욕구 파악을 위한 의견수렴 - 정책화 기구 - 정책 실현 기구 등)를 갖추는 과정에 있음.
- 대구시는 프로그램별 기획단을 구성하여 청년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시도하였고 지역 청년의 참여형 프로그램 기획 경험을 확대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정책기획 단계와 자원 제공에서의 환류 과정에서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방식의 환류가 이루어짐.

제2절 조직, 인력 및 인프라

1. 조직 구조 및 인력

□ 조직 및 인력 현황

○ 사업 수행 부서와 활동지원 및 기획홍보 부서로 조직이 구성됨.

- 이는 지역청년센터의 역할이 직접 서비스 제공과 지역 생태계 활성화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조직 구성이 전달체계 역할과 조응하고 있다고 판단됨.

○ 전달체계의 발전과정에서 조직 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 세 지역청년센터 종사자 모두 현재까지 조직 내 협업은 원활하였다고 인식함.
- 조직과 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조직 구조 변화 가능성 있음.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조직간 협업 가능성 및 협조 수준은 낮아질 수 있음. 또한 소속 부서의 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짐.
- 지역청년센터의 발전과정을 고려할 때 설립 초기에 비해 인력의 성향과 기대치 또한 변화하는 측면이 있음.
- 대구광역시청년센터의 경우 사무공간이 추가됨에 따라 조직간 소통 문제가

중요해짐. 사무공간이 분리된 상황에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사내 결제 등의 행정사항과 센터 내 커뮤니케이션,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다양한 톨을 활용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따라 지역청년센터의 조직개편 빈도가 높았음.

○ 광주청년센터는 TF 방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음.

-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팀 체계 하에서 TF 조직을 활용하였으며 종사자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기능하였다고 평가함. 팀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었음.

○ 인력 규모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34명으로 가장 큰 규모였음.

- 세 청년지역센터 모두 규모가 증가해왔고 광주청년센터의 경우 2020년 인력 규모가 증가하였음.
- 평균 근속연수는 1년 4개월에서 2년 수준이었음. 법인의 센터 운영 기간이 5년 이하이고 인력이 최근 증가한 것이 낮은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종사자들이 고용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사업이 청년 당사자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종사자가 지역청년센터에서 장기근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배경이 됨.

〈표 5-8〉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 조직 및 인력 구성(2020년 8월 기준)

구분	광주청년센터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조직 구성	4팀 체계: 활동지원팀, 홍보 기획팀, 운영지원팀, 사업팀 - 운영 자문 및 심의: 청년운영위원회 - 조직도	1단 4팀 체계: 경영지원팀과 2개 사업팀은 성장기획단 소속이고 활동지원팀은 별도로 편제 - 운영 자문 및 심의: 운영위원회 - 조직도	1실 1단 5팀 체계: 기획팀, 운영팀, YC지원팀은 전략경영실 소속이고 2개 사업팀은 활력사업단 소속으로 편제 - 운영 자문 및 심의: 운영위원회 - 조직도
인력 구성	18명(정규직 12명)	14명	34명

자료: 광주청년센터,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표를 구성함.

□ 인력의 전문성

○ 청년정책 영역은 별도의 자격 및 기술 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지역청년센터 종사자 선발 시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련 업무 경력은 반영됨.

○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 종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청년 감수성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 역량, 사업기획을 위한 역량 등이었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청년 대상 사업기획, 청년 참여자와의 의사소통, 관계자간 협의 조정, 행정업무 처리 등에 대한 역량이 필요함. 소속팀과 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상이함.
-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적 처리 능력 등의 기본적 역량도 중요하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는 기획 관련 역량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종사자 역량 개발을 위한 역량 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함. 아래 표와 같이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에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인력

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고 판단하는 역량을 정리하고 있음.

〈표 5-9〉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역량자가체크의 역량

구분	역량
공통 역량	이문화감수성, 전문가 의식, 적극성, 윤리의식, 혁신 지향, 조직몰입도, 적응력, 조직 내 협업
직무 역량	개방적 의사소통, 공감적 경청, 내/외부 네트워킹, 명확한 의사 전달, 모니터링, 분석적 사고, 사전계획 수립, 세밀한 일처리
운영 역량	조직 운영, 리더십

자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표를 구성함.

○ 광역 지역청년센터의 역할 변화에 따라 강조되는 역량은 변화함.

-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보다 광역 차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넓은 시야에서 정책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수 있고, 행정적 측면에서 문서작업이나 규정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역량이 필요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최근 기초지자체 청년센터를 확대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 청년센터와 소속된 인력(청년지원매니저)의 경우 상담을 통해 청년들의 표출된 욕구를 파악하고 청년의 욕구를 스크리닝하며 이에 적합한 지원계획 수립 및 제안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는 사회복지 영역의 욕구 사정과 유사성이 있음.

○ 또한 조직 규모가 확대에 따라 팀별 특화된 역량의 강화 필요성이 커질 수 있음.

- 조직 규모가 확대될 경우 같은 조직 내에서도 부서별 필요 역량이 분화되고 팀별 업무에 적합한 역량의 강화 필요성이 있음.

□ 인력에 대한 처우

○ 현행 위수탁 구조 하에서는 위수탁 기간의 한계로 고용불안정성 있음.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광주청년센터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법인과는 정규직 계약이나 위수탁 기간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 광주청년센터의 경우 종사자들은 센터장과 고용계약을 맺고 위수탁 계약서에 청년센터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 규정을 명시함. 대구시의 경우 위탁 입찰시 종사자의 계속 근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서울시의 경우 80% 고용 승계 기준이 있음.
- 이와 같이 고용 승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종사자가 느끼는 고용불안정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광주, 대구, 서울시 지역청년센터는 모두 직급별 호봉제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며, 임금 상승폭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고려하여 결정됨.

- 광주청년센터는 매해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기준에 따라 협상한 액수를 보수로 지급함.
- 대구광역시청년센터는 급수별 호봉제 방식으로 보수를 제공하며 업무 평가가 좋은 경우 이를 승급에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업무 평가가 보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경우 호봉제(독립적 호봉테이블)를 바탕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역량 평가를 승급에 반영하고 성과 평가를 성과급에 반영함. 서울시와 임금상승률을 협의하기 때문에 노조와는 임금 상승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다만 복리후생의 경우 단체교섭(2년)에서 조정이 이루어짐.
- 시간외수당은 유급으로 지급받으며 월별 혹은 연도별 신청 가능한 최대시간이 제한되어 있음.

○ 현행 민간위탁 방식과 예산 지원체계에서 기관이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거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자율적 고용조건 개선 시도를 하기 어려움.

□ 인력자원 육성 및 개발

○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상급자의 코칭이나 슈퍼비전을 제공하거나, 교육 과정을 기획하여 제공하거나, 혹은 외부강사 초빙, 세미나, 스터디, 모임, 학습 등을 수행하는 등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광주청년센터는 자체적으로 강사초빙, 세미나, 스터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구광역시청년센터는 신입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행정, 회계, 문서작성 등의 행정사항을 교육함. 종사자에 대해 격월 1회(2020년은 월 1회)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강사 초빙, 워크숍 등을 제공. 해외연수도 시범적으로 제공한 바 있으며,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지자체 청년센터 청년지원매니저를 대상으로 인력 양성 프로그램(84시간)⁷⁾을 제공하기 시작함.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종사자들은 코칭을 제공받고 위 인력양성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음.
 - 종사자 역량 개발을 위한 지역청년센터의 자체적인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약과 더불어 지역청년센터의 역량 개발 체계가 평가 및 보상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서울시의 경우 경력 개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역량 개발 노력이 있었음.
- 경력 개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자기개발계획 수립, 면담 및 코칭, 자기개발(교육) 실시, 역량 평가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 최소 교육이수 시간을 정하고 있음.
 - 운영비 대비 교육훈련비 비율은 2019년 8%, 2020년 8.23% 수준이었으며, 역량 개발은 노조와의 주요 협의사항에 포함됨.
- 지역청년센터의 자체적 역량 개발 방안을 위한 예산 등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교육비 지원과 출장 처리 등이 이루어지지만 적합한 교육컨텐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업무 부담으로 교육을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7) ① 청년정책 및 전달체계 등, ② 청년감수성 및 성인지, 개인정보 등, ③ 청년 상담 관련 내용으로 구성됨.

- 청년센터의 역량 개발을 위한 방안이 센터의 자체적인 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센터가 이를 위한 시범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고, 그 운용에 대한 재량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예산 및 기타 자원

□ 예산 현황

- 광주, 대구, 서울시 지역청년센터는 시비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의 재원 독립성은 낮음.
 - 광주시의 경우 예산사용의 경직성 문제가 종사자 간담회에서 지적되었음. 지자체 행정조직의 예산 관련 조정 방식 등이 경직되어 있다면 기금이나 예비비 운영과 같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5-10〉 2020년 예산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광주청년센터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인건비	537,000(42%)	562,481(24%)	1,758,472(46%)
운영비	143,000(11%)	197,019(9%)	349,778(9%)
사업비	600,000(47%)	1,556,664(67%)	1,701,750(45%)
총계	1,280,000(100%)	2,316,164(100%)	3,810,000(100%)

자료: 광주청년센터, (2020). 2020년 사업계획(안). 내부자료; 광주청년센터,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표를 구성함.

□ 공간, 시스템 등의 유·무형 자원

- 공간은 사무공간과 청년 이용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음. 서울시는 사무공간 중심이고 대구와 광주는 사무공간과 청년 대상 사업을 위한 공간을 모두 갖추고 있음.
 - 대구와 광주시는 청년센터가 도시 중심가에 위치하여 청년들의 접근성에서

긍정적임.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경우 위탁의 방식이 사무위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년 이용공간을 운영하지 않음. 서울시 청년 대상 공간은 청년허브, 무중력지대가 있어 청년 지원 관련 기능이 분화되어 있음. 무중력지대나 거점 청년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청년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보임.
-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 차원에서 공간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이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한편, 지역청년센터에서 사업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기초지자체나 권역 지점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는 있으나 전달체계의 직접 사업 수행에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은 서비스 이력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청년 데이터 축적은 전달체계 운영에 핵심적인 부분임.

- 광주청년센터의 경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에 있음. 청년의 삶 전반의 정책 연결성 차원에서 정책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음.
- 대구는 2019년부터 회원관리 시스템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 서울은 2020년부터 참여자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 청년들의 욕구 및 서비스 이용 분석이 가능할 것
-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간과 공공의 정보시스템과의 정보 보유, 활용, 열람 등의 권한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5-11〉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 유·무형 자원 현황

구분	광주청년센터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공간	사무 및 청년 이용 공간: 청년센터 3개 층	- 사무 및 청년 이용 공간: 1센터(4개 층), 2센터(1개 층) - 청년 이용 공간: 청년활력 공간	사무공간: 1개 층(서울혁신파크)
시스템	시스템 정비 예정	회원관리 시스템	참여자 이력관리 시스템 *마음상담사업은 별도 관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지역청년센터 종사자 간담회 결과.

제3절 역할 및 방향성

□ 지역청년센터의 주요 기능 및 핵심 업무

- 지역청년센터의 주요 역할은 지역 청년들을 직접 만나 청년정책과 연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광주청년센터는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전반의 통합적 관리와 연결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청년정책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음.
 - 종사자들은 센터가 정책 플랫폼으로서 청년들의 요청과 지원을 연결하고 주변 청년 단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함.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또한 2020년부터 대구시 청년정책 전체를 소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종사자들은 대구의 청년정책 전체의 정보를 청년들에게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함. 이를 위해 청년센터는 전체 청년사업을 조망하고 대상자에게 사업을 홍보하는 역량을 갖춰야 함.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광역지자체 청년센터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지역별 서울청년센터를 2020년 최대 10개소, 추후 25개 자치구별 설치를 예정하고 있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지역별 청년센터 사

업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제작, 기반 시스템 제공, 실무자 전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등의 운영 지원 역할을 수행함.

□ 지역청년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전망 및 의견

- 광주청년센터는 청년센터가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 광주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 광주청년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 광역 전달체계로서 기초지자체 청년센터 대상으로 공통된 매뉴얼이나 교육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 종사자들은 센터가 지역청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인식함.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종사자들은 청년센터가 청년 대상자를 발굴하고 정책을 대상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 청년센터가 청년정책에서 시범적 시도를 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함.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을 직접 대면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과 간접적으로 지자체 청년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직접적 지원 역할과 광역으로서의 간접적 지원 역할을 고민하고 있고 현재 조직 규모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함.
- 지역청년센터 모두 주요 기능에 더하여 지역청년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지역 내 활동가 및 연구자 양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특히 광역 전달체계로서 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 － 지역 생태계 환경 보장을 위한 지역 연구자 역량 강화와 후속세대의 발굴 필요성 있음.

○ 지역청년센터의 자율성과 안정성의 개선이 필요함.

- 지역청년센터가 환경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여 새로운 사업적 시도를 하거나, 인력의 보상 및 처우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방식과 예산(예비비 항목 등의 방안)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운영에서 지역청년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음.
- 법인의 위수탁 기간을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거나 센터장 임기를 어느 정도 기간 이상 보장해주는 방안 등과 같이 전달체계 안정성 강화 방안이 필요함.

□ 향후 청년정책 관련 의견

-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역에서 이미 형성된 전달체계 및 네트워크 구조의 조율이 매우 중요할 것
- 지방정부와 전달체계가 지금까지 쌓은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재 전달체계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청년정책이 실행되는 단계에서는 지방정부의 간섭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나 광역 지자체가 청년정책의 홍보 및 연계를 위한 지역 내 다른 채널들을 연계시키고 점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나 광역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함.



제 6 장

결론

제1절 청년센터 사업 및 전달체계 검토 결과

제2절 청년센터 사업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제 6 장 결론

제1절 청년센터 사업 및 전달체계 검토 결과

1. 사업

□ 제3장에서 제안한 사업단계별 평가 지표(안)을 토대로 각 지역별 사업을 평가한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지역별 사업성과를 비교하는 목적은 각 지역의 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과, 세 개 지역 이외 지역 청년센터가 사업을 기획, 수행하는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상담 프로그램의 지역별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사업 대상 적합성 중 포괄성의 측면에서 광주 지역 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포괄성이 가장 높은 반면, 대구와 서울은 활동수당 참여 조건(소득, 취업 기준)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포괄성이 낮음.

○ 사업 대상 적합성 중 취약계층 표적 정도는 상기와 반대의 이유로 대구와 서울의 적합성이 높고, 광주는 상대적으로 낮음.

○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커뮤니티 지원 등 사업 간 관계(연계성)에 있어서 광주와 대구는 각각의 대상자를 별도로 선발함에 따라 사업체계상 연계성을 담보하지 않는 반면, 서울은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연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광주와 대구의 경우 프로그램별로 선발을 하되, 다른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계 가능성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접근성 측면에서는 세 지역 모두 신청과 프로그램 참여 방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어 높은 것으로 평가 가능.
- 서비스의 충분성과 관련해서, 대구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그 횟수가 제한적인 반면, 광주와 서울은 심리정서 상담 중심으로 다회차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서비스의 수는 부족한 대신 심도(질)는 높은 것으로 평가 가능.
- 대상자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세 지역 모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평가가 가능함. 서울의 경우 참여자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충실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상담 프로그램의 사회경제적 영향 측면에서는 참여자 집단인터뷰를 통해서 세 지역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서비스의 횟수로 측정되는 심도의 차이는 지역에 대한 신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6-1> 상담 프로그램 평가

단계	평가 지표	지표 내용 및 평가 요소		
		광주	대구	서울
설계	사업 대상 적합성(포괄성)	◎	○	○
	사업 대상의 적합성(취약계층 표적 정도)	○	◎	◎
	사업간 관계(연계성)	○	○	◎
	접근성	◎	◎	◎
산출	급여(서비스) 충분성: 프로그램 횟수	◎	△	◎
	급여(서비스) 충분성: 프로그램 수	○	◎	○
성과	대상자 모니터링	○	○	◎
기타	사회경제적 영향(신뢰도 변화 등)	◎	○	◎

□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의 지역별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사업 대상 적합성 중 포괄성의 측면에서 광주는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가 사업

비를 감액함에 따라 대상이 축소된 측면이 있었고, 대구와 서울의 경우 소득 및 취업상태 기준으로 선별함에 따라 여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포괄성에 일정 정도의 한계는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서울은 청년수당 참여자 외에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어 대구와의 차별성은 존재함. 실제 참여자의 구성비에 따라 엄밀한 평가 가능.
- 대상 연령과 관련해서 광주와 대구(판길2)는 연령상한을 39세로 두고 있어 연령 대상 측면에서는 보다 포괄적이라 할 수 있으나 청년기본법의 청년 상한 연령이 34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표적화의 측면에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음.

○ 세 지역 모두 미취업 요건을 두고 있어 취약계층 표적 정도로 파악되는 대상 선정의 적절성은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함.

○ 상담 프로그램, 커뮤니티 지원 등 사업간 관계(연계성)에 있어서 광주와 대구는 각각의 대상자를 별도로 선별함에 따라 사업체계상 연계성을 담보하지 않는 반면, 서울은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연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광주와 대구의 경우 프로그램별로 선발을 하되, 다른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계 가능성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신청 상 접근성 측면에서는 세 지역 모두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어 높은 것으로 평가 가능

- 다만,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성 외에 대상 기준 상 참여 유인이 내재되어 있는지 여부도 접근성의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 대구와 서울의 경우 활동수당 참여와 연계되어 있어 취약청년들의 참여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기 때문임.

○ 서비스의 충분성은 프로그램의 수와 심도의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는데, 세 지역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대구는 청년학교 탄길1, YES! 매칭과 같이 대상 특성에 맞춘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은 자기탐색, 서울잡스 내일취재단, 사회혁신청년 활동가 양성사업의 세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광주는 니트청년 발굴 및 지원 사업의 단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체 사업 외에 공모사업(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_공익활동형,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프로그램 다양성을 일정 정도 담보하고 있음.

○ 대상자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세 지역 모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평가가 가능함. 서울의 경우 참여자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충실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의 사회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대구와 서울은 참여자 집단면접을 통해 파악된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광주는 해당 사업 참여자가 집단면접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평가를 유보함.

<표 6-2>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 평가

단계	평가 지표	지표 내용 및 평가 요소		
		광주	대구	서울
설계	사업 대상 적합성(포괄성)	△	○	○
	사업 대상의 적합성(취약계층 표적 정도)	◎	◎	◎
	사업간 관계(연계성)	○	○	◎
	접근성	◎	◎	◎
산출	급여(서비스) 충분성: 프로그램 횟수	◎	◎	◎
	급여(서비스) 충분성: 프로그램 수	◎	◎	◎
성과	대상자 모니터링	○	○	◎
기타	사회경제적 영향(신뢰도 변화 등)	-	◎	◎

□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의 지역별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사업 대상 적합성 중 포괄성의 측면에서 세 지역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사업 대상 적합성 중 취약계층 표적 정도는 서울은 소득과 취업 여부로 선별한 청년수당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광주와 대구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운영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취약청년 표적화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사업의 목적이 상이함에 따라 서울과 동일한 맥락에서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상담 지원,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등 사업간 관계(연계성)에 있어서 광주와 대구는 각각의 대상자를 별도로 선발함에 따라 사업체계상 연계성을 담보하지 않는 반면, 서울은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연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광주와 대구의 경우 여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별로 선발을 하되, 다른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계 가능성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접근성 측면에서는 세 지역 모두 신청과 프로그램 참여 모두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어 높은 것으로 평가 가능
- 서비스의 충분성과 관련해서, 지역별로 지역 상황과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됨에 따라 일률적인 평가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아래와 같이 활력 정도, 공간 제공 여부, 운영자 프로그램 등의 특별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음. 참여자 집단면접을 통해 파악된 바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함.
 - 광주는 청년 커뮤니티 형성(일단모힘), 활동(청년모힘), 프로젝트(작당모힘)로 구분하여 지원함에 따라 활력 정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대구는 커뮤니티 형성과 활동(다모디라), 공간지원과 활동(다모디소)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 서울은 기획형 및 후속형 모임(어슬렁반상회)과 운영자 모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청년반장)을 운영하고 있음.
- 대상자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세 지역 모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비교

적 적정한 것으로 평가가 가능함. 서울의 경우 참여자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충실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의 사회경제적 영향 측면에서는 참여자 집단인터뷰를 통해서 세 지역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음.

<표 6-3>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평가

단계	평가 지표	지표 내용 및 평가 요소		
		광주	대구	서울
설계	사업 대상 적합성(포괄성)	○	○	○
	사업 대상의 적합성(취약계층 표적 정도)	△	△	○
	사업간 관계(연계성)	○	○	◎
	접근성	◎	◎	◎
산출	급여(서비스) 충분성: 프로그램 횟수	◎	◎	◎
	급여(서비스) 충분성: 프로그램 수	◎	◎	◎
성과	대상자 모니터링	○	○	◎
기타	사회경제적 영향(신뢰도 변화 등)	◎	◎	◎

- 상기 세 가지 사업별로 지표를 통해 성과를 평가, 비교한 것과 별도로 청년수당과의 연계와 관련해서 지역별 특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광주는 상담과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은 수당과 연계되지 않고, 커뮤니티 사업은 참여자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 대구는 모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참여를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 서울은 상담과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에는 청년수당 참여자 외에 일반 청년을 포괄하고 있음.

- 모든 사업에 수당이 연계되어 있는 대구와 서울의 경우 수당이 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수당이 보장해주는 시간과 심리적 안도감, 그리고 참여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 참여의 뚜렷한 유인이 될 수 있음.

- 광주의 경우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청년수당과 연계되지 않아 다른 지역과 달리 참여 유인이 떨어질 수 있지만 수당 참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는 측면에서 대상 포괄성이 높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따라서 수당이 제공하는 참여 유인 제고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동시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청년의 참여 기회가 제약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음.

<표 6-4> 사업별 수당 연계 상황

구분	광주	대구	서울
상당	X	○	○, X
진로 탐색, 일 경험	X	○	○, X
커뮤니티	○(활동비)	○(활동비)	○

2. 전달체계

□ 공통

- 청년정책의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 지역청년센터는 청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과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청년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함.
-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
 - 2~3년의 위수탁 기간에 종속되어 기관과 인력이 불안정성 경험함.
-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활동 실시
 - 지역 내 자원 연계를 위한 협력, 청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을 실시함.
-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 역량 강화 노력
 - 전달체계 종사자의 주요 역량은 청년감수성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 역량, 사업기획을 위한 역량 등이었음.
 -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교육 과정 개발, 코칭 및 슈퍼비전 제공, 강의 및 세미나 등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위수탁 구조의 한계로 인한 고용불안정성

- 현행 민간위탁 방식과 예산 편성 및 운용 방식 하에서 자율적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시도하기 한계가 있음.

□ 광주

○ 지역청년센터 역할 조정의 과정을 경험함

- 청년센터는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전반의 통합적 관리와 연결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광주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고민하고 있음.
- 2015년 설립 당시에는 광주 지역의 청년사업 기획, 수행 및 의견수렴 등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반면, 현재 역할 조정의 과정에 있음.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추진 및 수행체계에서 광주청년센터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의 한계를 경험함

- 지방정부 행정조직과의 관계에서 관리 감독의 성격이 강하고 청년센터의 자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센터의 사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필요함.

○ 청년 욕구 반영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노력

- 지역 청년의 실질적 참여 및 정책 실현을 위한 단계별 구조를 갖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청년센터는 지역 청년단체들과 정기적 소통 구조를 운영하고 지역 수행기관 실무자 모임을 준비하는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조직 운영과 역량 개발 강화 노력

-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TF 조직을 활용하는 시도를 하였음.
- 종사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강사 초빙, 세미나, 스터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전달체계 안정성 강화 필요

- 위수탁 계약서에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종사자가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고용불안정성이 존재함.
- 전달체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의 위수탁 기간이나 센터장 임기에 대한 보장 방안 등이 필요함.

□ 대구

○ 지역 청년정책 추진에서 총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대구 청년정책의 기획과 추진에 기여하고 지역 청년정책 전체를 청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대구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음.
- 청년 대상 서비스의 거점기관 역할을 향후에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청년과의 접점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거점기관으로서 센터의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

○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경험함.

- 청년센터가 예산 등의 조정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 행정조직과의 의사소통에서도 비교적 원만한 관계라고 인식함.
- 지방정부가 지역청년센터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업 수행에서도 유연함을 보이는 방식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다만 우호적인 지방정부 환경이 가변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 청년 욕구 반영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노력

- 프로그램별 기획단을 구성하여 청년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시도하는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대구광역시에는 ‘청년희망공동체’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을 지원함.

○ 조직 운영과 역량 개발 강화 노력

- 사무공간 확대에 따라 행정, 정보 공유 및 협업 등을 위한 다양한 툴을 활용

하고 있음.

- 역량 강화를 위한 신입인력 오리엔테이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고 해외연수와 같은 시범적 활동도 시도하였음.

○ 종사자 고용조건 개선 노력

- 위탁 입찰에서 종사자의 계속 근무 보장을 위한 절차는 있으나 종사자들이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고용불안정성이 존재함.
- 우수한 업무성과에 대해 승급으로 보상하고 있음.

□ 서울

○ 광역 단위의 청년센터로서 역할 확대의 과정에 있음.

- 조례 상으로 청년관련 사업과 자치구별 청년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됨.
-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과, 광역 단위의 청년센터로서 기초지자체 청년센터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시작함.
- 광역 청년센터의 역할이 부과됨에 따라 향후 종사자들의 정책 이해 및 행정 관련 역량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있음. 지방정부가 청년센터에 위임하는 부분이 크고 청년센터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큼.
- 청년청에서 청년정책과 센터 지도감독 업무를 모두 수행함으로써 청년정책 기획과 수행에서 높은 전문성과 민관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음.

○ 청년사업 수행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한계

- 청년센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물리적 공간 부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종사자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

- 종사자 역량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역청년센터 종사자의 역량 기준을

정리하고 있고 이를 역량 개발을 위해 활용한다는 점이 긍정적임.

- 특히 종사자의 경력 개발 차원에서 자기개발계획 수립, 면담 및 코칭, 자기 개발 실시, 역량 평가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임.
- 기초지자체 청년센터 청년지원매니저를 대상으로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종사자 고용조건 개선 노력

- 종사자는 법인과는 정규직 계약을 맺고 있으나 여전히 위수탁 기간에 따른 불안감이 있음.
- 역량 평가를 승급에 반영하고 성과 평가를 성과급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업무성과와 역량 강화 노력을 보상하고 있음.
- 다른 지역과 다르게 노동조합이 있음. 센터는 임금 관련 사항을 노조에 공유하고 복지후생, 역량 개발 등의 사항을 협의하고 있음.

제2절 청년센터 사업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1. 사업 개선을 위한 제언

가. 상담 프로그램

□ 청년세대의 정신건강은 전반적으로 악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오늘날 청년세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맥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자살과 관련한 통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고, 연령대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최근 청년세대의 자살률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2019년 기준 자살률은 20대 19.2%, 30대 26.9%, 40대 31.0%, 50대 33.3%, 60대 33.7%, 70대 46.2%, 80세 이상 67.4%.

- 2018년 기준 자살률 증가율(전년 대비)은 20대 7.2%, 30대 12.2%, 40대 13.1%, 50대 8.2%, 60대 8.9%, 70대 0.2%, 80세 이상 -0.4%.
-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지지의 단절, 경기 악화에 따른 실직 등의 충격이 자살위험군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사회적 관계망과 고용에서 취약한 청년층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서울시 20대 자살자 수 2배 증가, 여성 자살시도자 수 5월까지 1,000명에 육박(전웅빈, 문동성, 임주언, 박세원. 2020. 9. 22.).
-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득 하위계층의 자살시도 증가
- 긴급의료비 지원(기초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대상 또는 진행자, 3개월 내 실직자 등) 받은 자살시도자 전년 대비 약 2배('20. 7. 575명, '19. 7. 295명. 중앙자살예방센터)(전웅빈, 문동성, 임주언, 박세원. 2020. 9. 22.).
- 이 같은 맥락에서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수 있음.
- 상담 프로그램 강화는 내실화와 확대의 두 가지 방향성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상담 프로그램의 내실화는 상담 프로그램의 질 제고, 전문 상담기관 연계, 그리고 상담사의 청년에 대한 이해 제고의 세 가지 갈래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각 청년센터는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문 상담사를 영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 상담이 필요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상담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지역별로 각각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에 다소간의 편차가 있어 공통적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한다거나, 공통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상담사 대상 교육프로그램에는 서비스 대상인 청년에 대한 다면적이고 깊

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과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상담 프로그램의 확대와 관련해서 상담 시간과 상담 횟수(회기)를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 시간과 횟수는 참여자의 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진단 방법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개발한 진로정서 자가진단 시스템을 센터 간 협약을 통해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광주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음.
 - 이 경우 진단 결과에 따른 상담 프로그램의 밀도와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유형별로 각 센터에서 운영하는 여타 활동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이루어질 수 있음.
 - 참여자 FGI에서 짧은 상담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되었는데,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신 각 상담 프로그램별 시간과 회기가 가장 짧은 대구 지역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남. 따라서 대구의 경우 현재 상담 프로그램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역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별로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상담 프로그램의 확대와 관련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대상자 확대와 상담 프로그램 다각화임.
 - 현재 광주의 경우는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과 대구에 비해 대상자 확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서울과 대구의 경우는 수당을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당 비참여자들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
 - 대구는 상담 욕구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수당이 프로그램 참여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반면, 서울은 수당이 상담 프로그램 참여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함.
 - 따라서 대구의 경우는 상담 프로그램 참여의 필요성이 큰 청년들 중 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참여할 의향이 있는 청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는 방식을, 서울의 경우는 수당 비 참여자들 중에서 상담의 욕구가 큰 청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각각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상담 프로그램 다각화와 관련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욕구 파악을 전제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세 지역의 상담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됨. 상담 영역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구의 사례와, 마음건강에 집중하는 광주와 서울의 사례임.
- 광주 참여자의 경우 마음건강뿐 아니라 취업, 창업, 금융, 주거, 법률 등 정책 영역별 상담에 대한 욕구(자체 결과보고서)가 존재하며, 서울의 경우도 참여자 FGI에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제공의 욕구가 파악되었음.
- 따라서 현재 각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토대 위에서 상담 영역의 확대와 상담의 깊이(회기 수, 회기 당 시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상담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사전에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예산 소진으로 인해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담 프로그램과 관련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심각한 정신건강 상태에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의 연계가 필요한데, 지불 능력이 없는 저소득 청년의 경우 연계가 되더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 대해서는 진료비 또는 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사업

□ 심화 ‘교육’ 또는 ‘훈련’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다각화 모색

-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 따라서 이 같은 욕구에 부응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심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각 센터의 과제라 할 수 있음.
- 그렇다고 모든 욕구를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배치할 수는 없을 것이고, 현재 각 센터가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은 지난 수 년 간의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낸 일종의 솔루션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다각화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현재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화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홍보 강화 통해 참여자 확대 방안 모색

- 홍보는 모든 센터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라 할 수 있음.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사업 외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 특히 전국적이고 대중적인 홍보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유사한 사업이 도입 될 경우 자체 사업의 홍보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홍보 방법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함.
 - － 먼저, 각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방법들을 상호 벤치마킹하여 지역에 보다 적합한 홍보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가능하다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 중앙정부 청년정책추진단의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공통의 홍보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음.
 - － 직접적인 홍보방법 이외에 각 지역의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속한 기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음. 예컨대, 주민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자활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상담을 위해 방문한 청년이나 여타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연계처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을 지역청년센터에 연

계하는 방안임. 이는 대구 청년센터가 언급하고 있는 모집 경로 다각화와 같은 맥락임.

□ 참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

○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격 기준을 통상적인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가구 단위의 기준중위 소득의 일정비율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년당사자들의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음.

- 지역 내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 보편적인 접근이 아니라면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필연적으로 발생함. 원 가족 내에서의 독립 정도가 모호한 청년들의 경우는 특히 자격 기준을 가구 단위로 할 것인지 개인 단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무소득의 청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자신의 낮은 수준의 소득만 있는 청년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다소간의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대신 소득 이외에 취업상태, 정신건강 상태, 취업역량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선정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 참여 사업장 혹은 단체의 질 관리

○ 진로 탐색이나 일 경험에 필수적인 지역 내 사업장 또는 단체의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에 연계되는 사업장 또는 단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될 수 있도록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내실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사업장 또는 단체의 경우 연계에서 배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세스가 작동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고,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일 경험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장과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의 참여 기회 확대

- 각 지역 청년센터는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의거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모니터링-정책 환류의 과정에 까지 청년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 커뮤니티 지원 사업

□ 공간 제약에 따른 프로그램 확장성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거점별 공간 확보 노력 필요

- 3개 지역 청년센터는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현재 기초 단위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서울과 달리 광주와 대구의 경우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거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간을 제공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구의 '다모디소' 프로그램이 공간 확보 전략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
 - 청년이 제공하는 공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청년들의 접근성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커뮤니티 내 리더의 역량에 대한 고민과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관리방안 모색

- 광주와 대구와 같이 기존의 모임이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새로운 모임을 형성해서 운영되는 서울의 경우 청년반장이나 모임 내 리더의 역량과 소양에 대한 관리가 필요.
 - 서울시의 경우 청년반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자 중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의 소양과 역량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기 어려움. 따라서 청년반장이 리더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보다 유연한,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 예산 확충

○ 참여자 FGI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기획했던 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 이외에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다수의 진술이 있었음.

– 이로부터 이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을 심리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청년들의 정신건강 지원의 측면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부터 프로그램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

○ 따라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참여 청년들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탄력적인 프로그램 운영(참여 인원, 기간, 지원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확대와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임.

□ 기존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모임들 간 후속 모임 등 네트워킹 지원

○ 참여자 FGI에서 다른 커뮤니티와의 교류, 후속 모임 등 지원으로 커뮤니티 지원의 영역과 시간적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진술들이 있었음.

○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투영된 진술로 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산과 인력의 제약을 감안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의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후술할 참여자 이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임.

2.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가. 운영 방식

□ 지역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의 운영 방식

- 지역청년활동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민간위탁 방식의 한계점에 대해 어떠한 개선 방안이 가능할지 논의가 필요함.
 - －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 하에서 지역청년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향상에는 한계가 있으나, 설치·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안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함께 공공에 대한 종속성이나 기관의 경직성에 대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욕구에 대한 반응성,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기관의 자율성, 기관과 인력의 전문성 등에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지역청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설치·운영 방식 중심의 논의와 별개로 민간의 자율성과 시설 및 인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 청년정책에 대한 정부의 공통 조치나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의 차원으로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시설과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민간위탁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2019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지역청년센터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지자체들이 청년정책 사무를 위수탁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임.

나. 지역 행정조직과의 협력관계

-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지역 청년센터가 지역 청년정책 방향성을 결정하고, 그 속에서 정책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메커니즘이 확립될 필요.
- 지방정부(행정)와의 관계에 대한 모범적이고 표준적인 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청년정책 및 정책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의 제반 사항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내 청년들의 행정조직과 청년센터 간의 협력관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도 부가될 필요가 있음.
- 전달체계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고용안정성 등 조직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의 원인이 되는 위탁관계의 개선에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음. 다년간 사업수행에 따른 경험치가 충분히 쌓인 세 지역의 경우는 민간위탁관계에서 벗어나 재단설립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청년센터 등 지역 내 청년정책 전달체계와의 협력관계 제고를 위한 지자체 조직구성 고민 필요.
- 광역 단위 지자체의 경우 국 수준의 청년전담 조직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담조직의 국장 혹은 적어도 총괄 과장은 청년정책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용하되, 지역별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임기 보장 필요.
 - 서울과 대구의 사례와 같이 민간에서 청년정책 관련 활동 경력자 또는 전문가를 중용하는 방식 검토.
 - 행정조직의 인사관리 방식에 따른 담당자 인사이동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별로 수립하고 있는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인사관리 필요.

다. 청년센터의 역할과 방향성

□ 지역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의 역할 및 방향성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청년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청년센터는 단순히 대상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 청년정책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청년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센터에 대한 지원과 자율성 보장 수준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임. 법령이나 중앙정부 지침 차원에서 지역청년센터의 기본적인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청년센터의 기본 방향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함.

- 지방정부의 어떤 조직 하에 청년정책 전달체계 관리 사무가 배치되느냐에 따라 청년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청년센터의 공통적 방향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청년센터 사례에서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청년센터가 축적한 다년간의 경험이 지역청년센터의 공통적 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향후 청년정책 개편 이후 광역 청년활동지원사업 전달체계의 주요 방향성과 로드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전달체계의 대상자 접수 및 욕구 파악, 대상자 발굴, 청년 대상 종합 서비스 지원, 특화된 서비스 지원, 지역의 자원과 발굴 및 육성, 지역의 협력체계 조성, 기초지자체 시설 및 인력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 속에서 청년정책 광역 전달체계의 방향성과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 있음.
- 광역 전달체계의 역할이 확대되고 조직 규모가 확대되면서 조직과 인력의 주요 역량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

라. 중앙정부 전달체계와의 관계

□ 청년정책 추진체계에서 향후 중앙과 지방의 역할

- 중앙 차원에서 지역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주요 역할, 공통의 제공 사업 기준과 이에 대한 지자체 지원 방식, 종사자 처우와 역량 개발을 위한 기본 수준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정부 환경 등이 변화하더라도 지역청년센터가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청년기본법 제정과 시행을 통해 국가의 청년에 대한 책무가 정해지고 청년정책 추진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모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광주, 대구,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다년간 축적해 온 경험들이 중앙정부 추진체계 구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지방정부는 지역 내 청년정책 추진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이 공공의 목적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하는 동시에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였음. 지역청년센터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
- 또한, 지자체 행정조직과 지역청년센터 간의 역할 위임, 자율성, 의사소통 등이 사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기존 광역 지자체의 사례는 타지자체 전달체계 수립에 참고가 될 것임.

마. 조직 관리

□ 지역청년센터 조직과 일자리

- 청년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활동과 성과에 빠른 환류가 가능한 조직이라는 특징이 있음.
 - 현장과 대상자에 빠르게 반응하는 조직으로 TF 조직과 같은 시도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 인력의 역량을 개발하고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청년센터별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성과 기획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력의 보상체계 전반은 이와 조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위수탁 계약에 기반한 고용불안정성과 공무원 임금 상승을 반영한 호봉제 보수체제로 인해, 지역청년센터에서 창의적 업무나 젊은 조직에 적합한 선도적 고용조건을 시도하기 어려움.
- 이에 지역청년센터 종사자들의 장기적인 경력 개발에 대한 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청년센터 종사자들은 자기 계발 욕구가 높고 센터의 기획력 발전과 청년 전문가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 하지만 종사자 관점에서 정책 환경의 빠른 변화는 사업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어렵게 하는 동시에 현재 위수탁 기간에 따른 고용불안정성이 있음. 이와 같은 상황과 더불어 청년 당사자성을 강조하는 사업의 특징은 종사자의 장기적인 경력전망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이에 따라 지역청년센터 일자리에 대한 장기근속 측면과 더불어 경력 개발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희망하는 인력이 장기근속 가능할 수 있는 방향과, 다른 한편으로 청년센터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에서도 활동 가능하도록 경력 개발 차원의 인정 체계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정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전달체계 종사자로서 직무와 역량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 강화 노력이 포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하에 표준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가 표준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정부의 조례에 반영 할 필요.

- 청년정책전달체계 역량 강화 차원에서 종사자 교육·훈련 정보를 전국 지역 청년센터 간 공유할 필요가 있음.

바. 지역 청년센터의 위상

□ 지역 청년정책의 집행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 정립

- 행정조직과의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 보장
 - top-down 방식이 아니라 bottom-up 방식의 정책프로그램 결정과 운영.
 - 청년센터가 지역 청년들과의 연계·협력 구조 속에서 프로그램 발굴, 기획, 예산 편성 등의 역할을 수행.
- 지역 내 총괄적 청년정책 집행기구로서의 역할 정립
 - 기초단체 청년센터, 광역 단위 여타 청년정책 집행기관, 중앙정부 전달체계(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지역청년센터 등)와의 실질적인 연계방식을 기획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부여할 필요.
 - 연계 업무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필요.

□ 광역 전달체계로서의 역할 정립

- 전달체계의 대상자 접수 및 욕구 파악, 대상자 발굴, 청년 대상 종합 서비스 지원, 특화된 서비스 지원, 지역의 자원 발굴 및 육성, 지역의 협력체계 조성, 기초지자체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 속에서 광역 전달체계의 방향성과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

3.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제언

가. 중앙정부 청년정책과의 관계

-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처별 청년정책 전달체계와의 역할 분담 방안 모색
 -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역 내 행정-중간지원조직-청년단체 등의 협력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전달체계의 경험을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모색할 필요.

- 2021년부터 시행될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기본계획에 의거한 세부사업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역청년센터의 추가적인 역할을 준비해야 할 것임.
 - 상기 중앙-지역 간 전달체계 역할 분담 모색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 청년센터의 역할이 필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력 확충과 조직 개편 등의 준비에 대비할 필요.
 - 예컨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과 같은 계좌사업, 청년자활 등에 있어서 현행 지역 청년활동지원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중앙정부 프로그램 참여자 유입, 지역 프로그램 참여자 연계 등).
-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청년센터가 축적한 다년간의 경험이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임.
 - 금년 초에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공식화하였고,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마스터플랜을 담은 제1차 청년기본계획이 금년 중 발표될 예정임.
 - 아직 발표되지 않은 내용을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중앙정부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추가 될 것이고, 여기에 각 영역별로 새로운 과제들이 일부 추가될 것으로 짐작됨.
 - 주지하다시피 광주, 대구, 서울지역의 청년활동지원사업들은 이미 수년 전에 청년정책기본조례에 의거, 지역 청년단체들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오랜 논의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고, 수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역사적 산물임.
 - 따라서 중앙정부의 본격적인 청년정책 체계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들 세 지역의 청년정책의 위상이 흔들리거나 예산상의 이유로 사업이 축소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나. 청년정책 선도 주체로서의 역할

-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발전과정은 지역 청년센터의 운영 역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음.
- 광주, 대구, 서울은 지난 5년 동안 중앙정부와의 관계의 틀 속에서 지역 청년정책의 확고한 방향성을 제시해왔으며,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정책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과 구축되어 있는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는 이와 같은 청년정책 발전 역사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세 지역의 제반 청년활동지원사업들과 추진 및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사업의 선도 모델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 지난 5년간 경험하고 실험한 결과물들이 중앙정부에 의미 있는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각 지역별로 고민, 논의, 연구하고 있는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계획에 중앙정부의 5개년 기본계획이 조응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지자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청년센터협의체와의 협업 필요

다. 참여자 이력관리 시스템 활용성 제고

- 각 센터들은 참여자 이력관리 시스템을 각자 도입해서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 참여자 이력관리 시스템은 사업의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기존 참여자들의 후속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프로그램 운영상의 개선점을 찾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유사한 사례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각 대학별로 학생 경력관리 시스템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를 권고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따라서 각 청년센터가 보유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시스템에 대해 필수적인 기능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

요가 있음.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라. 청년센터 사업성과 평가 개선방안

1) 평가 지표체계

- 평가 지표체계 설정의 방향성은 단기적 성과보다 중장기적 성과 중심, 그리고 미시적 차원(개인 차원)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지원체계의 인적, 물적 한계에 따라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공통점이 있음. 그리고 애초 프로그램 자격 기준을 ‘취약성’에 두는 경향이 있어 참여자의 역량이 그리 크지 않은 특징이 있음. 따라서 취약한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단기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장기화하거나, 아니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나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다양한 평가사례 검토를 토대로 각 지역별로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는 성과 지표를 재검토하여 표준적인 성과관리 지표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계량적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사업의 가치는 정성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정량적 평가를 중심으로 체계를 구성하되 보완적으로 정성적 평가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제3장에서 언급된 주요 평가 지표를 사업단계별로 아래와 같은 평가 지표 및 평가 요소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임.

- 아래 평가 지표 안은 향후 실시 예정인 중앙정부 단위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물론,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시행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범용) 관점에서 고안하였으며,
- 정량적 지표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지향함과 동시에 정성적인 지표들을 통해 청년지원정책이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가치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표 6-5> 사업단계별 평가 지표(안)

단계	평가 지표	유형	배점	지표 내용 및 평가 요소
설계 (30+α)	사업 목적의 타당성	정성	5	- 사업 목적이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목표 또는 비전에 부합하는 정도
	사업 대상의 적합성	정성 정량	15 (+α)	-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 사업 대상자에 포함된 정도 • 사업 대상의 명확성 (5점) • 전체 대상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5점) - 사업 목적과 사업 대상의 인과성 (5점) • 사업 대상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대상인지 여부(또는 정도) - 대상 청년 중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여부 (추가+α)
	사업 간 관계	정성	5	- 해당 사업이 보완적 프로그램 또는 해당 사업과 연관된 서비스 제공 시설과의 연계 정도
	접근성	정성	5	- 대상 프로그램 신청의 용이성 정도: 위치적 접근성, 온라인 접근 여부
투입 · 집행 (20)	자원 투입의 충분성	정량	5	- 대상자 규모 대비 적정 예산 및 인력 투입 여부 • 다른 유사 사업과의 비교 또는 전년도 대비 투입 정도
	예산 집행의 적절성	정량	5 (+α)	- 예산 집행 실적 (5점): {(집행액/계획금액)×100}×0.05 - 총예산 대비 실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절한가? • 총예산 대비 실제 사업비 비중이 일정 수준이 넘을 경우 1~3점 사이의 가점 부여(+α)
	지원 방식의 적절성	정성	5	- 급여 유형 및 지원 방식의 적절성 • 해당 급여의 유형(현금, 현물, 프로그램, 시설 입소 등)이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형태의 유형인지를 평가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절성	정성	5	- 사업 추진(자원 투입 등)이 시기별 적절하게 이뤄진 정도를 아래의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평가 • 추진 일정상 사업 추진 내용과 추진체계의 활동의 연계성 • 사업 추진이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이뤄진 정도 • 사업 추진의 적시성

단계	평가 지표	유형	배점	지표 내용 및 평가 요소
산출 (15)	성과 지표의 수준	정성	5	투입 및 과정 지표 1점, 산출 지표 2점, 결과 지표 3점
	수급률(서비스 수혜율)	정량	5	- 대상자 대비 서비스 수급률(수혜율)
	급여(서비스) 충분성	정량	5	- 수요 대비 급여의 충분성 • 유사 프로그램에 비해 급여 수준 또는 서비스 제공 정도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성과 (30)	성과 달성 여부	정성	15	- 해당 사업 또는 사업군이 설정한 성과 지표 목표 달성도 (삶의 질 개선, 경제적 부담 경감, 정신건강 제고 등)
	만족도	정량	5	- 대상자가 느끼는 만족도를 통한 제도의 주관적 평가
	대상자 모니터링	정성	10	- 서비스 과정 또는 서비스 종료 후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추가적 서비스 제공 여부 • 사업 추진 상황의 정기적(상시적, 수시적 포함) 모니터링 여부
기타 영향 (5)	사회경제적 영향	정성	5	- 간접적 또는 장기적인 파급 효과: 가치제적 특성을 평가

자료: 강신욱 외. (2015), 사회보장정책평가의 방향과 과제, 사회보장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일 외. (2018), 사회보장제도 성인·노인 돌봄 분야 기본평가, 보건복지부·고려대학교, p. 78을 바탕으로 재구성.

2) 기타 고려사항

□ 정량 평가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참여자 수와 같은 지표 보다는 계획 대비 성과와 같은 지표 활용이 적절함. 단, 계획과 관련되는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과 합리성이 보완될 필요(사업 계획의 적절성 평가와 관련)
 - 목표치의 경우 전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적절성과 예산규모를 고려한 합리성을 평가할 필요.
- 공통적인 정량 평가 산식 제안 필요
 - 현재 서울시가 진로 탐색 및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 성과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진로개발준비도’에 대한 검토 후 확산 방안 검토.
- 만족도 조사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각 센터별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참여 전 오리엔테이션 등 공식적 절차를 통해 만족도 조사에 대해 사전적으로 공지하고, 조사의 취지와 조사 결과가 환류되는 과정을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공간, 서비스 제공자 태도(청년감수성),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프로그램 기획 의도 충실성,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 포함.

□ 정성 평가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 정성 평가가 이루어진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존재. 정성적 평가 방법 개발 필요.
 - 정성 평가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도 그 방법 상 차이가 존재. 대구는 결과보고서 상에 센터 담당자가 작성, 서울은 참여자 간담회 활용.
- 참여자 간담회나 별도 조사를 통해 정성적 평가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전술한 서울시의 평가 항목 이외에 동 연구의 FGI 내용(지역 또는 청년센터에 대한 신뢰도 변화, 지역에 대한 애착 변화 등. 본문 표 4-3, 4-11, 4-19 참조)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구직능력 향상이나 취업률과 같은 개인 차원의 성과보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17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SVI)’의 방향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청년센터의 주요 사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지(사회적 미션 영역), 사업들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 환원 노력도(이상 사업 활동 영역), 혁신 노력도(기업 활동의 혁신성 영역) 등도 평가 지표에 반영될 필요.



- 강신욱, 강혜규, 노대명, 이현주, 이병재. (2015). **사회보장정책평가의 방향과 과제**. 사회보장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광주광역시. (2019). **2019년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 <https://www.gwangju.go.kr/gjmayor/contentsView.do?pageId=gjmayor13>에서 2020. 11. 1. 인출.
- 광주청년센터. (2019). **2019 광주청년센터 운영사업 정산서**. 내부자료.
- 광주청년센터. (2019). **2019년 주요사업 현황 추진 실적 보고**. 내부자료.
- 광주청년센터. (2019). **청년 마음건강 상담소 토닥토닥 청년상담소 운영 결과보고서**. 내부자료.
- 광주청년센터. (2020). **2020년 사업계획(안)**. 내부자료.
- 광주청년센터. (2020).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내부자료.
- 구광모. (2003). 정책평과와 프로그램평가의 비교- 우리나라 정부평가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17(2), 139-165.
- 국방부. (2020).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35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대구광역시조례 제547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68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https://www.law.go.kr>에서 인출.
-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개요**. https://www.evaluation.go.kr/psec/intro/intro_1_1_1.jsp에서 2020. 10. 30. 인출.
- 김종진, 박관성. (2020). **전국 청년정책 제도화 현황과 실태 - 조례, 기본계획, 부서, 위원회, 센터 -**. 2020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 김창대, 라수현, 안현지. (2019). **활력프로그램 참여자 사업 전후 변화양상 연구-진로정서 자기진단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서울대학교.
- 김태일, 김나연, 김보영, 이주하, 최영준, 최혜진. (2018). **사회보장제도 성인·노인 돌봄 분야 기본평가**. 보건복지부·고려대학교.
- 대구광역시. (2019). **민선7기 시장공약 실천계획**. https://mayor.daegu.go.kr/index.do?menu_id=00935930&servletPath=%2Findex.do에서 2020. 11. 1. 인출.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19). **2019 대구청년학교 탄길 I [3분기 누적 사업결과보고서]**. 내부자료.

202 지역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전달체계 성과평가와 내실화 방안을 위한 연구-광주, 대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료.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19). 2019 청년사업장-청년 잇기 프로젝트 YES! 매칭 [4분기 결과보고서]. 내부자료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19). 2019 청년커뮤니티지원 「다모디라&다모디소」. [4분기 누적 사업결과보고서]. 내부자료.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20). 2019 대구광역시청년센터 결산자료. 내부자료.

대구광역시청년센터. (2020). 2019 청년종합정보제공사업 「청년상담소」 4분기 누적 사업결과보고서. 내부자료.

박영선, 정병순. (2020). 중간지원조직 공익활동 역량 강화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배정희, 김기현. (2020).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16).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2016년도 시행계획. 2016. 5. 26.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제도 평가. <http://www.ssc.go.kr/menu/busi/busi040500.do>에서 2020. 10. 31. 인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9).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차보고서: 청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0). 2019 관계망지원사업 추진결과보고. 내부자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0). 2019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추진 결과보고. 내부자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0). 2019년도 진로탐색지원사업 결과보고. 내부자료.

서울특별시. (2019).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 <http://mayor.seoul.go.kr/app/seoul/manifestoData.do>에서 2020. 11. 1. 인출.

오윤섭, 강지원, 이세미. (2016). 사회보장제도 평가 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광희, 윤수재. (2012). 성과관리와 평가체계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캐나다와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0(1), 37-65.

이상철. (2002). 기초자치단체 문예회관의 효율적 관리방안: 바람직한 행정관리주제 탐색. **한국정책학회보**, 11(3), 193-297.

전웅빈, 문동성, 임주언, 박세원. (2020. 9. 22.). 심상찮은 코로나 블루, “수도권 2030 여성 극단 선택 급증”.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87129>에서 인출.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지역청년센터 종사자 간담회 결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 행정안전부. (2019). 2020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안).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황혜신. (2016).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제고방안: 자체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